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현대중국어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연구

现代汉语否定词‘没’的否定中心研究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賈夢陽

현대중국어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 연구

指導教授 朴正九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3年 5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賈夢陽

賈夢陽의 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3年 7月

委員長 이강재 (印)

副委員長 이옥주 (印)

委員 백은희 (印)

委員 유수경 (印)

委員 박정구 (印)

국문초록

부정초점은 부정사의 적용 범위 내에서 실제로 부정되는 성분을 가리킨다. 부정초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부정사 ‘没’와 ‘不’를 구별하여 다루지 않았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부정사가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일부는 하나의 성분만을 부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구문 및 의미적 측면에서 ‘没’와 ‘不’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며, 부정사가 하나의 성분 혹은 전체 술어를 부정한다고 확일적으로 단정하거나 단순히 문장의 초점이 부정초점의 기능을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BCC 코퍼스를 통해 부정사 ‘没’와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공기는 예문들을 전수조사 및 통계분석하여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문장 성분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였으며,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확립 규칙과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부정초점의 연구 대상은 부정사의 적용 범위 내에서 실제로 부정되는 성분이며 부정사의 적용 범위는 부정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초점에 대한 연구에 앞서 부정범위를 먼저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중국어 부정사의 분포적 특징, 의문문에서의 부정대상, 부정대상이 문장의미에 미치는 영향, 부정문의 전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정사가 후행 성분만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또한, 중국어 부정사의 부정범위가 부정사의 뒤로 한정되는 이유는 중국어 부정사가 다른 언어와는 달리, 문장 내에서 어느 위치에나 출현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고 싶은 성분의 앞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부정사 ‘没’는 기타 술어 성분과 함께 ‘没+VP’ 형식으로 문장의 전제를 부정할 수 있다. 부정사 ‘没’의 앞에 대조강세나 ‘是’, ‘就’, 배타적 양화사(唯量词)가 출현하는 경우 ‘没+VP’는 문장의 전제로서 대화에 배경을 제공할 뿐이며 부정사 ‘没’가 직접 그 앞에 출현하는 강조 성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코퍼스 자료를 통계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술어 전체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비율은 각각 69%, 52%, 89%로 나타났다. 우선, 부사어가 동사의 앞에 출현하는 부정문의 경우, 명사성, 동사성, 전치사구 부사어

일 경우, 연관, 부정, 모습,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혹은 부사성 시간 부사어 일 경우에 부정사 ‘没’는 부사어를 포함한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부사어가 특징 및 상태 부사어, 부사성 범위 부사어일 경우에 부정사 ‘没’는 부사어만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보어가 부정문에 출현하는 경우 결과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기본형식의 가능보어, 결과의미의 방향보어, 강지속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전치사구 보어는 모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관용어, 특수 형식의 가능보어, 방향의미와 상태의미의 방향보어, 대부분 전치사구 보어는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식어가 출현하는 부정문에서 수식어가 ‘几/两/比/一+수+양사’일 경우 수식어 성분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중 동사가 초과(超过)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뒤에 구체적인 수량사가 출현할지라도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 또한, 수식어 성분이 ‘一/半+양사’, ‘这/那+양사’,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구, 단문 등일 경우에도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조초점은 부정사 ‘没’가 부정초점을 결정하는 최우선적인 요인이다. 즉 ‘没’의 뒤에 대조초점이 있다면 우선으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부정사 ‘没’는 양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양을 나타낼 경우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구문의 구조도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친다. 전치구 부사어와 술어 사이에는 ‘선택제한(选择限制)’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된다. 부정사 ‘没’의 뒤에 부정 부사어가 출현할 경우에는 이중부정의 형식으로서 ‘没’가 전체 술어를 부정하며 어기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向’, ‘于’, ‘给’, ‘自’ 등의 전치사가 동사의 뒤에 출현할 경우, 전치사 ‘到’의 선행 동사가 심리동사 혹은 약지속 동사일 경우 선행 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一/半+양사’ 형식의 수식어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경우 고정된 하나의 구문으로서 부정사 ‘没’가 술어 전체를 부정하므로 완전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넷째, 술어 사건과 부사어 및 보어의 시간적 관계 역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부사어는 술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행위자가 특정 모습으로 동작을 시작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한정하기 때문에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V+得+상태보어/정도보어’ 구조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부정사 ‘没’는 상태보어와 정도보어의 앞에서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상태보어와 정도보어만 부정한다. 다섯째, 부사어의 의미지향도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모습 부사어는 주어의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동작이 발생하지 않아도 주어를 묘사할 수 있다. 따라서 모습 부사어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후행하는 술어 사건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때문에 해당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 이미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신정보 전제 원칙’에 따르면 ‘这/那+양사’,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구, 단문 등과 같은 수식어는 신정보일지라도 문장의 전제로서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된다.

본고는 BCC 코퍼스를 통해 부정사 ‘没’와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공기하는 문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정량적 데이터 분석(Quantitative statistics)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분포 양상을 도출하고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확립 규칙을 밝혔으며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부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중국어 교육에도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부정사 ‘不’의 부정초점, 조사 ‘了’의 기능, 중국어와 다른 언어의 부정 비교 등과 관련된 연구에도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부정초점, 부정범위, 부사어, 보어, 수식어, 코퍼스 데이터 분석, 정보구조, 대조초점, 양적 특징, 의미지향

학 번: 2014-31397

< 목 차 >

국문초록	1
제1장 서론	1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6
1.2.1 부정범위와 부정초점에 관한 선행 연구	6
1.2.2 정보구조에 관한 선행 연구	18
1.3 연구의 전개 및 논의의 구성	24
제2장 부정사 ‘沒’의 부정범위	27
2.1 부정범위의 재정립	27
2.1.1 중국어 부정사의 분포적 특징과 부정범위	27
2.1.2 의문사와 부정범위	30
2.1.3 부정대상이 문장 의미에 미치는 영향	33
2.1.4 부정사 ‘沒’와 문장의 전제	37
2.2 부정사에 선행하는 강조 성분	41
2.2.1 문두 대조초점과 부정범위	43
2.2.2 ‘連’자문의 부정범위	46
2.3 소결	53
제3장 부사어와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	55
3.1 부정사 ‘沒’와 공기하는 부사어의 유형 분류	55
3.2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	67

3.3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5
3.3.1 대조초점	75
3.3.2 부정사 ‘沒’의 문법적 특징	80
3.3.3 부사어와 술어 간의 시간적 관계	82
3.3.4 부사어의 분포	87
3.3.5 부사어의 양적 특징	92
3.3.5.1 부사성 범위 부사어	95
3.3.5.2 정도 부사어	97
3.3.5.3 시간 부사어	99
3.3.5.4 묘사성 부사어	102
3.3.6 묘사성 부사어의 의미지향	103
3.3.7 이중 부정	108
3.4 소결	111
제4장 보어와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	114
4.1 부정사 ‘沒’와 공기하는 보어의 유형 분류	114
4.2 보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	119
4.3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2
4.3.1 결과보어	122
4.3.2 상태보어 및 정도보어	125
4.3.2.1 상태보어의 종결성	126
4.3.2.2 상태보어 및 정도보어의 양적 특징	130
4.3.2.3 보어를 구성하는 ‘得’의 기능	132
4.3.3 가능보어	135
4.3.4 방향보어	138
4.3.5 전치사구 보어	141
4.3.5.1 ‘V + 전치사구’와 동보형식의 ‘V + 목적어’	142

4.3.5.2 전치사구 보어가 대조초점인 경우	144
4.3.5.3 ‘到’로 구성된 전치사구 보어	146
4.4 소결	149
제5장 수식어와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	152
5.1 부정사 ‘沒’와 공기하는 수식어의 유형 분류	152
5.2 수식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	156
5.3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1
5.3.1 신정보 전제 원칙	161
5.3.2 차등부정	166
5.3.3 완전부정	169
5.3.4 동사의 결과의미	171
5.3.5 대조초점 수식어	175
5.4 소결	177
제6장 결론	179
【참 고 문 헌】	183
【中文摘要】	193

< 표 목 차 >

[표1-1] 부정범위가 부정사의 앞까지 확장되는 경우	16
[표1-2] 부정초점과 관련 선행 연구	17
[표1-3] 초점 유형, 특징 및 화용적 표명	20
[표2-1] ‘(是)老王没来’의 사용 양상	37
[표2-2] 문두 강조 성분의 기능과 ‘没+VP’ 사이의 관계	42
[표3-1] 潘国英(2010:54-55)의 부사어 분류	56
[표3-2] Herburger(2000:29-30)의 부정초점 분류	67
[표3-3] 부사어의 의미적 분류에 따른 부정초점의 분포	71
[표3-4] 부사어의 품사와 의미적 분류에 따른 부정초점의 분포	73
[표3-5] 유형별 부사어의 출현 위치	88
[표4-1] 기존 연구의 보어 유형	115
[표4-2] 부정사‘没’의 부정초점과 보어의 관계	120
[표4-3] 동사의 종결성과 상태보어의 관계	128
[표4-4] 李锦姬(2003)의 분리성 동보구조 분류	130
[표4-5]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得’자 간의 관계	133
[표4-6]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및 가능보어의 관계	138
[표4-7]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및 전치사 ‘到’의 관계	149
[표5-1] 수식어 유형	153
[표5-2] 수식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 양상	158
[표5-3] 수식어의 형식에 따른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의 분포	159
[표5-4] 수식어와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	161

< 그림 목 차 >

[그림2-1] ‘是老王没来’와 ‘来的人不是老王’의 도식	35
[그림3-1]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부사어 간의 관계	69
[그림3-2] 부사어의 품사와 의미적 분류에 따른 부정초점의 분포	74
[그림3-3] 부정사 ‘没’의 증량 및 감량 의미	97
[그림3-4]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	111
[그림4-1] 부정사‘没’의 부정초점과 보어의 관계	121
[그림4-2] 李锦姬(2003:38)의 분리형 동보구조의 시간과정	127
[그림4-3] 결과보어와 상태보어의 양을 나타내는 방식	131
[그림4-4] 보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	150
[그림5-1] 수식어의 형식에 따른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의 분포	160
[그림5-2] 张苗苗·谭景春(2022:45)의 결과 의미 동사의 의미적 연속체	173
[그림5-3] 수량 수식어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	175
[그림5-4] 수식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	178
[그림6-1]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 양상	179

제1장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세계의 모든 언어에는 부정 표현이 존재하며, 이러한 부정 표현의 부정범위를 ‘부정 영향권’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부정범위는 부정사의 적용 범위, 즉 하나의 부정사가 포함된 부정 형식에서 부정사로 부정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항목으로 구성된다.

吕叔湘(1985), 沈家煊(1999), 袁毓林(2000) 등에 따르면 부정사가 출현하는 문장에는 ‘부정범위’와 ‘부정초점’이 존재한다. 또한, 현대중국어에서 부정사 ‘没’나 ‘不’의 부정범위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사에 후행하는 모든 성분이 포함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 a. 这些天没一直下雨, 下几天晴几天的。
최근에 비가 계속 오지는 않았어요. 비가 오다, 개었다를 반복했어요.
- b. 这些天一直没下雨, 庄稼都旱了。
최근에 계속 비가 오지 않았어요. 농작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 (2) a. 今天的课,我全没明白, 一个字都没听懂。
오늘 수업을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글자도 못 알아들었어요.
- b. 今天的课,虽然没全明白, 也明白了一些。
오늘 수업을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이해했어요.

(1a)는 ‘一直’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이고 (1b)는 ‘一直’가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부정사의 위치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2)의 경우에도 (1)과 마찬가지로 ‘全’이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는지, 또는 뒤에 출현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만일 부정사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경우 비문이 된다.

- (1') a. *这些天一直没下雨, 下几天晴几天的。

- b. *这些天没一直下雨, 庄稼都旱了。
- (2) a. *今天的课,我没全明白, 一个字都没听懂。
- b. *今天的课,虽然全没明白, 也明白了一些。

위의 예문들을 통해 부정사의 출현 위치 즉, 부정범위가 문장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吕叔湘(1985), 徐杰·李英哲(1993), 沈家煊(1999), 袁毓林(2000), 胡建华(2007) 등은 부정사 앞의 성분이 부정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吕叔湘(1985), 沈家煊(1999)의 견해에 따르면 부정사 앞의 성분에 대조강세가 실리는 경우 부정사는 대조강세가 실린 성분을 부정한다. 즉, 아래의 예문에서 ‘不’가 부정하는 것은 대조강세가 실린 ‘小王’이다.

- (3) 小王不想打球, 小李想打。
- 샤오왕은 공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샤오리는 하고 싶었어요.
- (吕叔湘, 1985/2002:437)

다음으로 徐杰·李英哲(1993)의 주장에 따르면 부정사는 문장의 초점만을 부정한다. 즉, 문장의 초점이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든 뒤에 출현하든 상관없이 부정사는 해당 문장의 초점만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4)에서 초점은 초점표지 ‘是’에 후행하는 ‘小王’이므로 ‘没’가 부정하는 것은 ‘小王’이 된다.

- (4) 是小王没来上课。
- 샤오왕은 수업에 오지 않았어요.
- (徐杰·李英哲, 1993:81)

또한, 袁毓林(2000), 沈家煊(1999)에 따르면 부정사는 강세가 실린 성분을 부정하거나 ‘连’, ‘就’, ‘对’, ‘是’ 등에 후행하는 성분을 부정한다. 따라서 아래의 예문에서 부정사가 부정하는 성분은 ‘连’에 후행하는 ‘工本费’가 된다.

- (5) 她连工本费也不给我。

그녀는 제작비조차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袁毓林, 2000:103)

胡建华(2007)는 만일 동사의 의미상 대상이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 해당 성분은 부정사에 의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래의 예문에서 ‘这句话’는 주요 동사 ‘听’의 대상이므로, 부정사가 부정하는 것은 ‘这句话’이다.

(6) 我就这句话听不进去。

저는 이 말이 듣기 싫어요.

(胡建华, 2007:101)

그러나 부정사가 후행 성분과 선행 성분을 모두 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만일 부정사가 앞뒤의 성분을 모두 부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全’이 ‘没’의 뒤에 출현하는 (7a)와 ‘没’의 앞에 출현하는 (7b)의 의미적 차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부정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7) a. 我没全明白。

저는 다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b. 我全没明白。

저는 다(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둘째, (8B)에서 ‘没’가 ‘小王’을 부정한다고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8B)의 의미는 (8B'')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8A)에 대한 질문으로 (8B)와 (8B')는 가능하지만, (8B'')는 쓰일 수 없다. 즉 (8)의 대화 상황에서는 (8B)의 의미를 (8B')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8B'')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고는 (8B)의 경우 ‘没’가 ‘小王’을 부정한다고 보는 견해는 적절하지 않으며 ‘没’가 부정하는 성분은 ‘来(上课)’라고 판단한다.

(8) A: 谁没来上课?

누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B: 是小王没来上课。

샤오왕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B': 别人都来上课了, 小王没来。

다른 사람들은 수업에 참석했는데, 샤오왕이 안 왔어요.

B': *来上课的不是小王。

수업에 참석한 사람은 샤오왕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부정초점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부정초점은 ‘부정중심’이라고도 부르며 부정범위 내에서 실제로 부정되는 성분을 가리킨다. 즉, 부정사는 부정범위의 모든 성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된 하나의 성분만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9a)에서 ‘没’가 부정하는 것은 부사어 ‘使劲’이고, (9b)에서는 수식어 ‘冰箱里的’이며 (9c)의 경우에는 보어 ‘好’를 부정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예문 (9)에서 부정초점은 각각 ‘使劲’, ‘冰箱里的’, ‘好’라고 볼 수 있다.

(9) a. 他没使劲跑。

그는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았어요.

b. 我没吃冰箱里的菜。

저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c. 我昨天没睡好。

저는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나 본고는 (9)와 같이 부정초점이 하나의 성분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술어가 부정초점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0) a. 他没马上明白他是谁, 在什么地方, 在哪个世界。他突然想起来...(帕斯捷尔纳克, 『日瓦戈医生』)

그는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세상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생각났다. ...

- b. 她非但不对他笑, 反而沉着脸叫他放还原处。他并没马上照办, 还要追问为什么。(罗曼·罗兰, 『约翰·克利斯朵夫』)
 그녀는 그에게 미소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엄한 표정으로 물건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 그는 즉시 그녀의 말대로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왜냐고 캐물었다.
- (11) a. 小时候, 自行车骑太快了, 在坡路上拐弯没拐过来, 差两厘米右眼就失明了。(村上春树, 『天黑以后』)
 어릴 때, 자전거를 너무 빨리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코너를 제대로 돌지 못해 오른쪽 눈을 2cm 차이로 실명할 뻔했다.
- b. 姚老先生说: “好吧, 再见。”眼睛也没转过来看她。(林语堂, 『京华烟云』)
 야오 어르신은 그녀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으며, “그래요, 다음에 봐요.”라고 말했다.
- (12) a. 告诉他, 哪个坟是他外婆的, 哪个是他娘的, 还有他舅舅的。我还没说二喜的坟, 苦根伸手指指他爹的坟哭了。(余华, 『活着』)
 어느 무덤이 외할머니인지, 어느 무덤이 어머니인지 또 외삼촌인지 알려주었다. 난 아직 알시의 무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쿠건은 아버지 무덤을 가리키며 울었다.
- b. 他并没答复弗兰兹的话, 却问派里尼老板能不能给他找一个裁缝。(大仲马, 『基督山伯爵』)
 그는 프란츠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패리니 사장에게 그에게 재봉사를 찾아줄 수 있는지 물었다.

(10a), (11a), (12a)의 경우 ‘没’는 부사 ‘马上’, 보어 ‘过来’, 수식어 ‘二喜的’만을 부정하는 반면, (10b), (11b), (12b)의 경우에는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 이러한 예문을 통해 부정사가 하나의 성분만을 부정한다고 보는 견해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범위가 부정사의 앞쪽까지 확장될 수 있고 부정초점이 하나의 성분만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기존의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사 ‘没’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부정범위와 부정초점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부정범위가 항상 부정사 ‘没’의 뒤에 놓임을 증명할 것

이며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부정사 앞의 성분에 대조강세가 실리거나 ‘连’, ‘就’, ‘对’, ‘是’ 등이 부가되는 경우 해당 성분이 어떠한 화용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BCC(北京语言大学语料库: 베이징어언대학교 코퍼스)에 근거하여 부정사 ‘没’가 부사어, 보어, 수식어와 공기하는 예문들을 전수조사한 후 통계분석을 통해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 부정초점의 분포적 특징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선행 연구

1.2.1 부정범위와 부정초점에 관한 선행 연구

부정범위와 부정초점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부정범위의 정의, 부정초점의 단독 존재 여부, 부정초점과 기타 성분 간의 관계, 부정초점과 문장 초점 간의 관계 등을 다루었다. 우선, 吕叔湘(1985/2002)에 따르면 부정사 ‘不/没’의 부정범위에는 후행하는 모든 성분이 포함되며, 특정 성분이 부정범위 내에 존재하는지, 또는 밖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는 달라진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 부사어 ‘一直’, ‘天天’, ‘实实在在’가 부정범위의 밖에 출현하는 (13a), (14a), (15a)와 부정범위 내에 출현하는 (13b), (14b), (15b)의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13) a. 我一直没生病。
저는 계속 아프지 않았어요.
b. 我没一直生病。
저는 계속 아프지는 않았어요.
- (14) a. 他天天不上班。
그는 매일 출근하지 않아요.
b. 他不天天上班。
그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아요.

- (15) a. 我实实在在没告诉他。
저는 그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 b. 我没实实在在告诉他。
저는 그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吕叔湘, 1985/2002:436)

다음으로 吕叔湘(1985/2002)은 부정문에는 보통 부정초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부정초점은 일반적으로 문말, 즉 문말 강세가 실리는 성분(어기조사, 인칭대명사 등은 제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조의 문맥이 있는 경우 부정초점은 대조강세가 실린 성분으로 이동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 (16) a. 我没问他的经历, (只谈了现在的情况。)
저는 그의 과거는 묻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만 얘기했어요.)
- b. 我没问他的详细经历, (只知道他在农村里呆过。)
저는 그의 자세한 과거는 묻지 않았어요. (그가 시골에서 지냈었다는 것만 알아요.)
- c. 我没问他的经历, (是他自己告诉我的。)
저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 저에게 알려줬어요.)
- d. 我没特地问他的经历, (是谈情况时透露的。)
저는 그의 과거를 일부러 묻지는 않았어요. (상황을 얘기하면서 드러났어요.)

(吕叔湘, 1985/2002:437)

吕叔湘(1985/2002)의 주장에 따르면 (16a)에는 대조강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말의 ‘经历’가 부정초점이 되지만, (16b), (16c), (16d)의 경우에는 대조강세가 실린 ‘详细’, ‘问’, ‘特地’가 부정초점이 된다.

또한, 吕叔湘(1985/2002)은 부정초점이 부정사 ‘不/没’의 앞에도 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부정범위가 ‘不/没’의 앞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17)에서 ‘小王’과 ‘早’는 각각 대조강세가 실린 성분으로 부정초점이 된다.

- (17) a. 小王不想打球, (小李想打。)

샤오왕은 공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샤오리는 하고 싶었어요.)

- b. 你早不去, 晚不去, 这一下可赶上了!

당신은 일찍 가지도 않고, 늦게 가지도 않고, 지금 딱 맞춰 갔네요!

(吕叔湘, 1985/2002:437)

吕叔湘(1985/2002)은 부정사 ‘不/没’ 자체도 부정초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8)에서 부정사 ‘没’와 ‘不’는 각각 대조장세로 강조되기 때문에 부정초점이 된다.

- (18) a. 我没说, 真的没说。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말하지 않았어요.

- b. 我不知道, 不知道就是不知道。

저는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吕叔湘, 1985/2002:437)

다음으로 钱敏汝(1990)의 견해에 따르면 ‘的’, ‘地’, ‘得’는 ‘不’의 부정범위를 단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정범위나 부정초점은 ‘的’, ‘地’에 선행하거나 ‘得’에 후행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 (19) a. 他提出一个不切实际的想法。

그는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 b. 他不高兴地埋怨。

그는 뼈져서 원망했어요.

- c. 他擦得不干净。

그는 제대로 닦지 않았어요.

(钱敏汝, 1994:173)

(19a)는 부정사 ‘不’가 ‘的’의 선행성분 ‘切实际’를 부정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的’의 후행 성분인 ‘想法’까지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这个想法不切实际’를 의미한다. (19b)는 부정사 ‘不’가 ‘地’의 선행 성분인 ‘高兴’을 부정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地’의 후행 성분인 ‘埋怨’까지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埋怨时的状

态是不高兴’을 의미한다. (19c)는 ‘不’가 ‘得’의 후행 성분인 ‘干净’만을 부정하는 경우로 ‘擦了, 但还是不干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예문을 보면 ‘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의미상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20) a. 他不乐意地说。
그는 기분 나쁘게 말했어요.
b. 他不乐意说。
그는 말하기 싫어해요.

(钱敏汝, 1994:176)

(20a)는 동사 ‘说’의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그 상황이 ‘不乐意’ 상태에서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20b)는 동사 ‘说’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원인이 ‘不乐意’이기 때문임을 나타낸다. 钱敏汝(1990)의 주장에 따르면 (20a)의 경우 ‘地’가 ‘不’의 부정범위를 중간에 단절시키기 때문에 부정사 ‘不’가 ‘说’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b)의 경우에는 ‘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不’의 부정범위에 ‘说’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钱敏汝(1990)는 ‘的’, ‘地’, ‘得’가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徐杰·李英哲(1993)에 따르면 부정은 비선형적인 문법범주이며 그 대상은 문장 전체이다. 즉, 부정문에는 독립적인 부정초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정초점이 바로 문장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부정초점과 부정사 사이에 어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정초점은 부정사 자체와 별개로 문장의 초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정사의 위치는 부정사의 품사적 특징과 초점표지에 따라 결정되며, 부정은 긍정의 의미를 변화시킬 뿐 문장의 초점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1) 是老王没来。
라오왕이 오지 않았어요.

(徐杰·李英哲, 1993:81)

徐杰·李英哲(1993)의 견해에 따르면 (21)는 초점표지 ‘是’가 출현하는 경우
이므로 부정사가 어디에 출현하든 상관없이 부정초점은 ‘是’에 후행하는 성분
이다. 즉 (21)에서 부정사 ‘没’가 동사 ‘来’의 앞에 출현하지만, 부정초점은 ‘来’
가 아닌 ‘是’가 강조하는 성분인 ‘老王’이 된다. 따라서 문장의 의미는 ‘很多人都来了,但老王没来’로 해석된다.

또한, 徐杰·李英哲(1993:79)는 초점성의 위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是’가 강조하는 성분 → ‘连’, ‘就’, ‘才’이 강조하는 성분 → 수량 성분 → ‘把’
의 목적어 → 수식어 → 중심어 → 화제

그가 제시한 위계를 보면 초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是’가 강조하
는 성분이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화제이며 외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초점이 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진다. 따라서 ‘连’, ‘就’, ‘才’ 등으로 강조되는 성
분, 수량 성분, ‘把’의 목적어 및 기타 수식 성분은 중심어나 화제보다 부정초점
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 (22)는 ‘连’에 후행하는 ‘你
弟弟’, 수량 성분 ‘晚上11点’, 수식 성분 ‘干净’, ‘这件好事’이 부정초점으로 기능
하는 경우이다.¹⁾

- (22) a. 你连你弟弟也不认识了!
당신은 동생조차 알아보지 못하네요!
- b. 他没等到晚上11点。(等还是等了。)
그는 밤 11시까지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기다리기는 기다렸어요.)
- c. 他没扫干净。(扫倒是扫了。)
그는 제대로 쓸지 않았어요. (쓸긴 쓸었어요.)
- d. 他对这件好事不热心。(对别的事倒常起哄。)
그는 이 좋은 일에 미적지근해요. (다른 일에는 오히려 늘 적극적인이
요.)

沈家煊(1999/2015)은 부정을 무표적 부정과 유표적 부정으로 양분하였다. 그

1) 徐杰·李英哲(1993)는 동보구조의 보어와 전치사구를 모두 수식 성분으로 보았다.

누군가 정시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c. 没有准时上班 = {上班了,但不准时}

정시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 출근하긴 했지만, 정시에 출근하지는 않았다.

(袁毓林, 2000:101)

(24a)는 (24b)의 ‘谁没有准时上班?’에 대한 대답이며 전제는 (24b)의 ‘有人没准时上班’이다. 따라서 (24a)에서 문장의 초점은 ‘小王’이며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은 ‘准时上班’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부정 형식도 전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부정초점과 문장의 초점은 동일한 성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袁毓林(2000)은 무표적 부정문의 경우에는 부정초점과 문장의 초점이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문말에 위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표적 부정문의 경우에는 부정초점이 문장의 초점과 분리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분리는 문장의 초점이 불규칙적이고 강조표지에 의해서 강제로 규정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袁毓林(2000)은 초점이 부정사 앞에 출현하려면 일반적으로 유표적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유표적 형식에는 강세, ‘连’, ‘就’, ‘对’, ‘是’ 등과 같은 강조표지가 있으며, 강조표지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 앞의 성분도 부정초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24a)의 ‘是小王没准时上班’에서 ‘是’에 후행하는 ‘小王’은 문장의 초점으로서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며 부정초점으로도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4a)는 袁毓林(2000)이 앞서 주장한 ‘유표적 부정문의 경우 문장의 초점과 부정사의 부정초점은 분리될 수 있다’는 견해와는 모순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본고는 (24a)의 ‘是小王没准时上班’에서 부정사 앞에 위치한 ‘小王’을 문장의 초점이면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으로 보는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沈家煊(1999)은 부정사가 전제를 부정하는 경우를 유표적 부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袁毓林(2000)은 부정문에서 부정사는 초점 성분만을 부정할 뿐 문장의 전제는 부정할 수 없으며, 문장의 전제가 거짓이더라도 간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5) 法国国王并不聪明, 因为压根儿没有这个人。

프랑스 왕은 영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袁毓林, 2000:107)

袁毓林(2000)의 주장에 따르면 예문 (25)에서 전문의 전제 ‘法国国王’은 실제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후문에서 초점의 자격으로 부정된다. 그는 부정사가 문장의 전제를 부정할 수도 있다는 오판은 의미 단조성(monotonicity)과 같은 오인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袁毓林(2000)이 언급한 의미 단조성(monotonicity)은 전문 부정문의 전제는 당연히 후문과 의미적으로 충돌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부정문의 전제가 후문에서 부정된다면 전문에서도 반드시 부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胡建华(2007)는 부정범위, 인접부정(毗邻否定), 부정과 초점 간의 관계, 부정사 ‘不’의 통사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는 다음의 두 가지 논거를 통해서 부정사의 부정범위를 부정사가 통제하는 성분으로 구성된 동사구로 규정하였으며, 부정사가 그 앞에 위치한 문장의 초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徐杰·李英哲(1993)의 관점에 따르면, (26)와 (27)에서 부정사가 부정하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문장의 초점인 수식 성분 ‘好好’, ‘慢慢’이다. 다시 말해서 문장의 초점은 어느 위치에 출현하든 상관없이 항상 부정사에 의해 부정된다. 그렇다면 ‘好好’, ‘慢慢’이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는 (26b), (27b)는 (26a), (27a)와 마찬가지로 성립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비문이 된다.

(26) a. 他不好好吃饭。

그는 제대로 밥을 먹지는 않아요.

b. *他好好不吃饭。

(27) a. 他不慢慢走。

그는 천천히 걷지는 않아요.

b. *他慢慢不走。

(胡建华, 2007:101)

둘째, 徐杰·李英哲(1993)의 분석에 따르면 부정사가 그 앞에 위치한 초점을 부정할 수 있다면, (28)의 ‘不’는 동사 ‘吃’를 부정하지 않고 문장의 초점 ‘老王’을 부정한다. 이러한 경우 동사 ‘吃’와 ‘了’는 공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28)처럼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위의 예문들을 통해 부정사는 그 앞에 위치한 초점을 부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8) *是老王不吃了木瓜。

(胡建华, 2007:101)

胡建华(2007)는 유표적 부정문에서도 부정사의 앞에 위치한 성분이 주요 동사가 통제하는 종속 성분일 경우에만 부정범위가 부정사 앞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9) 我就这句话听不进去。

나는 이 말이 듣기 싫어요.

(胡建华, 2007:101)

胡建华(2007)에 따르면 (29)에서 부정사 ‘不’는 ‘这句话’를 부정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통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这句话’가 동사 ‘听’의 목적어이기 때문이다.

胡建华(2007)는 부정사 ‘不’는 의미적으로 문장의 초점을 부정하지 않으며 초점을 포함한 술어(FP)를 부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정사 ‘不’는 통사적으로도 문장의 초점을 부정하지 않고 술어(VP)와 동사구의 중심어인 동사를 부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 예문을 보자.

(30) 他不在学校读小说。

그는 학교에서는 소설을 읽지 않아요.

(31) 他没快跑。

그는 빨리 달리지는 않았어요.

(胡建华, 2007:103)

(30)은 그 사람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소설을 읽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맥락으로 (31)는 ‘그가 도망쳤지만 빨리 도망치지 않았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하여 ‘跑’와 ‘快’의 특징이 있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戴耀晶(2000: 45-49)은 현대중국어에서 부정과 긍정의 불균형 현상을 통해 부정문에는 다음의 의미적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부정문은 최대량(最大量)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유지’ 의미의 특징이 있다. 또한, 이전의 사건과 상존할 수 있고 표지가 오는 특징이 있으며, 부정범위가 유연한 특징이 있다.

戴耀晶(2004: 20-27)에 따르면 부정문은 부정성 확대(Negative Polarity)를 나타내며, 긍정문은 긍정성 확대(Positive Polarity)를 나타낸다. 戴耀晶(2004)은 부정문과 긍정문의 통사 구조 및 문장의 의미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긍정문은 단일 의미로만 해석되고, 부정문은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정문은 중의성 문제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부정문에서 한 단어가 다양한 의미적 특징을 나타낼 경우 하나의 의미적 특징이라도 부정된다면, 문장은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문에서 단어의 의미적 특징이 복잡할수록 중의성도 커지고 문장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진다.

熊仲儒(2005)는 ‘기본 규칙(默认规则)’을 부정사가 부정 대상의 앞에 위치해야 하는 것으로, ‘현저 규칙(显著原则)’을 부정사가 부정 대상의 뒤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통사 규칙(句法规则)’을 부정사가 반드시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부정초점은 이런 규칙의 서열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통사 규칙’이 ‘현저 규칙’보다 상위에 있고, ‘현저 규칙’이 ‘기본 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어감의 경우, 부정은 초점과 관련이 있으며, 부정사는 부정초점과 인접할 필요가 없다. ‘통사 규칙’이 ‘기본 규칙’보다 상위에 있고, ‘기본 규칙’이 ‘현저 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어감의 경우, 부정문의 초점은 부정초점과 분리될 수 있다.

李宝伦(2016)은 초점에 대한 ‘没(有)’와 ‘不’의 민감도 차이를 고찰하였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不’는 초점에 민감한 부정초점민감연산자(Focus-Sensitive Negation)로서 초점에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没(有)’는 초점에 간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没(有)’의 부정은 초점 성분이 배타

적인 해석을 제공하지 않고, 관련 사건의 발생이 예측되며 초점 성분과 최소 하나의 다른 옵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 특징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면 부정사가 선행 성분까지 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은 아래와 같다.

[표1-1] 부정범위가 부정사의 앞까지 확장되는 경우

학자	부정사에 선행하는 성분의 유형
吕叔湘(1985)	대조강세
徐杰 · 李英哲(1993)	문장의 초점
袁毓林(2000)	대조강세, ‘连’, ‘就’, ‘对’, ‘是’ 등 표지로 강조되는 성분
沈家煊(1999)	대조강세, ‘连’, ‘就’, ‘对’, ‘是’ 등 표지로 강조되는 성분, 전체
胡建华(2007)	유표적 부정문의 전치 목적어

[표1-1]을 통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부정범위의 정의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통된 견해는 부정범위가 일반적으로 부정사 뒤에 위치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부정사 앞에 위치한 성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부정사가 선행 성분을 부정할 경우 부정되는 성분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吕叔湘(1985)과 沈家煊(1999)은 일반적으로 부정사의 부정범위가 부정사의 뒤에 위치하지만, 부정사 앞에 대조강세가 출현할 경우 대조강세가 실린 성분을 부정하다고 주장하였다. 徐杰 · 李英哲(1993)는 문장의 초점이 바로 부정초점이며 문장의 초점은 부정사의 앞이나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袁毓林(2000)은 부정초점과 문장의 초점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주장은 부정범위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袁毓林(2000)은 부정사 앞의 성분에 강세가 실리거나 ‘连’, ‘就’, ‘对’, ‘是’ 등 표지로 강조되는 경우 부정사에 의해서 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유형의 관점은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胡建华(2007)는 부정사의

선행 성분이 주요 동사가 통제하는 종속 성분일 경우에만 부정범위가 부정사의 앞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면 부정범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이지만, 특정 조건하에서 부정사가 선행 성분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조건이 바로 부정범위의 정의를 난해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초점과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부정초점과 관련 선행 연구

학자	부정초점	부정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성분
吕叔湘(1985)	하나의 성분	대조초점, 문말 자연초점
钱敏汝(1990)	하나의 성분	‘的’, ‘地’ 이전 혹은 ‘得’ 이후의 성분
徐杰·李英哲(1993)	하나의 성분	문장의 초점
沈家煊(1999)	하나의 성분	부사어, 보어, 수식어
胡建华(2007)	하나의 성분/술어	전체 술어 / 동사구의 중심어
李宝伦(2016)	하나의 성분	초점에 간접적으로 민감한 부정사 ‘没’

[표1-2]를 통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부정초점을 전체 술어가 아니라 하나의 성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吕叔湘(1985)은 부정사가 대조강세와 문말 강세로 강조되는 성분을 부정한다고 주장하였다. 钱敏汝(1990)는 부정초점을 표층 형식에서 ‘的’, ‘地’의 앞 혹은 ‘得’의 뒤에 출현하는 성분으로 한정하였다. 沈家煊(1999)은 부정사가 부사어, 보어, 수식어 성분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徐杰·李英哲(1993)에 따르면 부정사는 문장의 초점을 부정하며 이러한 초점은 대부분 논항 초점(대조초점) 혹은 서술어 초점이고 초점 선택서 열상 서술어 초점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다. 李宝伦(2016)은 부정사 ‘没’가 초점에 간접적으로 민감하고, 하나의 초점 성분과만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胡建华(2007)는 부정초점을 논할 때 초점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부정사 ‘不’는 초점을 중심으로 구성된 초점구를 부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정초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일부 학자들은 부정초점이 하나의 성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일부는 술어 전체로 주장하였고, 또 다른 학자들은 문장의 초점이 바로 부정초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부정사가 하나의 성분 혹은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고 확일적으로 단정하거나 단순히 문장의 초점이 부정초점의 기능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부정초점에 대하여 ‘不’와 ‘没’를 혼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부정사 ‘不’와 ‘没’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이미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논증되었다. 즉 문법적 및 의미적 기능이 상이한 ‘不’와 ‘没’를 혼용하여 분석한다면, 부정초점 실현의 근본 원인을 도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범위를 부정사 ‘没’로 제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가상의 예문을 통해 부정초점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비록 일부 특수한 상황은 고찰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예문들은 오히려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된 부정초점은 실제 언어사용과는 불일치할 수도 있으며 모든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CC 코퍼스의 부정사 ‘没’와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공기하는 예문들을 전수조사 및 통계분석하여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문장 성분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1.2.2 정보구조에 관한 선행 연구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부정범위와 부정초점이 문장의 정보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徐杰·李英哲(1993)의 견해에 따르면 부정사는 문장의 초점을 부정한다. 또한, 吕叔湘(1985), 沈家煊(1999), 袁毓林(2000) 등은 부정사의 앞에 대조강세나 ‘连’, ‘就’, ‘对’, ‘是’와 같은 성분이 출현할 경우 부정사는 선행 성분을 부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부정사가 초점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절에서는 초점구조, 초점의 유형, 대조초점, 대조화제, 초점표지 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Lambrecht(1994: 213)에 따르면 초점은 단언과 전제를 구별하는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의 의미 부분이다. 화용적 단언(pragmatic assertion)은 간단히 단언(assertion)이라고도 불리며 청자가 발화된 문장을 들은 결과 알 것이라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이다. 화용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는 간단히 전제(presupposition)라고도 불리며 문장이 발화될 때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화자가 추정하는 문장에서 어휘 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명제들의 집합이다. 단언의 초점(focus of the assertion)은 간단히 초점(focus)이라고도 불리며 단언에서 전제가 아닌 부분, 즉 문맥에서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 또는 복원 불가능한(unrecoverable) 부분이다.

Lambrecht(1994: 222-235)는 초점을 좁은 초점(narrow focus)과 넓은 초점(broad focus)으로 분류하였다. ‘좁은 초점’은 하나의 성분이 문장의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로 ‘논항 초점(argument focus)’이라고도 부른다. 아래 예문을 보자.

(32) Q: I heard your motorcycle broke down?

A: My CAR broke down.

전제: speaker's x broke down

단언: x = car

초점: car

(Knud Lambrecht, 1994:228)

(32)의 ‘My CAR broke down’에서 전제는 화자의 무언가가 고장났다는 것이며 단언은 고장난 것이 바로 자동차이고 초점은 자동차가 된다.

‘넓은 초점’은 둘 이상의 성분이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로, 서술어 초점(predicate focus)과 문장 초점(sentence focu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는 서술어 초점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33) Q: What happened to your car?

A: My car/It broke DOWN.

전제: speaker's car is a topic for comment x

단언: x = broke down

초점: broke down

(Knud Lambrecht, 1994:226)

(33)의 ‘My car/It broke DOWN’에서 전제는 화자의 자동차가 논의의 화제로서 화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언은 화제 지시체와 서술어에 의해 외연의미된 사건 사이의 대하여성 관계의 설정이다. 여기서 초점은 술어, 즉 ‘broke down’이 된다.

다음은 ‘문장 초점’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34) Q: What happened?

A: My CAR broke down.

전제: —

단언: speaker’s car broke down

초점: speaker’s car broke down

(Knud Lambrecht, 1994:233)

(34)의 ‘My CAR broke down’에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언은 전체 명제로 확장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단언과 초점은 일치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초점 유형의 특징 및 화용적 표명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3] 초점 유형, 특징 및 화용적 표명

초점 유형		논항이 초점인 경우	서술어가 초점인 경우	유/무표적	화용적 표명
좁은 초점	논항 초점	+	-	유표적	확인
넓은 초점	서술어 초점	-	+	무표적	평언
	문장 초점	+	+	유표적	사건보도

다음으로 대조초점과 대조화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Lambrecht(1994)는 대조초점을 앞서 언급한 논항 초점 구조와 동일하게 보았다.

즉, 대조초점의 경우에도 논항 초점과 마찬가지로 열린 명제 ‘X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대조초점은 다수의 후보들 중에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확인초점(identification focus)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徐烈炯(2005)의 견해에 따르면 화자의 머릿속에 어떤 범위가 존재할 때 대조초점은 이 범위 중에서 하나 혹은 몇 개의 대상을 선별하고, 다른 대상을 배제하는 기능이 있다.

袁毓林(2006: 21)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초점과 대조초점은 [+대조]의 자질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며, 대조성의 강약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즉 자연초점은 대조성이 약하기 때문에 총망라성과 배타성이 없는 반면, 대조초점은 대조성이 강하기 때문에 총망라성과 배타성이 있다. 또한, 대조초점은 강세가 올 수 없는 성분에 강세를 강제로 부여하여 형성된 초점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강세의 부여 방식은 대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대조강세가 오는 성분이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대조성이 가장 강한 초점은 일반적으로 총망라성(exhaustive)을 가지며 초점 영역 내의 다른 대안적인 성분들과 배타적인(exclusive) 관계를 형성한다.

周士弘(2016)은 두 문장의 화제 사이에 대조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대조의 기능을 가지므로 대조화제라고 불렀다. 또한, 徐烈炯·刘丹青(1998)의 견해에 따르면 문장의 화제는 비록 [+대조]의 자질을 내포할지라도 여전히 가장 강조되는 정보가 될 수 없으며,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정보는 화제 뒤에 출현하는 술어이다. 다시 말해서 문두의 성분은 항상 후행하는 술어의 진술 대상일 뿐이다.

Lambrecht(1994:292-295)에 따르면 대조초점과 대조화제에는 모두 강세가 실린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차이점은 대조초점은 항상 오류 정정이나 모순(correction or contradiction)의 화용적 의미를 함축하는 반면, 대조화제는 이러한 화용적 의미를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5) a. 我喜欢吃[麻辣烫], 不是[羊肉串].
저는 마라탕을 좋아해요. 양꼬치는 좋아하지 않아요.
- b. 我喜欢吃麻辣烫, [我朋友]嘛, 喜欢吃羊肉串.
저는 마라탕을 좋아해요. 제 친구는 양꼬치를 좋아해요.

(35a)에서 ‘麻辣烫’은 대조초점이고 대조강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양꼬치가 아니라 마라탕이다’로서 정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35b)에서는 ‘我朋友’가 대조화제이고 오류 정정이나 모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양꼬치를 좋아한다’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초점 표현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张全生(2009:50)에 따르면 중국어는 강세, 초점표지, 초점민감연산자, 특정 위치에만 출현하는 성분, 어순 변화 등의 방식으로 문장의 초점을 표현한다. 본고에서는 부정초점과 관련이 있는 대조강세, 초점표지 및 초점민감연산자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徐烈炯(2001)에 따르면 일반적인 문장 초점의 경우 강세가 출현하지 않지만, 대조초점의 경우에는 항상 강세가 출현한다. 王温佳·初敏·贺琳(2006:97)은 음성실험을 통해 일상 대화에 나타난 일반 초점 구조의 강세 분포 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세는 주로 문말의 목적어, 수식어, 부사어에 실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张全生(2009:52)의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좁은 초점은 대조초점이며 대조하려는 대상에 강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좁은 초점은 문맥이나 초점민감연산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수 구문의 초점 위치에도 출현할 수 있다. 넓은 초점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되므로 강세와 초점이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즉, 넓은 초점에 출현하는 모든 성분에 강세가 오는 것은 아니며, 강세가 실리는 성분은 초점 범위 내의 특정 성분이다.

다음은 초점표지와 관련된 연구이다. 张全生(2009:52)에 따르면 초점표지는 앞이나 뒤의 성분을 초점화하는 기능을 한다. 方梅(1995)는 초점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초점표지는 표지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는 어떠한 의미도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초점표지는 후행하는 성분을 초점화하는 기능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초점표지의 뒤에 출현하는 성분은 음성적으로 두드러진다. 셋째, 초점표지는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생략되어도 문장은 여전히 성립한다.

다음은 초점민감연산자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张全生(2009:65)의 주장에 따르면 초점민감연산자는 문장의 의미적 초점과 관련이 있

으며,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刘探宙(2008)에 따르면 초점민감연산자에는 ‘总’, ‘都’ 등의 전칭양화부사(全称量化副词), ‘通常’, ‘常常’, ‘有时候’, ‘偶尔’ 등의 빈도부사, ‘为什么’, ‘怎么’ 등의 의문부사, ‘不’, ‘没’ 등의 부정부사, ‘最’와 같은 정도부사, ‘也’, ‘又’ 등의 중복부사, ‘真的’, ‘居然’, ‘竟然’, ‘幸亏’, ‘反正’, ‘大概’, ‘偏偏’, ‘可’, ‘甚至……’ 등의 어기부사, ‘如果’, ‘要是’ 등의 접속사, ‘必须’, ‘应该’와 같은 양태동사, ‘很+태도동사(奇怪, 惊讶……)+목적어’ 형식, ‘越来越’, ‘更别说……’와 같은 기타 성분들이 포함된다.

또한, 刘探宙(2008)는 중국어의 초점민감연산자 중에는 ‘배타적 양화사(唯量词)’라는 특수한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²⁾ 刘探宙(2008)의 견해에 따르면 배타적 양화사는 일반적인 초점민감연산자와 비교했을 때 다음의 두 가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일반적인 초점민감연산자와 달리 배타적 양화사 자체에는 예외적인 의미와 특례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둘째, 배타적 양화사와 관련된 초점의 유형은 주로 범위를 제한하는 수량 성분이나 배제와 확인이 필요한 명사(구)이다. 그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배타적 양화사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배타적 양화사는 초점의 대조성을 극대화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6) a. 小张总是星期六不回家。
샤오장은 항상 토요일에 집에 가지 않아요.
b. 小张就星期六不回家。
샤오장은 토요일만 집에 가지 않아요.

(刘探宙, 2008:263)

(36a)에서 ‘总是’는 ‘星期六’도 강조할 수 있고 ‘星期六不回家’도 강조할 수 있으므로 샤오장이 토요일 이외의 날에 집에 갈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36b)에서 ‘就’는 ‘星期六’만을 강조하며 확인, 배제, 대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샤오장이 토요일에만 집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刘探宙(2008)가 말하는 배타적 양화사는 ‘只’, ‘就’, ‘唯’, ‘惟’, ‘唯独’, ‘仅’, ‘仅仅’, ‘单’, ‘单单’ 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실상 전통 문법에서는 이러한 부사들을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 범위부사로 분류한다.

둘째, 배타적 양화사는 주로 체언 성분과 관련이 있으며 초점 영역이 명확하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7) a. 小张总是星期六不回家。
샤오장은 항상 토요일에 집에 가지 않아요.
b. 小张总是星期六连家也不回。
샤오장은 항상 토요일에 집에조차 가지 않아요.
- (38) a. 小张就星期六不回家。
샤오장은 토요일만 집에 가지 않아요.
b. 小张就星期六连家也不回。
샤오장은 토요일만 집에조차 가지 않아요.

(刘探宙, 2008:263)

(37a)에서 ‘总是’는 후행하는 ‘星期六’와 관련이 있지만, 초점민감연산자 ‘连’이 출현하는 (37b)의 경우에는 ‘总是’의 관련 대상이 ‘连家也不回’로 전환된다. 그러나 (38a)와 (38b)의 경우에는 초점민감연산자 ‘连’이 출현하여도 ‘就’의 관련 대상은 항상 ‘星期六’가 된다.

지금까지 초점의 개념, 초점구조의 유형, 대조화제, 강세, 초점표지, 초점민감연산자 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부정사의 부정범위와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전개 및 논의의 구성

본고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부정사 ‘没’의 부정범위와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영어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어 부정사의 부정범위와 부정초점이 갖는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 대화문을 비롯한 구체적인 문맥에 근거하여 부정사의 의미적 특징 및 다른 성분과의 의미적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부정사 ‘没’의 부정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BCC 코퍼스를 통해 부정사 ‘沒’와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공기하는 문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정량적 데이터 분석(Quantitative statistics)을 진행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 분포 양상을 도출하고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 확립 규칙과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는 코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 단계이다. 사실상 부정사 ‘沒’와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공기하는 예문은 많지 않으며 유형별 분포도 균일하지 않다. 본고는 우선, BCC 코퍼스의 ‘문학’ 분야에서 예문을 추출한 후 유효 데이터가 20개 이하일 경우 ‘신문’ 분야에서 다시 예문을 추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 데이터가 20개 이하일 경우에는 ‘블로그’를 통해 필요한 수량의 예문을 보충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이다. BCC 코퍼스를 통해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데이터 선별을 통해서 의미적으로 모호한 문장을 제거하고, 성분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사어, 보어, 수식어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성분이 공기하는 문장은 배제할 것이다.

세 번째는 유형 분류 단계이다. 본고는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사 ‘沒’의 뒤에 출현할 수 있는 부사어, 보어, 수식어를 의미, 기능,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류하고 각 유형들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네 번째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단계이다. 부정초점의 유형을 크게 부정사 ‘沒’가 단독으로 부사어, 보어, 수식어를 부정하는지, 또는 부사어, 보어, 수식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지에 따라 양분하고, 통계분석을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다섯 번째는 연구결과 도출 및 이론적 설명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 분포 규칙을 도출하고 통사적, 의미적 및 화용적 측면에서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과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정사의 부정범위와 부정초점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와 정보구조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부정사 ‘没’의 분포적 특징, 의문문에서의 부정대상, 부정지향에 대한 문장의미의 영향을 고찰할 것이며 부정사가 후행 성분만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부정사 ‘没’의 앞에 출현하는 초점표지 ‘是’, 대조강제, 배타적 양화사(唯量词)로 강조된 대조초점 성분이 문장에서 어떠한 의미적 기능을 가지는지를 분석할 것이며 ‘连’자문에서 부정사 ‘没’와 ‘连’의 뒤에 출현하는 성분 간의 의미적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BCC 코퍼스 자료에 근거한 통계분석을 통해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유형별 부사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대조초점, 부정사 ‘没’의 문법적 특징, 부사어와 술어의 시간적 관계, 부사어와 술어의 의미적 관계, 부사어가 양을 나타내는 특징, 부사어의 의미지향, 이중 부정의 측면에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유형별 보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보어의 양을 나타내는(表量) 특징, 종결성(完结性)의 특징, 과정이 포함된(또는 포함되지 않은) 완성의 특징, 무종점(无终点)동사와 무기점(无起点)동사의 특징 등이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유형별 수식어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수식어가 대조초점인 경우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没’의 주관적 감량기능과 양을 나타내는(表量) 수식어가 부정사의 부정초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식어의 ‘신정보 전제 원칙(principle of new information presupposition)’이 ‘没’의 부정초점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부정사 ‘没’의 부정범위와 부정초점 실현의 조건 및 영향 요인을 개괄적으로 종합하고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부사어, 보어, 수식어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제2장 부정사 ‘没’의 부정범위

부정범위는 ‘부정 영향권’이라고도 불리며, 부정사가 출현하는 부정 형식에서 부정범위는 부정사로 부정될 수 있는 가능한 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吕叔湘(1985), 徐杰·李英哲(1993), 沈家煊(1999), 袁毓林(2000), 胡建华(2007) 등의 주장에 따르면 부정범위는 일반적으로 부정사의 뒤에 출현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정사의 앞까지 확장될 수 있다. 즉, 부정사의 앞에 대조강세가 출현하거나 ‘连’, ‘就’, ‘对’, ‘是’ 등과 같은 성분이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의 앞에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에 부정사는 선행 성분도 부정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부정사 ‘没’의 분포적 특징이 부정범위에 미치는 영향과 의문사가 출현하는 부정문에서의 부정범위를 고찰할 것이며 문장의 의미 및 대조초점이 부정범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강조 성분이 부정사 ‘没’에 선행하는 경우 부정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1 부정범위의 재정립

2.1.1 중국어 부정사의 분포적 특징과 부정범위

沈家煊(1999)의 주장에 따르면 부정의 유형은 유표적 부정과 무표적 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표적 부정은 부정사와 피부정 성분 간의 어순이 자연언어에서의 논리적 표현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즉, 부정성분이 부정사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대중국어에서 부정사 ‘没’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후행 성분만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포적 측면에서 무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Quirk(1973:187)는 영어의 경우 부정범위는 일반적으로 부정사부터 문말 또는 최종 부사구의 시작까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는 주어와 부사어는 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a. I didn't definitely speak to him.
나는 그와 분명히는 말하지 않았어요.
b. I definitely didn't speak to him.
나는 분명히 그와 말하지 않았어요.
- (2) a. I didn't pretend to understand what he said.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한 척하지 않았어요.
b. I pretend not to understand what he said.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척해요.

(Randolph Quirk, 1973:188)

(1)과 (2)에서 부정범위는 부정사부터 문말까지의 모든 성분들을 포함한다. 즉, (1a)에서 ‘not’은 ‘definitely speak to him’을 부정함으로써 ‘나는 그에게 말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를 의미한다. (1b)에서 ‘not’은 ‘speak to him’을 부정함으로써 ‘나는 분명히 그에게 말한 적이 없다’를 의미한다. 동일한 맥락으로 (2a)와 (2b)는 각각 ‘아는 척하지 않다’와 ‘모르는 척하다’를 의미한다.

또한, Quirk(1973: 188)는 all, every 등과 같은 성분이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정사의 선행 성분까지도 부정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³⁾

- (3) a. All cats don't like Water. (All cats dislike water.)
모든 고양이는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b. ALL cats don't like WATER. (Not all cats like water.)
모든 고양이가 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Randolph Quirk, 1973:189)

위의 예문에서 ‘All cats don't like water’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3a)의 경우 문장의 강세가 ‘water’에 있기 때문에 ‘All cats dislike water’로 해석되지

3) Quirk(1973: 18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정범위 내에 반드시 부정초점을 포함해야 하지만, 사실상 부정범위가 모호한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초점의 출현 위치를 통해 부정범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만, (3b)의 경우에는 강세가 ‘all’에 있으므로 ‘Not all cats like water’로 해석된다.⁴⁾

그러나 중국어의 경우에는 부정사의 분포를 통해 중의성을 제거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4) a. 猫都不喜欢水。
 모든 고양이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b. 猫不都喜欢水。
 모든 고양이가 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4a)와 같이 ‘不’가 ‘都’의 뒤에 출현할 경우 ‘All cats dislike water’의 의미를 나타내고, (4b)와 같이 ‘不’가 ‘都’ 앞에 출현할 경우에는 ‘Not all cats like water’의 의미를 나타낸다.

沈家煊(1999: 73)도 중국어가 영어에 비해 어순적인 측면에서 무표적임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영어의 경우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는 ‘all’, ‘everything’ 등의 전칭양사(全称量词)가 부정사에 의해 부정될 수 있지만, 중국어의 경우에는 ‘都’나 ‘一切’가 일반적으로 부정사 ‘不’의 뒤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 (5) a. All is not gold that glitters.
 闪光的不都是金子。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니에요.
 b. Everything is not good in that country.
 那个国家不是一切都好。
 그 나라가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沈家煊, 1999:80)

따라서 중국어의 부정사는 영어에 비해 어순상 무표적 특징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어 부정사는 다른 언어에 비해 출현 위치가 유연하기 때문에 후행 성분만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국어의 부정사는 주어,

4) (3)에서 ‘ALL’는 대조강세를, ‘WATER’ 문말 강세를 의미한다.

술어, 부사어의 앞에 모두 출현할 수 있으며 보어나 수식어 성분 내에도 출현할 수 있다.

- (6) a. 不是命运成就了我, 是努力。(주어 앞에)
나를 만든 건 운명이 아니라 바로 노력이에요.
- b. 麦拉没理他, 只望着窗外出神。(동사 앞에)
매클라는 그를 외면하고, 창밖을 보며 멍때렸어요.
- c. 他从没明确地告诉我他的父母已经死了。(부사어 앞에)
그는 그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에게 명확하게는 알려 주지 않았어요.
- d. 外边虽然没再下雨, 但仍旧阴霾密布。(부사어 앞에)
밖에는 더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 e. 我用中文写信写得不好, 请别笑我。(보어 내에)
저는 중국어로 편지를 잘 쓰지 못하니 비웃지 마세요.
- f. 作业我写不完了。(보어 내에)
숙제를 저는 다 할 수 없어요.
- g. 说个没完。(보어 내에)
끝도 없이 말해요.
- h. 没说出的话是: 亏你问得出?!(수식어 내에)
말을 못한 것은 “네가 어쩜 그걸 물어볼 수 있니?”예요.
- i. 他的思绪很乱, 在没生火的房间里踱来踱去。(수식어 내에)
그는 머릿속 생각이 복잡해서, 불을 피우지 않은 방에서 이리저리 서성거렸어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중국어의 부정사는 다른 언어에 비해 출현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분포적 수단을 통해 후행하는 성분만을 부정함을 알 수 있었다.

2.1.2 의문사와 부정범위

刘探宙(2008)의 견해에 따르면 여러 개의 초점표지가 동시에 출현하는 문장

에서 의문사의 초점표지 기능은 다른 초점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 (7) a. 什么地方的破洞老王是用橡胶堵住的?
어디에 있는 구멍을 라오왕이 고무로 막았나요?
b. 都谁平常是走路上班?
누가 평소에 걸어서 출근해요?

(刘探宙, 2008:261-266)

(7a)에서 의문사 ‘什么地方’은 수식어 성분에 포함되지만, 문장의 초점으로 기능한다. (7b)의 경우에는 초점표지 ‘是’와 의문사 ‘谁’가 함께 출현하지만, 문장의 초점은 ‘谁’가 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초점표지가 동시에 출현하는 부정문의 경우 의문사가 초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코퍼스를 통해 추출한 예문이다.

- (8) a. “都上来了?”他高声喊道。“谁没上? 自己说!”对于自己的冷笑话, 他呵呵一笑权当自我捧场。(尼尔·嘉文:『坚持』)
“모두 탔어요?”라고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 안 탔어요? 말해보세요!” 그는 자신의 냉소적인 농담에 하하 웃으며 자아도취에 빠졌다.
b. 哪件衣服你没看中, 我去退了。
어떤 옷이 맘에 들지 않나요. 제가 환불하러 갈게요.
c. 想想看,你几个月没交房租啦?(老舍:『四世同堂』)
생각해 봐요, 당신은 몇 개월 동안 월세를 안 냈나요?

위의 (8)는 의문사가 부정문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예문을 통해 의문사 ‘谁’, ‘哪’, ‘几’가 초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方梅(1995)는 질문에서의 의문사 위치가 답변에서의 초점 유형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질문에서 의문사가 문두에 출현할 경우 답변에서 대조초점인 경향이 있으며, 질문에서 의문사가 문말에 출현할 경우에

는 답변에서 자연초점인 경향이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9) a. 王朔是谁? = 王朔是什么人?
왕쑤는 누구인가요? = 왕쑤는 어떤 사람이에요?
- b. 谁是王朔? = 哪个人是王朔?
누가 왕쑤인가요? = 어느 분이 왕쑤인가요?

(9a)의 ‘王朔是谁?’는 ‘王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경우 사용하는 질문으로, 이러한 경우에 의문사 ‘谁’는 자연초점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9b)의 ‘谁是王朔?’는 ‘王朔’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누가 왕쑤인지 알 수 없을 경우 사용하는 질문으로, 이 경우에는 의문사 ‘谁’가 대조초점으로 기능한다.

吕叔湘(1985), 沈家煊(1999), 袁毓林(2000) 등은 부정사의 앞에 대조강세 혹은 대조초점이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가 부정하는 것은 선행하는 대조성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대조초점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의문사는 후행하는 부정사에 의해 부정될 수 없다고 본다. 아래 예문을 보자.

- (10) a. 谁没上车? 누가 (차) 안 타셨어요?
a'. 没上车的是哪位?(차) 안 타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a''. *上(车)的不是哪位?
- b. 哪件衣服你没看中? 어떤 옷이 당신은 맘에 들지 않아요?
b'. 你没看中的是哪件衣服? 맘에 들지 않는 게 어느 옷이에요?
b''. *你看中的不是哪件衣服?

(10a)에서 ‘谁没上车?’는 (10a)‘没上车的是哪位?’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10a)‘上车的不是哪位?’로 해석될 수 없다. (10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哪件衣服你没看中?’은 (10b)‘你没看中的是哪件衣服?’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10b)‘你看中的不是哪件衣服?’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예문들을 통해 의문사 ‘谁’와 ‘哪’는 부정사로 부정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 (11)은 의문사가 문두 위치가 아닌 곳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도 (10)과 마찬가지로

로 ‘几’는 부정사로 직접 부정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1) 你几个月没交房租啦? ≠ *你交房租没几个月啦?

당신은 몇개월 동안 월세를 안 냈어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의문사는 초점의 자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의문사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부정사를 포함한 그 외의 성분들은 모두 문장의 전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문사가 출현하는 부정문의 경우 부정사는 전제의 일부로서 초점인 의문사를 직접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1.3 부정대상이 문장 의미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대조강세나 강한 초점표지가 부정사의 앞에 출현할 경우 부정사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부정범위는 특정 조건하에서 부정사의 앞까지 확장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12) 是老王没来。

라오왕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2)에서 ‘老王’은 초점표지 ‘是’로 강조되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된다. 특히, 徐杰·李英哲(1993)는 부정사가 ‘是’ 초점구문에 출현할 경우 부정초점은 반드시 ‘是’가 강조하는 초점성분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2)에서 부정사 ‘没’는 동사 ‘来’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위치한 초점성분 ‘老王’을 부정하므로, 문장의 의미는 ‘很多人都来了, 但老王没来’로 해석된다.

袁毓林(2000)은 徐杰·李英哲(1993)의 주장에 대해 ‘没’가 부정하는 것이 ‘来’가 아니라면 ‘是老王没来’를 ‘很多人都来了, 但老王没来’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是老王没来’에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来’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袁毓林(2000)의 주장에 따르면 초점표지 ‘是’는 대조초점표지로서 ‘是’에 후행하는 ‘老王’과 ‘很多人’ 혹은 ‘其他人’을 대조시키기 때문에 ‘是老王没来’는 ‘很多人都来了’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는 이러한 함축적 의미를 사용하여 ‘是老王没来’에서 ‘来’가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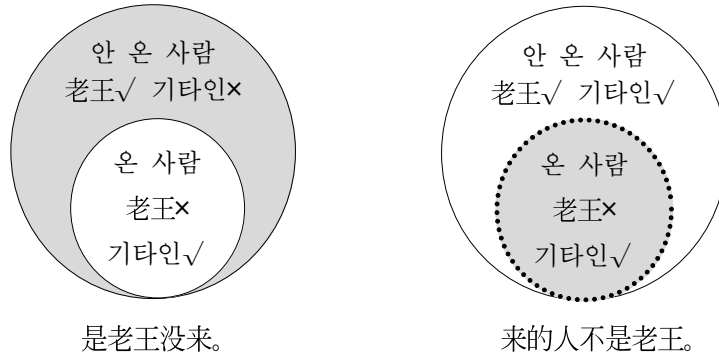
본고도 ‘很多人都来了, 但老王没来’에서 부정사 ‘没’가 부정하는 것은 ‘老王’이 아니라, 동사 ‘来’라고 본다. 부정사 ‘没’가 부정하는 것이 동사 ‘来’가 아니라, 그 앞에 출현하는 ‘老王’이라고 본다면 ‘是老王没来’를 ‘很多人都来了, 但老王没来’로 해석할 수 없으며 ‘来的人不是老王’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원래의 ‘是老王没来’와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부정사 ‘没’가 선행 성분을 부정한다고 볼 경우 대안 집합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조초점은 총망라성(exhaustiveness)과 배타성(exclusiveness)의 자질을 갖는다.⁵⁾ 아래 예문을 보자.

- (13) a. 是老王没来。
라오왕은 오지 않았어요.
b. 来的人不是老王。
온 사람은 라오왕이 아니에요.

(13a)와 (13b)의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5) 徐烈炯·潘海华(2005: 20)에 따르면 대조초점의 총망라성(exhaustiveness)과 배타성(exclusiveness)은 다음의 예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a)는 의미적으로 (a')를 함축할 수 있지만, (b)는 (b')를 함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b')에서 ‘老张’이 총망라성과 배타성을 가진 대조초점이기 때문에 ‘老张’은 ‘老李’를 해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 a. 老张和老王设计陷害了老李。a'. 老张设计陷害了老李。
b. 是老张和老王设计陷害了老李。b'. 是老张设计陷害了老李。



[그림2-1] ‘是老王没来’와 ‘来的人不是老王’의 도식

(13a)의 ‘是老王没来’는 ‘老王’ 이 강세를 가진 대조초점이기 때문에 ‘老王’이 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3b)의 ‘来的人不是老王’은 ‘老王’이 비-배타적이기 때문에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老王没来’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3a)와 (13b)는 대안 집합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14)~(17)에서 (a)그룹과 (b)그룹은 모두 부정사 ‘没’가 술어를 부정하고 문장의 초점성분도 일치하기 때문에, (a)그룹을 (b)그룹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a)그룹을 (c)그룹으로 대체할 경우 부정사 ‘没’가 후행 성분이 아닌 선행하는 대조초점을 부정하게 되므로, 비문이 된다.

- (14) a. 是老王没来, 你怎么责怪其他人呢?
 라오왕이 오지 않은 건데, 당신 어찌 다른 사람 탓을 해요?
 b. 没来的人是老王, 你怎么责怪其他人呢?
 안온 사람은 라오왕인데, 당신 어찌 다른 사람 탓을 해요?
 c. *来的人不是老王, 你怎么责怪其他人呢?
- (15) a. 是王局长没同意你的提议, 你去找他谈谈吧!
 왕국장은 당신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그를 찾아가서 말씀해보세요!
 b. 没同意你的提议的是王局长, 你去找他谈谈吧!
 당신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은 왕국장이니, 당신이 그를 찾아가서 말씀해보세요!

- c. *同意你的提议的不是王局长, 你去找王局长谈谈吧!
- (16) a. 是这本书我还没读完, 其他书可以还回去了。
이 책은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다른 책들은 반납해도 괜찮아요.
b. 我没读完的是这本书, 其他书可以还回去了。
제가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은 이 책이고, 다른 책들은 반납해도 괜찮아요.
c. *我读完的不是这本书, 其他书可以还回去了。
- (17) a. 是你没弄清楚状况, 我一直都很清醒。
당신은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저는 계속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b. 没弄清楚状况的是你, 我一直都很清醒。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건 당신이지, 저는 계속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c. *弄清楚状况的不是你, 我一直都很清醒。

사실상 袁毓林(2000)도 부정사의 앞에 강조성분과 대조초점이 출현하는 경우 부정 형식 자체가 문장의 전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부정문에서 문장의 초점과 부정초점은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4a)의 ‘是老王没来’가 (14b)의 ‘没来的人是老王’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14c)의 ‘来的人不是老王’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是老王没来’가 ‘没来的人是谁’를 의미하고, ‘来的人不是谁’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정사의 앞에 강조성분과 대조초점이 출현하는 경우 부정 형식 자체가 문장의 전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부정문에서 문장의 초점과 부정초점은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사 ‘没’는 동사 ‘来’를 부정하고 동사 ‘来’와 함께 전제인 ‘某人没来’를 구성하므로 대조초점 ‘老王’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맥락으로 (15a), (16a), (17a)는 (15c)의 ‘同意你提议的不是某人’, (16c)의 ‘我读完的不是某本书’, (17c)의 ‘弄清楚情况的不是某人’를 의미하지 않으며, (15b)의 ‘某人没同意你的提议’, (16b)의 ‘我没读完的是某本书’, (17b)의 ‘某人没弄清楚情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부정사는 의미적으로 후행하는 성분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의 부정사는 선행 성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1.4 부정사 ‘没’와 문장의 전제

본 절에서는 ‘(是)老王没来’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표2-1]과 같이 초점표지 ‘是’가 출현하는 의문문과 초점표지 ‘是’가 없는 의문문에 대해 긍정과 부정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부정문에서 부정사 ‘没’는 문장의 전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후행하는 성분만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표2-1] ‘(是)老王没来’의 사용 양상

초점표지 ‘是’가 없는 의문문		초점표지 ‘是’가 있는 의문문	
긍정 의문문	부정 의문문	긍정 의문문	부정 의문문
1A 人到齐了吗?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1B 人没到齐吗?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	—
2A 谁来了?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2B 谁没来?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2C 是谁来了?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2D 是谁没来?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3A 老王来了吗?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3B 老王没来吗?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3C 是老王来了吗?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3D 是老王没来吗?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4A 老王来了吧?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4B 老王没来吧?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4C 是老王来了吧?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4D 是老王没来吧?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5A 小李来了吗?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5B 小李没来吗?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5C 是小李来了吗?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5D 是小李没来吗?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6A 小李来了吧?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6B 小李没来吧?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6C 是小李来了吧?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6D 是小李没来吧? *老王来了。 老王没来。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우선, 徐杰·李英哲(1993)에 따르면 부정문에 초점표지 ‘是’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는 반드시 ‘是’가 강조하는 초점성분을 부정한다. 즉 ‘是老王没来’에서 부정사 ‘没’는 ‘来’를 부정하지 않고 선행하는 초점 성분 ‘老王’을 부정함으로써 ‘很多人都来了, 但老王没来’를 의미한다. 이러한 설명이 성립하려면 ‘很多人都来了, 但老王没来’와 ‘是老王没来’는 동일한 의미로서 질문 (1A) ‘人到齐了吗?’와 (1B) ‘人没到齐吗?’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경우 수용성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

1A. 人到齐了吗? 모두 다 왔나요? 1B. 人没到齐吗? 모두 다 온 거 아닌가요?	}	→ 老王没来。 라오왕이 안 왔어요. → *是老王没来。
---------------------------------------------------------	---	-------------------------------------

본고는 이러한 의미적 차이는 두 문장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즉, 질문 ‘人到齐了吗?’와 ‘人没到齐吗?’의 전제는 ‘人齐了/人没齐’로서 누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며 사람들이 왔는지의 여부만 확인한다. 반면, ‘是老王没来’의 전제는 ‘某个人没来’로서 누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부정사 ‘没’는 전제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是老王没来’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是老王没来’에 상응하는 의문문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是老王没来’의 ‘老王’은 대조초점이기 때문에 (2B)와 같이 문두에 대조의미의 의문사가 있거나, (2~6D)와 같이 의문문에 초점표지 ‘是’가 있거나, (5B), (6B)와 같이 대조대상 ‘小李’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是老王没来’는 부정사 ‘没’가 출현하는 부정 의문문의 대답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B. [谁]没来?	누구 오지 않았지?	} 是老王没来。 } 라오왕은 오지 았다.
2D. [是谁]没来?	누구 오지 않았지?	
3D. [是老王]没来吗?	라오왕은 오지 않았지?	
4D. [是老王]没来吧?	라오왕은 오지 았았죠?	
5D. [是小李]没来吗?	샤오리는 오지 았았지?	
6D. [是小李]没来吧?	샤오리는 오지 았았죠?	
5B. [小李]没来吗?	샤오리는 오지 았았지?	
6B. [小李]没来吧?	샤오리는 오지 았았죠?	

이 경우에 부정사 ‘没’는 대조초점 ‘老王’보다 의미적으로 먼저 출현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정사 ‘没’는 전제의 일부로서 후행하는 동사 ‘来’를 부정함으로써 전제 ‘哪个人没来’를 구성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대조초점 ‘哪个人’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是)老王来了’와 ‘(是)老王没来’의 사용 양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도 앞에서 언급한 추론을 증명할 수 있다. 의문문에 초점표지 ‘是’가 포함된 예문인 그룹 (C)와 (D)에서 ‘是老王来了’와 ‘是老王没来’의 사용 양상을 비교해보면, 긍정 형식의 의문문은 긍정 형식인 ‘是老王来了’로만 대답할 수 있으며, 부정 형식의 의문문은 부정 형식인 ‘是老王没来’로만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초점표지 ‘是’가 없는 예문인 (3A), (4A)와 (3B), (4B)에서는 모두 ‘老王来了’와 ‘老王没来’로 대답할 수 있다.

2C. [是谁]来了?	누구 왔지?	} 是老王来了。 } 라오왕은 았다. } *是老王没来.
3C. [是老王]来了吗?	라오왕은 았지?	
4C. [是老王]来了吧?	라오왕은 았았죠?	
5C. [是小李]来了吗?	샤오리는 았지?	
6C. [是小李]来了吧?	샤오리는 았았죠?	

2D. [是谁]没来?	누구 오지 않았지?	}	*是老王来了. 是老王没来. 라오왕은 오지 않았다.
3D. [是老王]没来吗?	라오왕은 오지 않았지?		
4D. [是老王]没来吧?	라오왕은 오지 않았죠?		
5D. [是小李]没来吗?	샤오리는 오지 않았지?		
6D. [是小李]没来吧?	샤오리는 오지 않았죠?		
3A. 老王来了吗?	라오왕은 왔지?	}	老王来了. 라오왕은 왔다. 老王没来. 라오왕은 오지 않았다.
4A. 老王来了吧?	라오왕은 왔죠?		
3B. 老王没来吗?	라오왕은 오지 않았지?		
4B. 老王没来吧?	라오왕은 오지 않았죠?		

그 이유는 판단 의문문 (3A), (4A)와 (3B), (4B)가 서술어 초점 구조으로써 ‘老王’의 ‘来了’ 혹은 ‘没来’의 여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老王来了’ 혹은 ‘老王没来’로 모두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룹 (C), (D)는 문장의 초점이 술어의 앞에 위치한 ‘是’로 강조된 대조초점이기 때문에 ‘来的人是谁?’와 ‘没来的人是谁?’를 강조한다. 따라서 긍정 형식의 의문문은 ‘来的人是谁?’를 강조하므로 긍정 형식인 ‘是老王来了’로만 대답할 수 있으며, 부정 형식의 의문문은 ‘没来的人是谁?’를 강조하므로 부정 형식인 ‘是老王没来’로만 대답할 수 있다.

여기서 부정사 ‘没’는 ‘没+VP’ 형식으로 문장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부정 형식도 문장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사는 그 뒤에 출현하는 성분과 함께 문장의 전제를 구성하며 부정사의 앞에 위치한 대조초점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기능이 있다. 즉, 부정사 ‘没’는 전제의 일부로서 그 앞에 위치한 대조초점을 부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그룹 (C)는 모두 문두에 대조초점 표지 ‘是’가 있는 긍정 형식의 의문문이다. 그룹 (C)의 의문문은 모두 대조초점을 가진 부정 형식인 ‘是老王没来’로 대답할 수 없다.

- | | | | |
|---------------|----------|---|---------|
| 2C. [是谁]来了? | 누구 왔지? | } | *是老王没来. |
| 3C. [是老王]来了吗? | 라오왕은 왔지? | | |
| 4C. [是老王]来了吧? | 라오왕은 왔죠? | | |
| 5C. [是小李]来了吗? | 샤오리는 왔지? | | |
| 6C. [是小李]来了吧? | 샤오리는 왔죠? | | |

그 이유는 그룹 (C)의 의문문이 모두 ‘是哪个人来了’를 강조하기 때문에, 상응하는 대답으로 ‘是某个人来了’ 혹은 ‘不是某个人来了’만 올 수 있으며, ‘是某人没来’는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8) a. 是老王来了吗?
 라오왕이 왔나요?
 b. 是老王来了.
 라오왕이 왔어요.
 b'. 不是老王来了.
 라오왕이 온 게 아니에요.
 b''. *是老王没来.
 *라오왕이 오지 않았어요.

(18)에서 ‘是老王来了吗?’는 온 사람이 ‘老王’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지,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b)‘是老王来了’ 혹은 (18b’)‘不是老王来了’로만 대답할 수 있으며, (18b'')‘是老王没来’로는 대답할 수 없다. 따라서 그룹 (C)에서 부정사가 술어의 앞에 위치한 대조초점을 부정하려면 대조초점의 앞에 출현해야 한다.

2.2 부정사에 선행하는 강조 성분

앞 절에서는 부정사 ‘没’의 어순적 특징이 부정범위에 미치는 영향, 의문사가 출현하는 부정문에서의 부정범위, 문장의 의미 및 대조초점이 부정범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정범위가 부정사의 뒤에만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대조강세가 있는 성분, ‘是’, ‘连’으로 강조되는 성분 및 ‘就’, ‘只’ 등의 배타적 양화사(唯量词)⁶⁾로 한정된 성분이 부정사 ‘没’의 앞에 출현할 경우 이러한 성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성분들이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지 않을 경우 부정사 ‘没’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세 번째는 부정범위가 부정사 앞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다.

앞서 1장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부정범위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였다. 기존의 견해들을 요약하자면, 부정범위가 부정사의 앞까지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부정사의 앞에 대조강세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부정사의 앞에 ‘连’, ‘就’, ‘对’, ‘是’로 강조된 성분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중 ‘对’에 후행하는 성분에는 강세가 없고, 배경을 설명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본문의 연구대상이 아니다.⁷⁾ 기타 강조 성분의 기능 및 ‘没+VP’와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2-2] 문두 강조 성분의 기능과 ‘没+VP’ 사이의 관계

형식	의미기능	‘没+VP’ 의미기능	예문
대조강세	대조초점	전제	• 老王没来。
‘是’	대조초점	전제	• 是老王没来。 • 是这本书我没读。
배타적 양화사	대조초점	전제	• 今天就老王没来。 • 唯独你没懂。
‘连’	대조화제	서술어 초점	• 他到巴黎去了, 连警察局都没发现她的踪迹。 • 什么地方他都没去过。
	문장 초점 ‘连’ 뒤에 위치한 성분이 대조의미와 극성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 一辈子因为太喜欢猫了, 连老婆都没娶。
	문장 초점 ‘连’ 뒤에 위치한 성분이 대조의미와 극성의미를 나타낸다.		• 连班长都没来, (这次演出一定特无聊。) • (连)一句话都没说就走了。

6) 배타적 양화사(唯量词)의 개념은 1.2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7) ‘他对这个项目没兴趣’에서 ‘没兴趣’는 서술어 초점 성분이며 전제는 ‘他对这个项目有某种看法’이다.

2.2.1 문두 대조초점과 부정범위

袁毓林(2000: 103)에 따르면 초점 성분이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려면 일반적으로 유표적인 형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유표적 형식에는 강세, 초점표지 ‘是’ 혹은 배타적 양화사가 있다.

앞서 2.1에서 부정사 ‘没’의 앞에 ‘是’로 강조된 대조초점이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 ‘没’는 전제의 일부이며 선행하는 대조초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의미적 및 화용적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대조강세와 배타적 양화사의 경우도 동일한 맥락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9) a. 谁没来?/(是)小李没来吗?
누구 오지 않았나요? /샤오리가 오지 않았나요?(샤오리가 안 온 거지?)
- b. 是老王没来。
라오왕이 오지 않았어요.
- b'. [老王]没来。
[라오왕]은 오지 않았어요.
- b''. 就老王没来。
라오왕만 오지 않았어요.

(19b), (19b'), (19'')는 모두 질문 ‘谁没来?/(是)小李没来吗?’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문에서 ‘老王’은 각각 초점표지 ‘是’, 대조강세, 배타적 양화사로 강조된 대조초점이며 문장의 전제는 모두 ‘某个人没来’이다. 그중 배타적 양화사 ‘就’는 강조하는 성분에 더 높은 정도의 유일성 의미를 부가하지만, (19b), (19b'), (19'')에서 부정사 ‘没’는 공통적으로 그 뒤에 위치한 ‘来’만을 부정한다. 따라서 강세, 초점표지 ‘是’, 배타적 양화사는 부정사 ‘没’의 앞에 출현할 경우 대조초점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 경우에 ‘没+VP’가 문장의 전제이기 때문에 부정사 ‘没’는 전제의 일부로서 선행하는 대조초점을 부정할 수 없다.

胡建华(2007)의 견해에 따르면 유표적 부정문에서 동사는 종속성분(从属成分)을 한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부정사의 앞에 출

현하는 경우 부정사에 의해 부정된다. 그러나 본고는 동사의 목적어는 강세나 ‘是’, ‘就’ 등과 같은 성분의 부가로 인해 대조초점이 될 수는 있지만, 부정사 ‘没’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 ‘没’에 위해서 부정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20a)와 (21a)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20) a. 是这本书我没看。 이 책은 제가 안 봤어요.
b. 我没看的是这本书。 제가 안 본 것은 이 책이에요.
c. 我没看这本书。 저는 이 책을 안 봤어요.
- (21) a. 就这本书我没看。 이 책만 제가 안 봤어요.
b. 我没看的只是这本书。 제가 안 본 것은 이 책뿐이에요.
c. 我没看这本书。 저는 이 책을 안 봤어요.

(20b)의 ‘我没看的是这本书’에서 ‘是’로 강조된 ‘这本书’는 대조초점이며, (20c)의 ‘我没看这本书’는 서술어 초점 구조로서 ‘没看这本书’가 초점으로 기능한다. (20a)의 ‘是这本书我没看’의 의미는 (20b)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这本书’가 대조초점으로서 배타성과 총망라성(穷尽性, exhaustiveness)을 갖기 때문에 (20a)처럼 ‘이 책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이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20a)는 의미적으로 그룹 (20c)로 해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20c)의 ‘没看这本书’가 서술어 초점으로서 ‘这本书’에 배타성과 총망라성(穷尽性, exhaustiveness)이 없기 때문에 화자가 다른 책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1)의 경우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답과 휴지사를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대조초점 구조인 ‘我没看的是这本书’와 서술어 초점 구조인 ‘我没看这本书’의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 (22) a. 你没看哪本书?
당신은 어떤 책을 안 봤어요?
b. 我没看的是这本书。
제가 안 본 것은 이 책이에요. =(20b)
c. 我没看的只是这本书。
제가 안 본 것은 이 책뿐이에요. =(21b)

- d. 我没看的啊, (只)是这本书。
 제가 안 본 건 말이에요, 이 책(뿐)이에요.

- (23) a. 你看这本书了吗?
 당신은 이 책을 봤어요?
 b. 我没看这本书。
 저는 이 책을 안 봤어요.
 c. 我啊, 没看这本书。
 저 말이에요, 이 책을 안 봤어요.

(22b)의 ‘我没看的是这本书’, (22c)의 ‘我没看的只是这本书’는 의문사가 출현하는 의문문 ‘你没看哪本书?’에 대한 대답이다. 여기서 부정사 ‘没’는 전제의 일부가 된다. (23b)의 ‘我没看这本书’는 판단 의문문 ‘你看这本书了吗?’에 대한 대답이다. 여기서 부정사 ‘没’는 ‘看这本书’를 부정하며, 서술어 초점의 일부이다. 또한, ‘啊’는 일종의 화제표지이다. (22b)의 ‘我没看的是这本书’, (22c)의 ‘我没看的只是这本书’에는 (22d)의 ‘我没看的啊, (只)是这本书’처럼 휴지를 둘 수 있으며, (23b)의 ‘我没看这本书’에는 (23c)의 ‘我啊, 没看这本书’처럼 휴지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22b), (22c)의 부정사 ‘没’와 ‘这本书’ 사이에는 필연적인 제약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본고는 부정사가 선행 성분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잘못된 견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我没看的是这本书’와 ‘我没看这本书’의 의미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0a)의 ‘是这本书我没看’은 (20b)의 ‘我没看的是这本书’로만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0b)의 ‘没看’이 전제 혹은 화제의 일부로서 문장의 배경 및 구정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这本书’는 신정보로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20a)의 ‘是这本书我没看’은 (21b)의 ‘我没看的是这本书’와 동일한 의미적 특징이 있으므로 부정사 ‘没’가 그 앞에 위치한 대조초점 ‘这本书’를 부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요약하면 부정사 ‘没’의 앞에서 강세나 초점표지 ‘是’, 배타적 양화사로 강조되는 성분들은 모두 대조초점이며 이러한 경우에 부정사 ‘没’는 후행하는 술어 성분과 함께 문장의 전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2.2 ‘连’자문의 부정범위

袁毓林(2000), 沈家煊(1999)은 ‘连’, ‘就’, ‘对’, ‘是’로 강조된 성분이 부정사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에 의해서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连’자문에 대해서는 Paris(1979), 徐杰·李英哲(1993), 张伯江·方梅(1996), 刘丹青·徐烈炯(1998), 徐烈炯(1998), 周士宏(2016) 등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 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连’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며 ‘连’에 후행하는 성분은 극성비교 성분이다. 그러나 ‘连’에 후행하는 성분이 대조화제인지, 대조초점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인다.

앞서 2.2.1에서 문두에 대조초점이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 ‘没’가 여전히 그 뒤의 성분만을 부정함을 증명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连’자문에서 ‘连’이 강조하는 성분의 의미적 역할과 부정사 ‘没’와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徐杰·李英哲(1993)에 따르면 ‘连’자문에서 ‘连’은 초점표지는 아니지만, 초점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의문문에서 의문의 중심과 문장의 초점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24a)의 질문에 대한 부정 답변으로는 (24b')가 쓰일 수 없다.

- (24) a. 你连小刘都不认识?
당신은 샤오류 조차 몰라요?
- b. 不, 我连小王都不认识。
아니요, 저는 샤오왕 조차도 몰라요.
- b'. ?不, 我连小刘都不认识。
아니요, 저는 샤오류 조차 몰라요.

(徐杰·李英哲, 1993:86)

刘丹青·徐烈炯(1998)은 徐杰·李英哲(1993)와 달리, ‘连’의 후행 성분은 초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5) a. 你连小刘都不认识? 당신은 샤오류조차 몰라요?
- b. 不, 我认识小刘。아니요, 저는 샤오류를 알아요.

- b'. 不, 小刘我认识. 아니요, 샤오류를 저는 알아요.
 b''. 不, 我认识. 아니요, 저는 알아요.
 b'''. 不, 认识. 아니요, 알아요.

(刘丹青·徐烈炯, 1998:244)

刘丹青·徐烈炯(1998)는 徐杰·李英哲(1993)에서 제시한 (24)에 대해 어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질문 (24a)의 부정 답변으로 (24b), (24b')가 올 경우 모두 동문서답이 되기 때문에 질문 (25a)의 부정 답변으로는 (25b), (25b'), (25b''), (25b''')가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단 의문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할 경우에는 의문문에 의문 초점이 존재할 때 이 초점을 교정하면서 대답해야 한다. (25)에서 (25b), (25b'), (25b''), (25b''')가 모두 ‘连’의 뒤에 출현하는 ‘小刘’를 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刘丹青·徐烈炯(1998)은 ‘小刘’의 초점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刘丹青·徐烈炯(1998)은 초점을 자연초점[+강조][-대조], 대조초점[+강조][+대조], 화제초점[-강조][+대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连’의 뒤에 출현하는 성분은 화제초점이다. 즉, ‘连’은 그 뒤에 출현하는 성분인 화제초점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连’자의 이러한 강조 기능은 ‘连’자문의 특유한 예측 및 추론 기능에 기인하며, ‘连……都/也’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또한, 张伯江·方梅(1996)에 따르면 ‘连’은 초점표지이며, 극성 대조화제를 표시한다. 즉 刘丹青·徐烈炯(1998), 张伯江·方梅(1996)는 초점과 화제의 개념을 혼용하였지만, 모두 ‘连’의 뒤에 출현하는 성분이 대조화제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周士宏(2016)은 초점과 화제의 개념을 혼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문장에서 강세가 오는 부분이 초점 성분일 뿐만 아니라 대조화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본문은 ‘连’의 뒤에 출현하는 성분이 대조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아래의 네 가지 측면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첫째, 刘丹青(2015)은 ‘啊’, ‘么’, ‘呢’, ‘吧’ 등 휴지사가 화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으며, 중국어에서 화제를 표시하기 위해 화제의 뒤에 휴지사를 부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连’에 후행하는 성분의 경우 뒤에 이러한 휴지사를 부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화제가 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6) a. (连)红酒啊, 阿Q都没喝过。
레드와인조차 아Q는 마셔본 적 없어요.
b. 这次聚会, (连)班长啊, 都没来。
이번 모임은 반장마저도 오지 않았어요.
c. 要结婚了, 可是(连)房子啊, 他们都没买。
결혼해야 하는데, 집조차도 그들은 아직 사지 않았어요.

(26a), (26b), (26c)에서 ‘连’에 후행하는 성분 ‘红酒’, ‘班长’, ‘房子’는 모두 뒤에 휴지사 ‘啊’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화제가 될 수 있다.

둘째, 周士宏(2016)은 대조초점이 있는 문장에서 대조초점 외의 모든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7) a. 你吃过羊肉吗?
당신은 양고기를 먹어봤어요?
b. 我(连)鸵鸟肉都吃过。
저는 타조고기조차도 먹어봤어요.
b'. (连)鸵鸟肉我都吃过。
타조고기조차도 저는 먹어봤어요.
b''. *我(连)鸵鸟肉。
*저는 타조고기조차.
b'''. 我吃过。
저는 먹어봤어요.

(27b) ‘我(连)鸵鸟肉都吃过’는 (27b'')처럼 ‘吃过’를 생략할 수 없지만, (27b''')처럼 ‘(连)鸵鸟肉’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된 문장 ‘我吃过’는 (27b)의 ‘我(连)鸵鸟肉都吃过’와 비교했을 때 대조의미의 강도는 상이하지만 진리치는 동일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连’이 강조하는 성분은 대조초점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连’자문과 아래의 (28)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 (28) 我面包没吃, 饼干吃了。
저는 빵은 안 먹었어요. 쿠키는 먹었어요.

(28)의 ‘面包’는 ‘吃’의 목적어로 주어 뒤에 위치하며, 유표적인 대조초점 성분으로서 총망라성과 배타성이 있다. 그러나 (27b)의 ‘鸵鸟肉’는 (28)의 ‘面包’와 동일한 위치에 출현하지만 ‘连……都/也……’ 구문의 특수 의미 영향으로 총망라성과 배타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连’에 후행하는 성분은 대조초점이 될 수 없다.

셋째, Paris(1979)도 ‘连’은 초점표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连’의 후행 성분은 뒤에서 대명사로 대체할 수 있지만, 대조초점은 뒤에서 대명사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9) a. 连小孩子张三也要欺负他。
어린애까지도 장싼은 그를 괴롭히려 해요.
b. 连李四我都把他打败了。
리쓰 조차도 저는 그를 이겼어요.

(Paris, 1979:54)

(29a), (29b)을 보면 ‘连’에 후행하는 성분 ‘小孩子’, ‘李四’는 모두 뒤에서 대명사 ‘他’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조초점이 아니다.

넷째, 刘丹青(2015)에 따르면 의문사인 주어 혹은 의문사에 대한 대답은 초점이다. 徐杰·李英哲(1993)도 의문문의 의문의 중심과 문장의 초점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30b)에서 ‘连班长’은 의문사 ‘谁’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문장의 대조초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 (30) a. 谁没来上课?
누가 수업에 오지 않았어요?
b. 连班长都没来。
반장 조차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조초점은 총망라성(exhaustiveness)과 배타성(exclusiveness)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31a)는 (31b)를 함축할 수 있지만, (32a)는 (32b)를 함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32b)의 ‘老张’은

총망라성(exhaustiveness)과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라오리를 해친 사람은 라오장밖에 없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31) a. 老张和老王设计陷害了老李。
라오장과 라오왕은 라오리를 모함하려고 했어요.
b. 老张设计陷害了老李。
라오장은 라오리를 모함하려고 했어요.
- (32) a. 是老张和老王设计陷害了老李。
라오장과 라오왕이 라오리를 모함하려고 했어요.
b. *是老张设计陷害了老李。
*라오장이 라오리를 모함하려고 했어요.

(30a)를 보면 만약 ‘班长’이 대조초점이라면 총망라성(exhaustiveness)과 배타성(exclusiveness)의 영향으로 수업에 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어야 하며, (33b')처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와야 한다. 그러나 ‘班长’은 ‘连’에 후행하는 경우 총망라성(exhaustiveness)과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조되지 않으며 (33b'')처럼 점진관계와 보충관계를 형성한다.

- (33) a. 谁没来上课?
누가 수업에 오지 않았어요?
b. (是)班长没来, 其他人都来了。
반장이 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왔어요.
b'. *连班长都没来, 其他人都来了。
b''. 连班长都没来, 其他人更没来了。
반장조차도 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더욱 안 왔지요.

이상의 견해들은 모두 ‘连’의 후행 성분이 대조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정사 ‘没’가 선행하는 ‘连’자에 의해 강조된 대조초점을 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본고는 ‘连’자문을 정보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분하였다. 하나는 ‘连’에

의해 강조된 성분이 문장의 대조화제로 기능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连……都/也……’ 구문이 문장 초점 구조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우선, ‘连’에 의해 강조된 성분이 문장의 대조화제인 경우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유형에서 ‘连’에 의해 강조되는 성분에는 대조의미와 극성의미가 없으며, 새로운 화제를 나타내고 ‘ 심지어(甚至)’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강조된 성분은 주로 ‘都/也’의 뒤에 출현하는 술어 성분이며, 부정사 ‘没’는 서술어 초점의 일부로서 술어 성분만을 부정하고 ‘连’에 의해 강조되는 화제는 부정하지 않는다. (34a), (34b)에서 부정사 ‘没’는 각각 술어 ‘想到’, ‘发现她的踪迹’를 부정하며 ‘连’이 강조하는 ‘姑姑’, ‘警察局’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 (34) a. 连姑姑也没想到, 只怕谁也没想到这娱乐城的生意会这么好。(张平, 『抉择』)
고모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마 누구도 유원지 장사가 이렇게 잘 될 줄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 b. 一般人也都以为她待在那里, 不料她却到巴黎来住了五天, 连警察局都没发现她的踪迹。(大仲马, 『三个火枪手』)
보통 사람들조차도 그녀가 거기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파리에 와서 5일간 머무를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경찰서조차도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본고는 ‘连……都/也……’ 구문이 문장 초점 구조인 경우를 두 가지로 세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连’에 후행하는 성분에 대조의미와 극성의미가 없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连’에 후행하는 성분이 화제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 심지어(甚至)’의 의미를 나타내며, 문장 초점으로서 ‘무슨 일이야?(what happened?)’에 주안점을 둔다. 아래 예문을 보자.

- (35) a. 这个老人最大的癖好也是养猫, 一辈子就是因为太喜欢猫了, 连老婆都没娶。(张炜, 『你在高原』)
이 노인은 제일 큰 취미가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어서, 평생 고양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내마저도 못 구했어요.
- b. 你竟然连你前女友都没认出来?
당신은 어쩐 전 여자친구조차도 못 알아보아요?

(35a)와 (35b)에서 ‘连’에 후행하는 ‘老婆’, ‘你前女友’에는 대조의미와 극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각 사건 ‘老婆都没娶’, ‘连你前女友都没认出来’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连……都/也……’ 구문이 문장 초점 구조로서, ‘连’의 후행 성분이 비교와 극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런 유형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극성부정을 통해서 암시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 예문을 보자.

- (36) a. 连班长都没来, (其他人更没来了。)
반장마저 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b. 连班长都没来, (这次演出一定特别无聊。)
반장마저 오지 않았어요. (이번 공연은 분명히 매우 지루할 것이에요.)
c. (连)一句话都没说就走了。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36a), (36b)에서 ‘连班长都没来’는 ‘班长’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문장의 의미는 ‘来的人少’를 암시한다. 또한, (36c)에서 ‘(连)一句话都没说’는 ‘一句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문장의 의미는 실망, 분노, 불만 등 화자의 감정을 암시한다. 이런 유형의 경우 ‘连’의 후행 성분은 화자가 실제로 논의하려는 대상이 아니며, ‘连……都/也……’ 구문을 통해서 특정한 가정 혹은 추론을 암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连……都/也……’ 구문을 포함한 문장 전체가 문장 초점 구조이기 때문에 부정사 ‘没’의 앞에는 대조초점과 같은 전제 조건이 존재할 수 없으며, 부정사 ‘没’가 존재하지도 않는 대조초점을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요약하면 부정사의 앞에 출현하는 대조 성분과 ‘是’, ‘就’, 배타적 양화사(唯量词) 등으로 강조되는 성분은 부정사 ‘没’ 앞에 위치한 경우 대조초점이며, 이 경우 ‘没+ VP’는 문장의 전제로 인식된다. ‘连’자문은 ‘连’에 후행하는 성분이 문장의 대조화제인 경우도 있고, ‘连……都/也……’ 구문 자체가 문장 초점구조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사 ‘没’는 그 앞에 위치한 성분의 의미 기능에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그 앞에 위치한 성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부정범위가 부정사의 앞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잘못된 견해는 ‘没+VP’가 문장의 전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초점 성분이 부정사 ‘没’의 앞에 출현하거나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인 경우 ‘没+VP’는 문장의 전제로서 대화의 배경을 제공하며 부정사 ‘没’는 직접 그 앞에 위치한 대조초점 성분을 부정하지는 않다.

2.3 소결

본 장에서는 부정사가 그 뒤에 위치한 성분만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증명하였다. 첫째, 중국어의 부정사는 분포적인 측면에서 다른 언어에 비해 무표적이며 출현 위치가 매우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관용어를 제외하면 부정의 대상 앞에 부정사가 어디든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앞의 성분까지 부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의문사는 의문문에서 대조초점 혹은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지만,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지는 않는다. 부정사 ‘没’와 의문사가 함께 의문문에 출현할 경우 부정사는 문장의 전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의문사에 대한 답변인 대조초점이 문두에 위치할 경우 그 뒤에 출현하는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될 수 없다.

셋째, 부정사 ‘没’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 앞에 위치한 대조초점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부정의 의미는 전체 문장 구조에서 의미적으로 추론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조초점이 부정사 ‘没’의 앞과 뒤의 위치하는 지에 따라 ‘是老王没来’, ‘来的人不是老王’과 같은 의미적 차이가 발생한다.

넷째, 부정사 ‘没’의 앞에 대조초점이 존재할 경우 ‘没+VP’는 문장의 전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没’는 선행하는 대조초점을 부정할 수 없다.

부정사 ‘没’의 앞에 대조강세나 ‘是’, ‘就’, 배타적 양화사(唯量词)로 강조되는 대조초점이 출현할 경우 ‘没+VP’는 문장의 전제로 인식되며 부정사 ‘没’는 후행하는 VP만을 부정한다. 또한, ‘连’자문은 의미 기능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连’의 후행 성분이 대조화제인 경우 ‘没+VP’는 서술어 초점으로 기능한다. 다음으로 ‘连……都/

也……’가 문장 초점 구조로 기능하는 경우에도 부정사 ‘没’는 술어 부분만을 부정한다.

종합하면 부정범위가 부정사의 앞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잘못된 견해는 ‘没+VP’가 전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대조초점이 부정사 ‘没’의 앞에 출현할 경우 ‘没+VP’는 문장의 전제로 인식되며 이러한 경우에 부정사 ‘没’는 선행하는 대조초점을 부정하지는 않다.

제3장 부사어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부정초점은 ‘부정중심’이라고도 불리며 부정범위 내에서 실제로 부정되는 성분을 가리킨다. 이번 장에서는 코퍼스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사 ‘没’와 부사어가 공기하는 예문들을 전수조사 후 통계분석할 것이며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부사어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고 부정초점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3.1 부정사 ‘没’와 공기하는 부사어의 유형 분류

부사어를 분류하는 기준과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함께 출현하는 경우 부사어의 의미적 특징과 품사적 특징이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 장에서는 부사어의 의미적 특징과 품사적 특징에 따른 분류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刘月华(2019:501-509)의 분류를 보면, 부사어는 크게 묘사성 부사어와 비묘사성 부사어로 분류할 수 있다. 그는 묘사성 부사어를 의미상 행위자를 묘사하는 경우와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비묘사성 부사어를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이고, 두 번째 유형은 어기와 추정을 나타내는 경우이며 세 번째 유형은 목적, 근거, 관계, 협동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네 번째 유형은 장소, 공간, 노선,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이고, 다섯 번째 유형은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이며 여섯 번째 유형은 부정, 정도, 중복, 범위, 관련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潘国英(2010:53-56)은 현대중국어의 부사어를 아래와 같이 의미적 자질에 근거하여 총 1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3-1] 潘国英(2010:54-55)의 부사어 분류

1	[+동태](动状)	[+방식](方式)	[+비유](比况)	他像鸟一样飞了出来
			[+도구](工具)	他用刀切菜
			[+협동](协同)	我跟他一起去了杭州
			[+대상](对象)	他对我笑了笑
			[+재료](材料)	妈妈用花布做了一个包
			[+기점](始发)	他从北京来
			[+경로](途径)	泪水顺着脸颊流下来
			[+방향](方向)	妹妹向前跑去
		[+상태](摹状)	她又呼噜呼噜地抽起纸烟来	
		[+특징](特征)	你胆敢公然反抗你父亲	
2	[+시간] ₁ (时间)	我明天回来		
3	[+장소](处所)	我在家休息		
4	[+모습](情状)	她害羞地笑了		
5	[+환경](环境)	[+조건](条件)	在大家的帮助下,他进步很快	
		[+원인](因由)	因为时间的关系,这工作暂时搁着	
		[+근거](依凭)	按老辈的观念,结婚是要先订亲的	
		[+범위](范围) ₁	这件事在全校师生中引起了很大的反响	
6	[+시간] ₂ (时间)	我已经吃过饭了		
7	[+정도](程度)	房间很干净		
8	[+부정](否定)	我不去		
9	[+관계](关涉)	关于这件事,他不太清楚		
10	[+연관] ₁ (关联)	终于,我们到达了山顶		
11	[+연관] ₂ (关联)	他又迟到了		
12	[+평가] ₁ (评价)	也许他不回来了		
13	[+평가] ₂ (评价)	你应该去的		
14	[+범위] ₂ (范围)	我们都来了		

본고에서는 刘月华(2019), 潘国英(2010)의 분류 기준과 방식을 기반으로 부사어를 의미적 특성에 따라 최대한 세분한 후, 부사어의 유형과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부사어를 크게 묘사성 부사어와 비묘사성 부사어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묘사성 부사어의 경우 특징, 상태, 모습으로 세분할 것이며 비묘사성 부사어의 경우에는 시간, 장소, 기점, 경로, 방향, 비유, 비교, 도구, 방법, 재료, 협동, 대상, 조건, 원인·목적, 근거, 범위전치사, 범위부사, 부정, 연관, 정도, 평가로 세분하고자 한다.⁸⁾

다음으로 각 유형의 부사어가 갖는 의미적 특징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부정사 ‘没’와 공기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징 부사어(特征义状语)는 동사와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부사어로서 ‘完全理解’, ‘完全干燥’ 등과 같이 해당 부사어와 동사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地’가 출현할 수 없다. 이러한 부사어들은 주로 방식과 상태를 의미하며 동사의 본질적 및 구별적 특징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특징 부사어에는 방식사(方式词), 명사, 단음절 형용사, 수사, ‘-V’ 형식이 속한다.⁹⁾ 아래는 특징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이다.

- (1) a. 我当时并没完全理解警督话中蕴含的深意。(帕特里克·莫迪亚诺, 『青春咖啡馆』)
저는 당시 경감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 b. 屋子潮得厉害, 墙壁都在滴水, 还没完全干燥呢。(巴尔扎克, 『高老头』)
방은 너무 축축하고, 벽에는 물방울이 맺히고,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어요.

상태 부사어(摹状义状语)는 의미상 동작 자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이러한

8) 潘国英(2010)의 부정사 분류 중 [+조건], [+연관]₁, [+평가]₁, [+평가]₂의 의미 자질을 갖는 부사어들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수 없으므로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이후 보고에서 언급하는 ‘연관’은 모두 [+연관]₂에 속한다.

9) 潘国英(2010:97)에 따르면 방식사(方式词)는 ‘양태부사’(情态副词), ‘묘장부사’(描状副词), ‘상태사’(状态词), ‘유장사’(唯状词)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인 방식사에는 ‘飞速’, ‘公然’, ‘奋勇’, ‘独自’, ‘自动’, ‘擅自’, ‘陆续’, ‘依次’, ‘急忙’ 등이 있다. 또한, 방식사는 동사의 앞에만 출현할 수 있으며 동작의 방식과 상태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단음절 형용사 ‘猛’, ‘死’, ‘狠’은 주로 단음절 동사와 결합하여 동작 상태의 정도를 나타낸다.

부사어의 뒤에는 일반적으로 ‘露骨地说’, ‘冒昧地到她的家里去’ 등과 같이 ‘地’가 출현한다. 상태 부사어에는 주로 형용사, 동사, 명사, 수량사, 의성어, 중첩구조, 특수 관용어, 단문 등이 속한다. 상태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대표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 a. 会长就职礼已平安地举行过; 报纸上也没露骨地说什么。(老舍, 『蛤藻集』)
회장 취임식은 평온하게 진행되었고, 신문에서도 노골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 b. 他对于她家本是一个生人, 所以他就没冒昧地到她的家里去。(托马斯·哈代, 『还乡』)
그는 그녀의 집에선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질 못했어요.

모습 부사어(情状义状语)는 의미적으로 주어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며 주로 주어의 속성, 태도, 표정, 모습 등을 묘사한다. 또한, 모습 부사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地’가 후행한다. 대표적인 모습 부사어에는 주로 형용사가 속하며 술어나 단문, 구조가 간단한 주술구조, 일부 관용어 등도 포함된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3) a. 幸好事先问了问, 没稀里糊涂地成‘座上宾’。(「文汇报」)
다행히 사전에 물어보는 바람에 얼떨결에 상석에 앉지 않았어요.
- b. 他刚才没倚老卖老地教训我, 还塞钱给我把马子。(阿蛮, 『干城兄』)
그는 방금 저에게 선배 티를 내면서 가르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여자랑 사귀라고 돈을 찢러주었어요.

시간 의미(时间义状语)의 부사어는 시점과 기간을 나타내며 주로 시간 명사, 시간부사, 시간 전치사구(介词短语) 등이 포함된다. 시간 명사에는 ‘今天’, ‘1980年’, ‘两点’, ‘原来’, ‘以后’, ‘刚才’, ‘整天’ 등이 있으며 ‘……时’, ‘……的时候’ 등과 같은 구조도 포함된다. 시간 부사어에는 ‘已经’, ‘早’, ‘就’, ‘才’, ‘从来’, ‘曾’, ‘曾经’, ‘一向’, ‘向来’, ‘历来’, ‘终于’, ‘马上’, ‘立刻’, ‘刚’, ‘将’, ‘快’, ‘常’, ‘经常’, ‘永远’, ‘始终’, ‘一直’, ‘总’, ‘老’, ‘往往’, ‘通常’, ‘有时’, ‘仍然’, ‘同时’, ‘先’ 등이 있

다. 시간 전치사구에는 주로 ‘在……’, ‘当……’, ‘于……’, ‘自……’, ‘打……’, ‘从……起’, ‘自从……’ 등과 같은 형식이 포함된다. 아래는 시간 명사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이다.

- (4) a. 晚上比白天我看到的好看多了, 后悔没晚上去。(微博)
 밤에 보는 것이 낮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밤에 가지 않은 것이 후회돼요.
- b. 我为了“顾全大局”, 也没当时驳斥他。(「人民日报」, 1989年08月10日)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당시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시간 부사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이다.

- (5) a. 宝庆没马上回答。迟疑了半天, 他说:“我不能学唐四爷……”(老舍, 『鼓书艺人』)
 보청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고는 ‘저는 탕 넷째 도련님처럼 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 b. 这个傻小子, 没经常见面啦, 懂了不少。(微博)
 이 멍청한 녀석이, 자주 만나지 않은 사이에 더욱 어른스러워졌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대표적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 (6) a. 他已经好多年没在清晨散步了。(库什万特·辛格, 『日落俱乐部』)
 그는 이미 몇 년 동안 아침 산책을 하지 않았어요.
- b. 既然我肯定没在那七天去杀人, 那就一定是去救人了。(王朔, 『玩的就是心跳』)
 만약 내가 그 7일 중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 사람을 구하러 간 것이겠지요.

장소 부사어(处所义状语)는 공간과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러한 부사어에는 방위사구(方位短语)뿐만 아니라, ‘在+방위사구’의 형식도 포함된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7) a. 家玉没在qq的界面上出现, 也没有给他留下片言只字。(格非, 『江南三部曲』)
자위는 QQ 화면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에게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어요.
- b. 由于没在内墙里生火, 因此我们这顿饭是在外墙外的空地上做的。(丹尼尔·笛福, 『鲁滨逊漂流记』)
실내에 불을 지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식사를 실외 공터에서 준비했어요.

기점 부사어(始发义状语)는 동작이 발생하는 공간적 기점을 나타내며 주로 기점을 의미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전치사는 ‘打’, ‘打从’, ‘起’, ‘由’, ‘于’, ‘自’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기점 부사어는 추상적 공간의 기점, 기원(来源), 사물 변화의 초기 상태와 관찰 각도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우선, 동작 발생의 공간적 기점을 나타내는 기점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8) 也许那时润叶姐还没从他二爸家返回学校。(路遥, 『平凡的世界』)
아마 그때는 룬예 언니가 그의 둘째 아버지 댁에서 학교로 아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추상적 공간의 기점, 기원(来源), 사물 변화의 초기 상태와 관찰 각도를 나타내는 기점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이다.

- (9) a. 林佳龙最近卷入海啸慈善捐款事件, 一时还没从负面新闻中脱身。(『人民日报海外版』, 2005年9月)
린지아룽은 최근 쓰나미 구호 기금 사건에 휘말려서, 아직 당분간 부정적인 뉴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 b. 是我对他体贴不周? 也不是! 关键是我没从根本_上找原因。(『人民日报』, 1991年9月)
제가 그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요! 관건은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이예요.

경로 부사어(途经义状语)는 동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치의 변화가 발생함

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위치 변화를 의미하는 전치사구로 표현된다. 이러한 부사어에는 주로 ‘从’, ‘打(从)’, ‘经(过)’, ‘经由’, ‘起’, ‘顺(着)’, ‘循(着)’, ‘沿(着)’ 등이 속한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0) a. 汽车没顺着公路开, 一出城就向南去了。(「人民日报」, 1956年10月)
 차는 도로를 따라서 가지 않고,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남쪽으로 향했어요.
 b. 没沿轴和垂直轴综合转动, 就将造成上述三种错误的产生。(『科技文献』)
 축과 수직 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회전하지 않으면...앞에서 말한 세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될 거예요.

방향 부사어(方向义状语)는 위치 변화의 방향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변화된 위치의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 ‘向’으로 표현된다. 이 외에도 ‘奔(着)’, ‘朝(着)’, ‘对(着)’, ‘距’, ‘距离’, ‘临’, ‘往’, ‘望’, ‘向(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전치사의 뒤에는 ‘着’를 부가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방향 부사어는 구체적인 공간의 이동 방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방향도 나타낼 수 있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1) a. 我从冰箱里拿出一罐彻底冰镇的可乐, 也没往杯里倒, 一口气喝光。(村上春树, 『寻羊冒险记』)
 저는 냉장고에서 완전히 찬 콜라 한 캔을 꺼내서, 컵에 따르지도 않고, 한 모금에 다 마셔버렸어요.
 b. 余校长根本没往这方面想, 在他心里, 除了感谢还是感谢。(刘醒龙, 『天行者』)
 위교장은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마음속으로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비유 부사어(比况义状语)는 비유 혹은 의태어의 형식으로 동작 진행의 방식을 형상적으로 표현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주로 ‘……似的’, ‘像/仿佛……似的/一般/一样’, ‘如……一般/一样’ 등과 같이 비유 구조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비유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대표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2) a. 我没像她想的那样说, 而是扮演了起义者的角色。(卡勒德·胡赛尼, 『群山回唱』)

저는 그녀가 생각한 대로 말하지 않았고, 봉기자 역할을 했어요.

- b. 她没像昨晚摔倒时那样大骂法西斯! (大江健三郎, 『摆脱危机者的调查书』)
그녀는 어젯밤 넘어질 때처럼 파시스트를 욕하지는 않았어요!

비교 부사어(比较义状语)는 다른 사물 혹은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동작과 행위의 진행 방식을 표현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주로 ‘比……’、‘像……一样/似的’ 등 전치사구와 같은 비교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비교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3) a. 现在的我压根就没比当年的我坚毅啊! (比彻·斯托夫人, 『汤姆叔叔的小屋』)
지금의 저는 예전의 저보다 전혀 강인하지 않아요.
b. 亚当觉得, 自从谈话开始以来, 再也没比此时此刻扣人心弦了。(阿瑟·黑利, 『汽车城』)
아담은 담화를 시작한 이래 지금보다 더 심금을 울리는 순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도구 부사어(工具义状语)는 행위에 어떤 자연(또는 비자연)적인 도구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며 ‘用’, ‘拿’, ‘凭’, ‘以’ 등 전형적인 표지가 부가되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자연적인 도구에는 ‘剪刀’, ‘榔头’, ‘铁锹’, ‘螺丝刀’, ‘扳子’, ‘锤子’, ‘斧头’, ‘电钻’ 등이 있다. 비자연적인 도구의 경우 ‘用英语交谈’, ‘用手摸’, ‘用事实证明’, ‘用水浇’ 등과 같이 문장의 의미 구조 속에서 ‘행위자—도구—동작’의 의미적 관계를 구성한다. 도구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 (14) a. 我有五年没用梳子梳头了, 他们把梳子也没收了, 我只好用手指头拢头发。
(「人民日报」, 1979年03月08日)
저는 5년간 머리빗으로 머리를 빗지 않았는데, 그들이 빗마저 몰수해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매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b. 吹干了流下来的泪, 而新的泪水又流下来。他没有回头, 也没用手去揩。(贾平凹, 『废都』)
눈물이 바람에 말라버리면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돌아보

지도 않고, 손으로 닦아내지도 않았어요.

방법 부사어(方法义状语)’는 ‘방식 부사어(方式义状语)’라고도 부르며 행동과 행위의 방법 혹은 형식을 나타낸다. 또한, 주로 ‘以……姿态/身份’, ‘用……方式/方法/形式/口吻/语气/态度/腔调/口气’ 등의 형식으로 쓰인다. 아래는 방법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이다.

- (15) a. 她并没以同样的态度看待这两个人。(玛格丽特·米切尔, 『飘』)
그녀는 동일한 태도로 이 두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요.
- b. 我的大脑从来没以任何逻辑形式把它们保留下来。(弗拉基米尔·纳博科夫, 『洛丽塔』)
제 머리는 예전부터 어떤 논리적 형식으로도 그런 것들을 기억해둔 적이 없어요.

재료 부사어(材料义状语)는 동작과 행위에 사용되는 원자재 또는 시간, 자금 등 소모품을 가리키며, 전형적인 표지에는 ‘用’이 있다. 재료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6) a. 意面多煮了两分钟, 又没用罗勒调味, 而用切细的紫苏撒在上面。(村上春树, 『1973年的弹子球』)
스파게티는 2분 더 끓이고, 바질 향신료를 쓰지 않고, 잘게 썬 차조기를 뿌렸어요.
- b. 这工棚比别的地方的小, 墙也没用石灰粉刷。(「人民日报」, 1958年03月27日)
이 가설 작업장은 다른 곳보다 작고, 벽도 석회로 바르지 않았어요.

협동 부사어(协同义状语)는 동작과 행위의 협동 참여자를 나타내며 주로 전치사 ‘和’, ‘跟’, ‘同’, ‘与’로 협동 목적어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출현한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7) a. 他没跟玛丽亚在一起, 别瞎想。(塞西莉亚·艾亨, 『限期十四天』)
그는 마리아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 b. “你怎么如此说话?”“我根本就没和你说话!”(山岗庄八·德川家康, 『龙争虎斗』)
“당신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당신한테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잖아요!”

대상 부사어(对象义状语)는 행위자의 동작과 행위 혹은 심리활동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체대상, 협동대상, 관련대상을 나타내며 주로 ‘朝(着)’, ‘冲(着)’, ‘当(着)’, ‘对于’, ‘对(着)’, ‘给’, ‘跟’, ‘和’, ‘连(同)’, ‘面对’, ‘拿’, ‘随同’, ‘随(着)’, ‘替’, ‘同’, ‘为’, ‘向’, ‘引’, ‘以’, ‘于’, ‘与’ 등과 같은 전치사로 이러한 대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출현한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8) a. 窦惠没针对他的问题回答, 只说:“家乡里的女孩儿大都在十三岁就嫁掉了。”(阿蛮, 『马背上的恶魔』)
또우후이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향 여자애들은 대부분 13살에 시집가버렸어요.”라고만 말했다.
b. 这一点, 他的确没向她掩饰。(夏洛蒂·勃朗特, 『简爱』)
이런 점에 대해 그는 확실히 그녀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원인 및 목적 부사어(因由·目的义状语)는 사건이나 동작의 원인과 목적을 나타내며 주로 ‘为’, ‘为了’, ‘为着’, ‘因’, ‘因为’, ‘由于’ 등과 같은 전치사구 형식으로 출현한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9) a. 她倒没因为粗心大意出了岔子!(阿瑟·黑利, 『汽车城』)
그녀의 부주의 때문에 실수하지는 않았어요.
b. 不仅没因为不提价赔老本, 同时利润收入也创了历史最高水平。(「人民日报」, 1982年01月11日)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도 본전을 날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윤수입도 역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했어요.

근거 부사어(依凭义状语)는 사건 발생의 근거, 의존, 참조기준, 기초 등을 나타내며 주로 ‘按(照)’, ‘按着’, ‘从’, ‘打’, ‘(根)据’, ‘基于’, ‘靠着’, ‘凭(着)’, ‘依照’, ‘照(着)’, 등과 같은 전치구 형식으로 출현한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0) a. 你不能抱怨我没按协议办事。(玛格丽特·米切尔, 『飘』)
당신은 제가 계약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원망해선 안 돼요.
- b. 难道后来我没按日子还钱吗?(亨利克·易卜生, 『玩偶之家』)
제가 나중에 일정에 맞춰 돈을 갚지 않았나요?

범위전치사 부사어(范围义介词状语)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동작이 진행되는 환경의 범위를 나타내며 주로 ‘在……内中里’와 같은 전치사구 형식으로 출현한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1) a. 他甚至恨自己为什么没在伦敦的大轰炸中粉身碎骨。(霍达, 『穆斯林的葬礼』)
그는 심지어 자신이 런던 대폭격 중에 왜 처참히 죽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신을 비난했어요.
- b. 我只不过是在恰如其分地表演接踵而来的角色罢了, 而没在主体上做出任何选择。(村上春树, 『舞!舞!舞!』)
저는 그저 연달아 주어진 배역을 알맞게 연기했을 뿐, 주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진 않았어요.

범위부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都’, ‘全’, ‘统统’, ‘一概’, ‘总(共)’, ‘大约’, ‘大概’, ‘大体’, ‘大凡’ 등과 같이 총괄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고, 다른 하나는 ‘仅(仅)’, ‘单(单)’, ‘光’, ‘就’ 등과 같이 제한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 (22) a. 也没都卖, 还剩下6个。(毕淑敏, 『最晚的晚报』)
다 팔지는 못 했고, 아직 6개 남았어요.

- b. 我没只怨你呀, 俩人的事, 俩人的事。(微博)

저는 당신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문제, 두 사람의 문제라고요.

부정 부사어(否定义状语)에는 부정사 ‘不’, ‘没’가 있다. 그러나 ‘没’의 경우 부정사 ‘没’의 뒤에 반복 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부정사 ‘没’ 뒤에 부정사 ‘不’가 출현하는 상황만 고찰하고자 한다. ‘不’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3) a. 没不让你睡, 你去睡你的吧。(王朔, 『过把瘾就死』)

당신을 잠 못 자게 하지는 않았어요, 어서 가서 자라고요.

- b. 他们没不开会, 从八点钟就跟我在一起喝酒。(米切尔, 『飘』)

그들은 회의 안한 게 아니라, 8시부터 나랑 같이 술을 마셨어요.

연관 부사어(认定性关联义状语)에는 ‘才’, ‘更’, ‘还’, ‘就’, ‘也’, ‘又’, ‘愈’, ‘越’, ‘再’ 등과 같이 연관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들이 속한다. 연관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주어의 뒤, 또는 술어의 앞에 출현한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4) a. 司机死后不久, 接生婆也在某一日销声匿迹, 没再出现。(余华, 『世事如烟』)

운전사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산파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 b. 他这样讲了, 爹和妈就没再说话。(王旭烽, 『茶人三部曲』)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도 부사어(程度义状语)에는 주로 ‘很’, ‘挺’, ‘怪’, ‘更’, ‘最’, ‘太’, ‘好’, ‘真’, ‘比较’, ‘非常’, ‘十分’, ‘特别’, ‘尤其’, ‘稍微’, ‘不大’ 등이 속한다. 이 유형의 부사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5) a. 其实我都没太注意那人长什么样?(海明威, 『永别了,武器』)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신경쓰지 않았어요.

- b. 她并没十分关切晓荷, 因为晓荷到如今还没弄上一官半职, 差不多是个废物。
(老舍, 『四世同堂』)

그녀는 샤오허를 별로 신경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샤오허는 지금까지 말단관직도 오르지 못했고, 거의 폐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현대중국어의 부사어를 의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각 유형의 부사어가 어떠한 의미적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예문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부정사 ‘没’와 공기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2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

이번 절에서는 Herburger(2000)의 부정초점에 대한 분류를 바탕으로 부정사 ‘没’가 후행하는 부사어만 부정하는지, 또는 부사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Herburger(2000:29-30)는 부정범위를 논의할 때 부정과 초점의 관계에 따라 문장을 [표3-2]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3-2] Herburger(2000:29-30)의 부정초점 분류

부정 유형		부정범위
제한 해석 (Bound Reading)		초점 (focus)
무제한 해석 (Free Reading)		동사 (verb)
전체 해석 (Wide Reading)	구조 해석(Structured)	전체 문장 (entire clause)
	비구조 해석 (unstructured)	

첫 번째 유형은 부정사가 문장의 초점을 부정하는 ‘제한 해석(Bound Reading)’인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 (26)은 ‘What Sascha visited wasn’t Montmartre.’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부정사가 동사를 부정하는 ‘무제한 해석(free reading)’인 경우로, 이 경우에 (26)은 ‘What Sascha didn’t

visited was Montmartre’로 해석할 수 있다.

(26) Sascha didn’t visit MONTMARTRE.

사샤는 몽마르트는 방문하지 않았어요.

위의 예문 (26)을 사용하여 제한 해석과 무제한 해석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하면, 전자의 경우 전제는 ‘Sascha가 어딘가를 방문했다’이지만, 후자의 경우 전제는 ‘Sascha가 어딘가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부정사가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전체 해석(wide reading)’인 경우로, 이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부정사가 사건 전체를 부정하는 ‘구조 해석(Structured)’인 경우이며 이 경우에 (27)의 B는 ‘It’s not the case that what Sascha visited yesterday was Montmartre’로 해석할 수 있다.

(27) A: Yesterday, Sascha visited MONTMARTRE.

어제, 사샤는 몽마르트를 방문했어요.

B: Sascha didn’t visit MONTMARTRE, because he in fact didn’t visit ANYTHING! He FELT SICK AND STAYED IN THE HOTEL ALL DAY.

사샤는 몽마르트를 방문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몸이 안 좋아서 온종일 호텔에 머물렀어요.

다른 하나는 ‘비구조 해석(unstructured)’인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28)과 같이 부정사 자체에 강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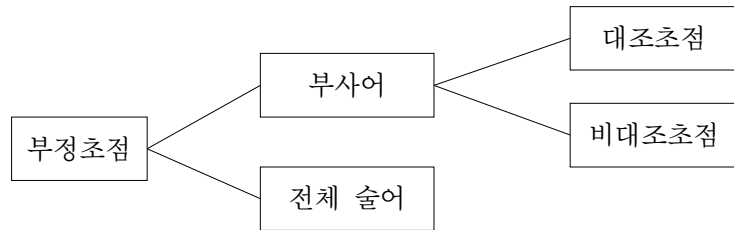
(28) A: I bet SASCHA VISITED MONTMARTRE YESTERDAY! THAT’S why there was such a traffic jam!

제가 확신컨데 사샤는 어제 몽마르트를 방문했어요! 그게 그런 교통체증이 생긴 원인이에요!

B: Sascha DIDN’T visit Montmartre yesterday.

사샤는 어제 몽마르트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Herburger(2000)의 분류에 따르면 부정사는 동사 이외의 한 성분을 부정할 수도 있고, 동사 자체 혹은 문장 전체까지도 직접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사어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경우 부정사는 부사어만 부정할 수도 있으며 동사, 부사어, 보어, 수식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¹⁰⁾ 부정사 ‘没’와 후행하는 각 유형의 부사어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3-1]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부사어 간의 관계

우선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은 부사어와 부사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로 양분할 수 있다. 본고는 부정사 ‘没’가 동사만 부정하고 부사어를 부정하지 않는 경우는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동사가 대조초점이 아닌 경우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동작을 수식하거나 제한하는 부사어 성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부정사 ‘没’와 부사어가 공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로도 입증할 수 있다. 즉, 코퍼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부정사 ‘没’가 동사만 부정하고 부사어를 부정하지 않는 예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10) Herburger(2000)의 ‘제한 해석(bound reading)’과 ‘구조 해석(structured)’은 각각 중국어의 ‘논항 초점’과 ‘술어 초점’에 해당한다. 또한, 그가 주장한 ‘무제한 해석(free reading)’은 중국어에서 ‘[没去的]地方是 Montmartre’처럼 부정사가 수식어의 일부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구조 해석(unstructured)’은 부정사가 부정초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부정사 ‘没’가 부사어만 부정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부사어가 ‘대조초점’인 경우이다. 즉, 부사어가 문맥과 동사의 속성으로 인해 대조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 (29) a. 他们没按传统开展工作。
그들은 전통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 b. 他们没按传统开展工作, 只顾着做一些夸大的宣传。
그들은 전통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저 과장된 홍보에 주력했어요.
- c. 他们没按传统开展工作, 而是从一开始就集中精力办经济实体、服务实体。(「人民日报」, 1992年05月27日)
그들은 전통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실물 경제와 실물 서비스에 노력을 집중시켰어요.

(29a)에서 ‘按传统开展工作’는 전후 문맥이 없을 경우 ‘开展工作了, 但没按传统开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29b)처럼 ‘没开展工作’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29c)에서는 ‘按传统’과 ‘办经济实体、服务实体.’가 대조를 이루어 부정사 ‘没’는 대조초점인 부사어 ‘按传统’만을 부정한다.

다른 하나는 부사어가 ‘비-대조초점’인 경우이다. 즉, 문맥이 부사어에 대조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사 ‘没’가 부사어만 부정하는 경우이다. (30)에서 ‘窗户没全开’는 문맥의 존재와 상관없이 ‘窗户开了, 但没全开’로만 해석된다.

- (30) 他来到窗外, 只见窗户并没全关, 窗帘子只拉下一部分来。(托马斯·哈代, 『还乡』)
그가 창밖에 왔을 때 창문은 완전히 닫혀있지도 않았고, 커튼도 일부만 쳐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부정사 ‘没’가 부사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1a)와 (31b)를 보면 부정사 ‘没’는 각각 술어 성분인 ‘和麦赫麦特四目相视’, ‘在QQ界面上出现’을 부정함으로써 모두 특정한 동작의 미실현을 나타낸다.

- (31) a. 我没看, 也没和麦赫麦特四目相视。(奥尔罕·帕穆克, 『纯真博物馆』)
 저는 보지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맥헤메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 b. 家玉没在qq的界面上出现, 也没有给他留下片言只字。(格非, 『江南三部曲』)
 자위는 QQ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에게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위와 같은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각 의미유형의 부사어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분포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BCC 코퍼스를 통해 부정사 ‘没’ 뒤에 부사어가 출현하는 예문을 전수조사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표3-3] 부사어의 의미적 분류에 따른 부정초점의 분포

유효 데이터 유형			부사어만 부정				술어 부정	
			대조초점		비대조초점			
			데이터	백분율	데이터	백분율	데이터	백분율
묘사성	특징	239	0	0%	226	95%	13	5%
	상태	26	0	0%	22	85%	4	15%
	모습	6	0	0%	0	0%	6	100%
비묘사성	시간	150	35	23%	15	10%	100	67%
	장소	149	34	23%	0	0%	115	77%
	시작	114	38	33%	0	0%	76	67%
	경로	10	5	50%	0	0%	5	50%
	방향	95	19	20%	0	0%	76	80%
	비유	41	3	7%	0	0%	38	93%
	비교	5	0	0%	0	0%	5	100%
	도구	36	12	33%	0	0%	24	67%
	방법	3	2	67%	0	0%	1	33%
	재료	4	1	25%	0	0%	3	75%
	협동	38	8	21%	0	0%	30	79%
	대상	736	41	6%	0	0%	695	94%
	원인·목적	8	0	0%	0	0%	8	100%
	근거	149	108	72%	0	0%	41	28%
	범위(전치사)	17	3	18%	0	0%	14	82%
	범위(부사)	55	0	0%	55	100%	0	0%
	연관	97	1	1%	0	0%	96	99%
	부정	34	0	0%	0	0%	34	100%
정도	74	8	11%	17	23%	49	66%	
총 계		2086	318	15%	335	16%	1433	69%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부정사 ‘没’는 주로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부정사 ‘没’가 전체 동사구를 부정하는 경우는 69%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으며 주로 모습, 시간, 장소, 시작, 경로, 방향, 도구, 방법, 재료, 협동, 대상, 원인, 목적, 근거, 범위(전치사), 연관, 부정 등의 부사어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부정사 ‘没’가 비대조초점인 부사어만 부정하는 유형은 16%의 출현빈도를 보였으며 주로 특징, 상태, 시간(또는 시간부사), 범위, 정도 부사어를 포함한다.¹¹⁾ 마지막으로 부정사 ‘没’가 대조초점인 부사어만 부정하는 유형은 15%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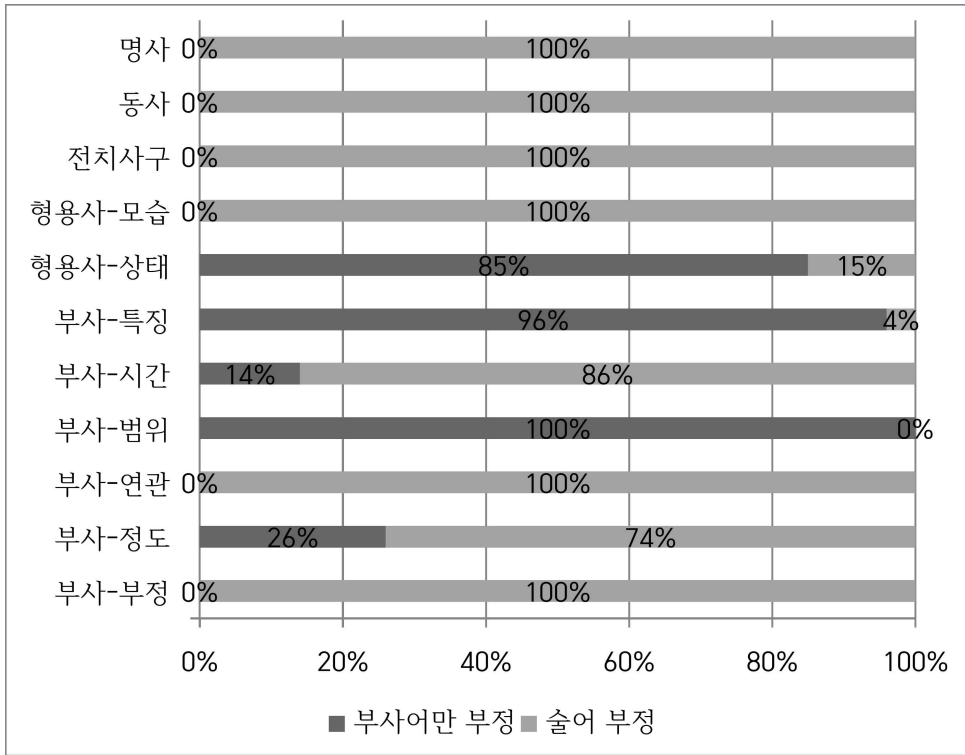
다음으로 본고는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사어가 대조초점인 경우를 제외한 후 비대조초점인 경우에 대해 부사어의 품사 및 의미적 특징에 따라 ‘没’의 부정초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3-4]와 같다.

11) 비교 및 비유 부사어의 경우 주로 ‘比/像+……+형용사/동사’의 형식을 사용하며 부정사 ‘没’와 공기할 경우 전체 술어를 부정한다. 예를 들어 ‘现在的我压根就没比当年的我坚毅啊!’의 경우 부정사 ‘没’는 ‘比当年的我坚毅’를 부정하고, ‘我现在没像那些易动感情的女人一样哭泣呀.’의 경우 부정사 ‘没’가 부정하는 것은 ‘像那些易动感情的女人一样哭泣’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 및 비유 부사어에 대해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표3-4] 부사어의 품사와 의미적 분류에 따른 부정초점의 분포

품사	의미 특징	예	부사어만 부정		술어 부정	
			데이터	백분율	데이터	백분율
명사	시간	今天/整天	0	0%	3	100%
	특징	现场	0	0%	3	100%
	총계		0	0%	6	100%
동사	비유	像/如	0	0%	38	100%
	총계		0	0%	38	100%
형용사	상태	露骨地	22	85%	4	15%
	모습	稀里糊涂地	0	0%	6	100%
	총계		22	69%	10	31%
전치사(구)	시간	在	0	0%	5	100%
	장소	在	0	0%	115	100%
	시작/경로/방향	从/顺着/往	0	0%	157	100%
	비교	比	0	0%	5	100%
	도구/방법/재료	用/拿/以	0	0%	28	100%
	협동	和/跟/与	0	0%	30	100%
	대상	和/跟/向/对	0	0%	695	100%
	원인·목적	因为	0	0%	8	100%
	근거	按/按照	0	0%	41	100%
	밥위	在……中/内/里	0	0%	14	100%
	총계		0	0%	1098	100%
부사	특징	少/完全	226	96%	10	4%
	시간	马上/立刻/常常	15	14%	92	86%
	범위	都/全/总/只	55	100%	0	0%
	연관	再	0	0%	96	100%
	부정	不	0	0%	34	100%
	정도	太/十分/特别	17	26%	49	74%
	총계		313	53%	281	47%
총계			335	19%	1768	81%

아래는 [표3-4]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3-2] 부사어의 품사와 의미적 분류에 따른 부정초점의 분포

부사어의 품사와 의미적 분류에 따른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을 보면 부정사 ‘没’가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81%이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没’가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사성, 동사성, 전치사성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 ‘没’는 일반적으로 술어 전체를 부정하며 형용사성 상태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부사어만을 부정하지만, 형용사성 모습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전체 술어를 부정한다. 또한, 부사성 범위 및 특징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 ‘没’는 부사어만을 단독으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사성 시간 및 정도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전체 술어가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 및 연관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는 모두 술어 전체가 ‘没’에 의해 부정됨을 알 수 있었다.

3.3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번 절에서는 앞 절에 이어 부사어가 출현하는 부정문에서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3.1 대조초점

BCC 코퍼스를 통해 추출한 예문 중 부사어가 대조초점인 경우는 총 318개로서 15%를 차지하며 이 경우 부정사 ‘没’는 부사어를 단독으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Lambrecht(1994)에 따르면 대조초점 구조는 논항 초점 구조와 동일하며 양자의 전제는 모두 ‘X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개방적인 명제이며, 초점의 역할은 다수의 후보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를 식별해내는 것이다. 徐烈炯(2005)은 대조초점에 대해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특정 집합 내에서 하나 혹은 몇 개의 대상을 선별하여 다른 후보군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袁毓林(2006)의 견해에 따르면 강세가 없고 초점이 될 수 없는 성분에 강제로 강세를 부여하여 대조를 성립시킬 수 있다.

본고는 대조초점이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본다. 즉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성분이 대조초점인 경우 부사어, 보어, 수식어, 수식어를 포함한 전체 목적어, 동사(구)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 대조초점의 성립 기준은 다음과 같다.¹²⁾

첫째, 부사어 대조초점은 문맥에 상응하는 대조대상이 존재하고 술어동사가 일치해야 성립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32) a. 美国已经对德国宣战, 只是还没对奥国宣战。(海明威, 『永别了, 武器』)

미국은 이미 독일에 선전 포고를 했지만, 아직 오스트리아에는 하지

12) 강세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조강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 자료들은 모두 문헌 자료이므로 강세가 어디에 실렸는지는 문맥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고는 앞뒤 문맥을 대조초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않았어요.

- b. 我没从你手要人, 我是从介绍人手里要的。(「人民日报」1951年11月13日)
저는 당신에게 사람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선자에게 부탁한 것이예요.

(32a)의 ‘对奥国’는 대조초점으로서 ‘对德国’와 대조를 이루며, (32b)의 ‘从你手’는 대조초점으로서 ‘从介绍人手里’와 대조를 이룬다.

둘째, 부사어 대조초점은 문맥에 상응하는 대조대상이 존재하고 술어동사가 형식적으로는 불일치하지만 실제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나타낼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33) a. 过去从业务上想得多, 没从制度上考虑。(「人民日报」, 1979年01月27号)
과거에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 b. 大部分地方没按科学的要求施肥, 不讲究施肥时机, 就只随便往地里一撒。
(「人民日报」, 1989年04月16号)
대부분 지역은 과학적인 요건에 따라 비료를 주지도 않고, 비료를 주는 시기를 중시하지도 않고, 땅에 무작정 뿌리기만 했어요.

(33a)에서 부사어 대조초점 ‘从制度上’의 대조대상은 ‘从业务上’이며, 술어동사 ‘想’과 ‘考虑’는 실제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나타낸다. (33b)에서 ‘按科学的要求’의 대조의미는 ‘不讲究施肥时机’이며, 술어동사 ‘施肥’와 ‘随便往地里一撒’는 실제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4) a. *过去从业务上想得多, 没从制度上考虑, 根本没考虑。
- b. *大部分地方没按科学的要求施肥, 不讲究施肥时机, 就只随便往地里一撒, 根本没施肥。

(33a)와 (33b)에서 부정사 ‘没’가 전체 술어 ‘从制度上考虑’와 ‘按科学的要求施肥’를 부정한다면, 사건 ‘考虑’와 ‘施肥’의 미발생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만일 (33a), (33b)의 술어 사건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34a)와 (34b)처럼 모두

비문이 된다. 따라서 (33a)와 (33b)에서 부정사 ‘没’가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부사어 ‘从制度上’과 ‘按科学的要求’만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대조초점은 문맥, 상식, 논리로써 추론해야 한다. 예를 들어 (35)의 문맥과 상식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我母亲’은 출산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부정사 ‘没’는 ‘生过孩子’를 부정할 수 없으며 부사어 ‘在医院’만을 부정하게 된다.

(35) 我母亲从来没在医院里生过孩子。(考琳·麦卡洛, 『荆棘鸟』)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대조초점이 부정사의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영어와 중국어에도 모두 존재한다. Givon(1978)은 부정사와 대조초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영어의 부정사가 대조초점이 없는 경우에 동사구만을 부정하지만, 대조초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조초점을 부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 예문을 보자.

(36) a. John didn't [kill the goat]F.

b. [John]F didn't kill the goat.

c. John didn't kill the [goat]F.

d. John didn't [kill]F the goat.

존은 염소를 죽이지 않았어요.

(Givon, 1978:16)

(36a)의 경우 대조초점이 없기 때문에 부정초점은 ‘kill the goat’이며, ‘He did not kill the goat’의 의미를 나타낸다. 동일한 맥락으로 (36b)~(36d)에서 부정초점은 각각 대조초점인 ‘John’, ‘goat’, ‘kill’이며 ‘John didn't kill the goat, someone else kill the goat’, ‘He killed something, but not the goat’, ‘He did something to the goat, but not kill it’의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吕叔湘(1985)은 일반적으로 부정초점은 문말강세가 실현되는 성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일 문말 성분 앞에 대조강세가 실린다면, 부정

초점은 이 대조강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아래의 예문을 통해 문말강세와 대조강세가 실린 성분은 모두 대조의 특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 (37) a. 我没问他的经历。(只谈了现在的情况。)
저는 그에게 경력을 묻지 않았어요。(현재 상황만 예기했어요.)
- b. 我没问他的详细经历。(只知道他在农村里呆过。)
저는 그에게 상세한 경력을 묻지 않았어요。(그가 농촌에서 산다는 것만 알아요.)
- c. 我没问他的经历。(是他自己告诉我的。)
저는 그에게 경력을 묻지 않았어요。(그가 스스로 저에게 알려줬어요.)
- d. 我没特地问他的经历。(是谈情况时透露的。)
저는 특별히 그에게 경력을 묻지 않았어요。(상황을 얘기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 (吕叔湘,1985/2002:437)

(37a)는 부정초점이 문말강세가 실린 ‘经历’에 있는 경우이지만, (37b), (37c), (37d)의 경우에는 모두 문말 성분의 앞에서 대조강세가 실현되므로 이 경우의 부정초점은 대조강세가 실린 ‘详细’, ‘问’, ‘特地’로 이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정사는 초점민감연산자(focus-sensitive operator)로서 문장의 초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다. 따라서 부정사는 대조초점에 민감하다고 판단된다. 祁峰(2012:101)에 따르면 초점연산자는 초점화자(focalizer)라고도 부르며 초점과 관련이 있는 성분으로, 문장 의미의 진리치(truth value)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Gundel(1999)은 일반적으로 초점의 위치는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점민감연산자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초점의 위치가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초점을 의미적 초점(semantic focus)이라고 불렀다. 徐烈炯(2005:86-87)에 따르면 의미적 초점은 일반적으로 초점민감연산자 혹은 초점부사(focusing adverb)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을 ‘초점 관련 현상’이라고도 부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8) a. Carl likes [Herring]_F.
칼은 Herring 맥주는 좋아해요.
- b. [Carl]_F likes Herring.

칼은 Herring 맥주를 좋아해요.

- (39) a. I only claimed that Carl likes [Herring]_F.

저는 그저 칼이 Herring 맥주는 좋아한다고 주장했어요.

- b. I only claimed that [Carl]_F likes Herring.

저는 그저 칼은 Herring 맥주를 좋아한다고 주장했어요.

(徐烈炯, 2005:86)

(38a)와 (38b)는 사실과 상관없이 문장의 진리치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39a)와 (39b)의 경우 ‘나도 Herring 맥주를 좋아한다’면 (39b)는 거짓(假)이고 (39a)는 참(真)이기 때문에 문장의 진리치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39a)와 (39b)의 초점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며, 초점민감연산자인 ‘only(只/只有/只是)’와 공기할 때에도 진리치가 달라진다. 즉, (39a)의 경우 문장의 의미는 ‘칼이 좋아하는 것은 오직 Herring 맥주이다’가 되지만, (39b)의 경우에는 ‘오직 칼이 Herring 맥주를 좋아한다’가 된다.

Lee&Pan(2001), 董秀芳(2003), 徐烈炯(2005), 祁峰(2012)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부정사 ‘不’와 ‘没’를 초점연산자로 보았다. 또한,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대조초점은 화자가 강조하려는 부분으로서 강세를 동반하며, 이러한 대조초점이 어느 위치에 출현하는지에 따라 문장의 진리치가 달라진다. 즉,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대조초점은 ‘没’의 의미적 초점으로 볼 수 있으며 ‘没’의 부정초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40) a. 他[马上]_F照办了。

그는 바로 그대로 처리했어요.

- b. 他[马上照办]_F了。

그는 바로 그대로 처리했어요.

- (41) a. 他并没马上照办, 还要追问为什么。(罗曼·罗兰, 『约翰·克利斯朵夫』)

그는 즉시 따르지 않고 왜 그런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 b. 他没马上明白他是谁, 在什么地方, 在哪个世界。他突然想起来……(帕斯捷尔纳克, 『日瓦戈医生』)

그는 그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떤 세상에 있는지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40a)와 (40b)의 경우 긍정형식이기 때문에 진리치에는 차이가 없으며 모두 ‘照办了’를 의미한다. 그러나 (41a)와 (41b)의 경우에는 초점민감연산자인 부정사 ‘没’가 출현하기 때문에 문장의 진리치에 차이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41a)에서 ‘他并没马上照办’은 ‘马上’이 대조초점이 아니므로 ‘그가 전혀 그대로 하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반면, (41b)의 ‘他没马上明白他是谁’는 문맥에 ‘他忽然想起来’가 있기 때문에 ‘马上’이 강세를 가진 대조초점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초점민감연산자인 부정사 ‘没’는 의미적으로 대조초점 ‘马上’만 부정하게 되며 문장의 의미는 ‘알게 되었지만 그때 바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요약하면, 초점민감연산자인 부정사 ‘没’의 뒤에 대조초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정사 ‘没’는 뒤에 대조초점이 출현하는 경우 특정한 논리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 대조초점을 단독으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부정사 ‘没’의 뒤에 대조초점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첫 번째 요인으로 판단된다.

3.3.2 부정사 ‘没’의 문법적 특징

부정사 ‘没’는 문법적 특징으로 인해 전체 사건의 발생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没’와 ‘不’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은 ‘没’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侯瑞芬(2016:305-306)의 주장에 따르면 ‘不’와 ‘没’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不’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부정할 경우 성질을 부정하지만, ‘没’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부정할 경우 존현을 부정한다. 또한, ‘不’가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비(是非)’에 대한 주관부정으로서 행위의 성질을 부정한다. 그러나 ‘没’는 사변성(事变性), 즉 사건의 유무를 주시한다. 侯瑞芬(2016)는 (42a)~(42c)를 통해 ‘不’와 ‘没’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不’가 동사 ‘成文’, 형용사 ‘黄’, 명사 ‘男人’를 부정할 경우 모두 성질을 부정하지만, ‘没’가 이들 성분을 부정할 경우 모두 동작, 사건, 사물의 존현을 부정한다고 언급하였다.

(42) a. 不成文/没成文

비성문/성문화하지 않음

b. (树叶)不黄/(树叶)没黄

(나뭇잎이) 노랗지 않다/(나뭇잎이) 노랗게 변하지 않았다

c. 小王真不男人/小王真没男人气。

샤오왕은 정말 남자답지 않아요/샤오왕은 남자다운 기개가 없어요.

(侯瑞芬, 2016:305-306)

다음으로 张时阳(2006:61)에 따르면 ‘没’와 ‘不’의 주요 차이점은 ‘没’의 경우 동태적 단어만 부정하지만, ‘不’의 경우에는 정태적 단어를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43a)에서 ‘打’, ‘哭’, ‘买’, ‘学习’, ‘讨论’은 모두 동태적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不’로 부정될 수도 있고, ‘没’로 부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43b)에서는 형용사 ‘高兴’, ‘幸福’, ‘伟大’, ‘漂亮’, ‘矮’, ‘重’이 모두 정태적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不’로만 부정되며, ‘没’로는 부정될 수 없다. 또한, (43c)와 같이 일부 형용사도 ‘没’에 의해 부정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정태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 변화를 나타낸다.

(43) a. 没打/ 没哭/ 没买/ 没学习/ 没讨论

때리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사지 않았다/ 공부하지 않았다/ 토론하지 않았다

b. *没高兴/ *没幸福/ *没伟大/ *没漂亮/ *没矮

不高兴 不幸福 不伟大 不漂亮 不矮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위대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작지 않다

c. 没红/ 没胖/ 没好

붉게 변하지 않았다/ 뚱뚱해지지 않았다/ 좋아지지 않았다

(张时阳, 2006:61)

朱德熙(1982, 2015:140)의 부사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그는 부사어를 술어 성분의 수식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부사어의 주요한 문법적 특징을 중심어에 대한 한정과 묘사로 보았다. 또한, 侯瑞芬(2016)과 张时阳(2006)의 견해에 따르면 부정사 ‘没’는 주로 존현과 동태적 성질의 단어를 부정한다. 따라서 부사어는 사변성과 동태적 특성의 측면에서 술어 성분보다 약하며 술어 성분의 수식어로서 술어와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된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서 대부분의 부사어는 부정사 ‘没’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으며,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부사어를 부정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44) a. 已经很久没认真听人说话了。(村上春树, 『1973年的弹子球』)
이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은 지 오래되었어요.
b. *没认真/不认真

(44a)를 보면 부정사 ‘没’는 ‘认真’만을 부정하며 문장의 의미는 ‘사람의 말을 듣기는 하는데, 진지하게 듣지는 않았다’로 해석된다. 그러나 (44b)을 보면 부정사 ‘没’는 ‘认真’을 직접적으로 부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没’가 일반적으로 존재와 동태의 자질을 갖는 어휘들을 부정하기 때문이며 ‘认真’은 정태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44a)의 경우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부사어 ‘认真’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3.3.3 부사어와 술어 간의 시간적 관계

부사어는 술어와의 시간적 관계에 근거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부사어는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발생 및 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로 주어의 태도, 모습, 표정을 묘사하는 모습 부사어, 사건 발생의 시간, 장소, 방식, 방법, 범위, 시작, 경로, 방향, 조건, 원인, 목적·근거를 소개하는 부사어, 동작과 관련된 도구, 재료, 협동, 대상을 설명하는 부사어, 비유 및 부정 부사어가 포함된다. 이러한 부사어들은 모두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배경과 조건을 의미하며 시간축에서 술어 사건에 선행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현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45) a. 夏衍同志……并没老气横秋地只顾卖弄自己的风格。(老舍, 『风格与局限』)
샤옌둥지는...노티를 내면서 자신의 품격을 과시하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b. 我开始后悔没在早上出门时透露自己要去哪里了。(吉姆·林奇, 『少年迈尔斯的海』)
그는 즉시 따르지 않고 왜 그런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 c. 我没在鱼线上安重物, 因此很难把它抛到小鸟的近旁。(杨·马特尔, 『少年的奇幻漂流』)
저는 낚싯줄에 무게추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새 근처로 던지기가 어려웠어요.
- d. 老丁还没从县里告官回来。(刘震云, 『一句顶一万句』)
라오딩은 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 e. 你没用抽条抽他吗?(奥斯特洛夫斯基, 『钢铁是怎样炼成的』)
당신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 않았나요?
- f. 以前觉得没有必要提起这些家常琐事, 所以没对大家说。(萨克雷, 『名利场』)
예전에는 이런 사소한 얘기까지 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 g. 底层客厅并没按惯例张灯结彩。(谭恩美, 『喜福会』)
하층 거실은 관례에 따라 등불과 장식을 걸지 않았어요.
- h. 他们没不开会, 从八点钟就跟我在一起喝酒。(米切尔, 『飘』)
그들이 회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8시부터 저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또한, 이러한 유형의 부사어는 모두 보어로 전환이 불가능하며, 술어 시간 진행과 완성 여부와 무관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45a)에서 ‘老气横秋地只顾卖弄自己的风格’는 보어형식인 ‘卖弄得老气横秋’로 전환할 수 없다. 이러한 유형의 부사어 중 일부는 (45b)~(45g)에서 ‘在早上出门时’, ‘在鱼线上’, ‘从县里’, ‘用抽条’, ‘对大家’, ‘按惯例’와 같이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발생 배경, 조건, 방향 및 방식을 설명한다. 또 일부는 ‘老气横秋地’와 같이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됨을 설명한다. 이 외에도 (45h)에서 ‘不开会’와 같이 술어 사건의 미발생을 설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의 부사어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주어이며 이러한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행위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해당 유형의 부사어 중에서 전치사구 부사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전치사구 부사어에는 시간, 장소, 시작, 경로, 방향, 도구, 방법, 재료, 협동, 대상, 원인·목적, 근거, 범위 부사어가 포함된다. 이러한 전치사구 부사어가 시간상 술어 사건에 선행하는 것은 문법화 과정과 관련이 있다. 张旺熹(2004:10)는 중국어 전치사의 파생 기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국어에는 통사·

의미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비종결동사(非终结动词)가 존재한다. 이러한 비종결동사가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뒤에 다른 동사구를 부가함으로써 연동 구조 혹은 겹어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비종결동사는 언어 구조 체계에서 주종관계원칙(主从关系原则)에 따라 의미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사의 의미가 저하될수록 전치사로의 문법화 정도는 높아진다. 전치사의 문법화 과정을 보면, 전치사는 동사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연동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연동문에서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 전후’ 혹은 ‘사건의 상황’을 나타낸다. 전치사구는 연동 구조에서 ‘사건 발생 전후’의 의미가 잔존하기 때문에 시간 서열상 전치사구가 나타내는 사건이 술어 사건을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완전히 문법화된 전치사구는 술어의 한 부분으로서 주로 술어 사건의 배경과 조건을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전치사구 부사어는 부정사 ‘没’의 앞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되는 것은 전치사구를 제외한 나머지 술어 부분이다. 또한, 전치사구 부사어는 부정사 ‘没’ 뒤에도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치사구를 포함한 술어 전체가 ‘没’에 의해 부정된다. 아래 예문을 보자.

- (46) a. 他最近没在图书馆学习, 每天出去打工。
그는 최근에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고, 매일 아르바이트하러 갔어요.
b. 他最近在图书馆没学习, 一直玩手机。
그는 최근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하지 않고, 줄곧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놀았어요.
- (47) a. 他们没因为他年龄大解雇他, 他能一直在这儿干到老。
그들은 그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를 해고하지 않았으며, 그는 계속 해서 여기에서 일하며 노년까지 일할 수 있어요.
b. 他们因为他年龄大没解雇他, 公司很需要经验丰富的员工。
그들은 그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를 해고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경험 많은 직원을 매우 필요로 해요.

(46b)와 (47b)는 ‘在图书馆’과 ‘因为年龄’이 부정사 ‘没’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로서 ‘已在图书馆, 但没学习’, ‘因为年龄大, 所以没解雇他’의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 (46a)와 (47a)는 ‘在图书馆’과 ‘因为年龄’이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부정사 ‘没’는 전체 술어 성분인 ‘在图书馆学习’와 ‘因为年龄解雇他’를 부정한다.

일부 전치사구 부사어는 부정사 ‘没’의 뒤에만 출현한다.

- (48) a. 无论如何,妈妈得跟我们父子同车回雅典, 因为那两个希腊摄影师没在停车场等她。(乔斯坦·贾德, 『纸牌的秘密』)
 어쨌든, 엄마는 우리 부자랑 함께 차를 타고 아테네로 돌아와야 하는데, 왜냐하면 두 명의 그리스 사진작가들이 그녀를 주차장에서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b. *无论如何,妈妈得跟我们父子同车回雅典, 因为那两个希腊摄影师在停车场没等她。
- (49) a. 她又打开了煤气, 但是没用火柴去点。(西奥多·德莱塞, 『嘉莉妹妹』)
 그녀는 가스레인을 다시 켜지만, 성냥으로 점화하지 않았어요.
- b. *她又打开了煤气, 但是用火柴没去点。

(48)과 (49)에서 ‘在停车场’, ‘用火柴’는 부정사 ‘没’의 뒤와 동사의 앞에만 출현할 수 있으며 부정사 ‘没’의 앞에는 출현할 수 없고, 각각 사건 ‘在停车场等她’, ‘用火柴去点’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¹³⁾

따라서 전치사구의 문법화 과정 측면에서 보면, 전치사구는 술어동사 앞의 사건으로서 주로 사건의 배경과 조건을 소개하는 기능을 하며,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경우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¹⁴⁾

두 번째 유형의 부사어는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발생 및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특징, 상태, 발생 빈도, 발생 범위, 실현 정도 등의 측면에서 술어를 수식하고 한정한다. 이러한 유형에는 주로 특징, 상태, 일부 시간(부사), 범위(부사), 정도, 연관 등의 부사어가 포함된다. 아래 예문을 보자.

13) 부정사 ‘没’의 뒤와 술어동사의 앞에만 출현하는 전치사구는 3.3.4 절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14) 이 부분에서 고찰하는 부사어는 모두 비대조초점의 경우이다. 만일 부사어에 강세가 실려 대조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다른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부정초점으로 기능한다.

- (50) a. “我连一根头发也寻不见。”“你没仔细寻嘛！”(陈忠实, 『白鹿原』)
 “저는 단 한 올의 머리카락도 보지 못했어요.” “당신이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b. 主要是选种这个关口把守不严, 没细致地选。(『人民日报』, 1964.04.02.)
 중요한 것은 종자를 선택하는 선별 관문이 엄격하지 않아서 세심하게 선별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 c. 她们祖祖辈辈既没吃惯中国菜, 也没经常吃中国菜。(冰心, 『我自己走过的路』)
 그들은 조상 대대로 중국 요리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자주 중국 요리를 먹지도 않았어요.
- d. 也没都卖, 还剩下6个。(毕淑敏, 『最晚的晚报』)
 다 팔리지 않았고, 6개가 남았어요.

이러한 부사어들은 일반적으로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완성된 이후의 상태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중 일부 형용사 부사어는 보어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a)와 (50b)에서 ‘仔细寻’, ‘细致地选’은 모두 상응하는 보어형식인 ‘寻得很仔细’, ‘选得很细致’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사어들을 보어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인은 해당 유형의 부사어가 사건 발생 전의 상태를 묘사하지 않고, 사건 발생 시 혹은 완성된 이후의 상태를 묘사하기 때문이다.¹⁵⁾ 또 다른 부사어는 술어 사건의 발생 범위, 발생 빈도, 실현 정도를 한정한다. (50c)와 (50d)를 보면 ‘经常’는 술어 ‘吃’의 발생 빈도를 한정하고, ‘都’는 술어 ‘卖’의 실현 정도를 한정한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첫 번째 유형의 부사어는 술어가 발생하는 시간적 배경과 조건을 묘사한다. 해당 유형의 부사어가 부정사 ‘没’의 앞에 출현할 경우 ‘没’에 의해 부정되는 것은 전치사구를 제외한 나머지 술어 부분이다. 반면, 해당 유형의 부사어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경우에는 전치사구를 포함한 술어 전체가 ‘没’에 의해 부정된다. 두 번째 유형의 부사어는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여 술어 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범위, 빈도, 상태, 실현 정도를 한정한다.

15) 부사어에 상응하는 보어형식에는 주로 결과보어와 상태보어이다. 이 두 유형의 보어는 사건 완료 이후의 결과나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사건의 상태를 설명한다. 보어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논의하고자 한다.

다. 이러한 부사어들은 술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출현하여 사건을 한정하기 때문에, 술어 사건은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될 수 없으며 부정사 ‘没’는 부사어만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3.3.4 부사어의 분포

朴正九(1997:188)는 부정사와 10여 종의 전치사 분포를 조사한 결과, 행위자, 대상, 비교, 수반, 도구를 도입하는 전치사는 부정사의 뒤에만 출현할 수 있는 반면, 근거, 원인, 목적, 장소, 시간을 도입하는 전치사는 주어 앞, 주어와 부정사의 사이, 부정사와 동사의 사이에 모두 출현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전치사의 분포를 전치사와 술어 사이의 ‘선택제한(selection restriction)’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 예문을 보자.

- (51) a. 从这个学期, 我们使用了新的教材。
 이번 학기부터, 우리는 새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b. *从美国他回来了。 → 他从美国回来了。

(朴正九, 1997:188)

(51a)에서 전치사구 ‘从这个学期’는 동사 ‘使用’과 의미적으로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의 앞에 출현할 수 있다. 반면, (51b)에서 전치사구 ‘从美国’는 동사 ‘回来’와 의미적으로 밀접하기 때문에 부정사의 뒤에만 출현할 수 있다. 일부 전치사구가 부정사의 뒤와 동사의 앞에만 위치하는 이유는 전치사구가 후행하는 술어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朴正九(1997)의 이론에 근거하여 부정사 ‘没’와 부사어가 공기하는 문장에서 각 유형의 부사어가 어느 위치에 출현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표3-5] 유형별 부사어의 출현 위치

부사어 유형		부사어 예	주어 앞	주어와 부정사의 사이	부정사와 동사의 사이
묘사성	특 징	少/完全/一一	-	±	+
	상 태	露骨地/冒昧地	-	-	+
	모 습	稀里糊涂地	-	-	+
비묘사성	시 간	N/P:今天/在/常/同时	+	+	+
		D:马上/立刻/一直	-	- (一直+)	+
	장 소	在	+	+	+
	시 작	从	-	-	+
	경 로	从/顺着/沿着	-	-	+
	방 향	往	-	-	+
	도 구	用/拿	-	-	+
	방 법	以	-	-	+
	재 료	用	-	-	+
	협 동	和/跟/与	-	- (상호 작용류 V+)	+
	대 상	和/跟/向/对	-	-	+
	원인목적	因为	+	+	+
	근 거	按/按照	+	+	+
	범위전치사	在……中/内/里	+	+	+
	범위부사	총괄의미:都/全/总	-	+	+
		제한의미:只/光	-	-	+
	연 관	再	-	+	+
	부 정	不	-	-	+
	정 도	很/太/十分/特别	-	- (真+)	+

위의 표를 통해 부사어의 위치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흰색 부분처럼 부사어가 부정사 ‘没’의 뒤, 동사의 앞에만 위치하는 경우이며 상태, 모습, 시작, 시간(부사), 경로, 방향, 도구, 방법, 재료, 협동, 대상, 범위(부사), 부정 등의 부사어가 있다. 그중 상태, 모습, 시간, 일부 범위(부사),

부정 부사어는 뒷장에서 별도로 설명할 것이다. 기타 유형의 부사어는 모두 술어와 의미상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정사 ‘没’의 뒤에만 출현할 수 있다. 이런 부사어들과 동사는 의미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술어 전체가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52) a. 我从家里出来就没从后面的香蕉园抄近道。(特威西格耶·杰克逊, 『那卡的曙光』)
 저는 집을 나와서부터 바나나 뒷밭을 거쳐 지름길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 b. 泰山看见这两个怪人没跟他走, 便又返了回来, 打断了他们这种没完没了的争论。(埃德加·赖斯·巴勒斯, 『人猿泰山』)
 타이산은 이 두 괴짜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끝없는 논쟁을 끊어버렸어요.

(52a)와 (52b)에서 부사어와 후행하는 동사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만일 부정사 ‘没’의 앞에 출현한다면 비문이 된다. 이 두 문장에서 부정사 ‘没’가 부정하는 것은 각각 경로 부사어‘从后面的香蕉园’과 대상 부사어‘跟他’를 부합된 전체 술어가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연한 회색 부분과 같이 부사어의 위치가 상당히 유연해서 주어의 앞, 혹은 부정사 ‘没’의 전후에 모두 출현할 수 있는 경우이며 시간(명사/전치사), 장소, 원인, 목적, 근거, 범위(전치사) 등의 부사어가 있다. 이런 유형의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술어 성분도 수식할 수 있고, 문두에 위치하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유연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사어가 부정사 ‘没’의 앞에 출현하는지, 혹은 뒤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53) a. 因为她, 我没取消这次旅行。
 그녀 덕분에, 저는 이 여행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 b. 我没因为她取消这次旅行。
 저는 그녀 때문에 이번 여행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 c. 我不是因为她取消这次旅行的。

저는 그녀 때문에 이번 여행을 취소한 게 아니에요.

(53a)와 (53b)는 모두 ‘没取消旅行’을 의미하지만, (53a)는 화자가 여행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녀 때문에 화자가 여행을 취소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53b)는 화자가 그녀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문을 통해 부사어의 위치는 상당히 유연하며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사어와 동사가 모두 부정됨을 알 수 있다. 즉, 부정사 ‘没’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과 사건의 발생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동사를 수식하거나 제한하는 부사어 성분도 부정한다. 만일 부사어 ‘因为她’만 부정하려면 (53c)과 같이 ‘我不是因为她取消这次旅行的’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부사어가 출현하는 위치는 상당히 유연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사 ‘没’의 뒤, 동사의 앞에 출현하는 것이 가장 무표적인 형식이며 출현빈도 역시 가장 높다. 그러나 명사성 시간 부사어는 특수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주어의 앞과 뒤에 출현하여 전체 사건이 발생했는지, 또는 발생하지 않았는지와 관련된 시간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명사성 시간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대조초점인 경우에만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유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부정사 ‘没’는 뒤에 출현하는 대조초점인 시간 부사어를 부정한다. 아래의 (54)에서 부정사 ‘没’는 대조초점인 ‘冬天’을 부정하며 ‘穿短裤和汗衫在家里了, 但不是在冬天’을 의미한다.

(54) 我活20多年也没冬天穿短裤和汗衫在家里啊。(微博)

저는 20여년 동안 살면서 겨울에 집에서 반바지랑 얇은 옷을 입은 적은 없어요.

세 번째 유형은 진한 회색 부분과 같이 부사어가 주어의 앞에는 출현할 수 없지만, 부정사 ‘没’의 앞과 뒤에는 출현할 수 있는 경우이다. 주로 ‘完全’과 같은 일부 특징 부사어, ‘都’, ‘全’, ‘总’ 등과 같은 일부 범위 부사어(부사), ‘一直’와 같은 일부 시간 부사어(부사), ‘再’와 같은 연관 부사어, ‘十分’, ‘特别’ 등과 같은 정도 부사어가 포함된다. 이러한 부사어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해당 유형의 부사어는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될 수 있으며, 부정사의 앞에 출현할 경우 부정사를 포함한 술어를 한정할 수도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55) a. 我没完全明白。
저는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요.)
b. 我完全没明白。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 (56) a. 东西没都准备。
물건이 다 준비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준비되었어요.)
b. 东西都没准备。
물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55a)와 (56a)에서 부정사 ‘没’는 ‘完全’, ‘都’ 등 부사어를 부정하지만, (55b)와 (56b)에서 부사어 성분 ‘完全’, ‘都’는 각각 부정사를 포함한 술어 ‘没明白’, ‘没准备’를 한정한다.

둘째, 이런 부사어는 모두 양(量)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런 부사어는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경우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¹⁶⁾

이상의 분석을 통해 부사어의 분포는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부사어와 술어 간의 ‘선택제한’ 원칙에 따르면 모습, 시작, 경로, 방향, 도구, 방법, 재료, 협동, 대상 등의 부사어는 의미적으로 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부정사 ‘没’가 부사어를 포함한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분포적으로 비

16) 연관 부사어 ‘再’는 다음의 특수한 의미로 인해 양과 관련이 있더라도 기타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再’는 반복의 양(量)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사 ‘没’는 부사어 ‘再’를 부정하면서 술어 사건도 동시에 부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他们一路没再说话。(老舍, 『鼓书艺人』)’는 ‘他们曾经说过话,但这一路没说话’를 의미한다. 만약에 부정사 ‘没’가 ‘再’만을 부정한다면, 이 예문은 ‘他们一路没再说话,但说话了’와 같은 비문이 된다.

교적 유연한 시간(명사, 전치사), 장소, 원인·목적, 근거, 범위(전치사) 등의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의 조건과 배경을 소개하며 부정사 ‘没’의 앞 혹은 뒤에 출현하는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한 부사어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경우 일반적으로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반면, ‘没’의 앞에 출현할 경우에는 동사구만을 부정하며 부사어는 부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일부 특징 부사어, 일부 범위 부사어(부사), 일부 시간 부사어(부사), 연관 부사어는 모두 양(量)과 관련이 있으며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된 경향이 있다.

3.3.5 부사어의 양적 특징

우선, 李宇明(2000:30-71)은 ‘양(量)’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양(量)’은 인간이 세계를 파악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사물(사람, 동물 포함), 사건, 성질, 상태 등은 인간의 인지 세계에서 모두 ‘양’의 속성을 갖는다. 李宇明(2000)은 양의 범주를 물량(物量), 공간량(空间量), 시간량(时间量), 동작량(动作量), 등급량(级次量), 어세(语势) 등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물량은 사물의 수량을 계산하는 양의 범주로서 주로 명사와 관련이 있다. 물량의 표현 방식은 주로 수량구, ‘许多’, ‘好多’, ‘好些’, ‘若干’과 같은 일부 특수 단어, 수사, 양사, 수량 중첩 등이 있다. 공간량은 사물의 길이(길이, 높이, 깊이, 원근, 두께 등 포함), 면적, 체적(용적 포함) 및 사물 간 거리를 측정하는 양의 범주이다. 공간량을 표현하는 방식은 주로 양사, ‘面积’, ‘大小’, ‘深’와 같은 표현, ‘见方’, ‘相距’와 같은 기타 표지 기능이 있는 단어, 비교, 거리 등이 있다. 시간량은 사물, 성질·형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양의 범주이다. 사물과 성질·형상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변화하며, 사건은 시간 속에서 발생, 발전, 종료하기 때문에, 인간은 세계를 이해하거나, 파악하거나, 표현하려면 양의 관점에서 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시간량은 시간대와 시점을 포함한다. 시점은 자체로 시간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량을 표현할 수 있다. 사물과 관련된 시간량은 주로 사물이 존재하는 시간과 나이를 측정하고, 성질·형상과 관련된 시간량은 주로 특정 성질·형상이 출현하거나 지속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사물과

관련된 시간량은 사물의 형성, 존재(지속 포함), 완료(소실 포함) 등과 관련된 시간량을 측정한다. 동작량은 동작·행위와 관련한 강도, 관련 범위, 활동 폭, 반복 횟수, 지속 시간을 측정하는 양의 범주이다. 동작량은 동작과 관련된 시간량, 동작의 반복 횟수, 동작의 강도를 포함한다. 동작의 반복량은 동량사로 표현되는 동작·행위의 반복 횟수가 대표적이며 ‘上’, ‘下’, ‘这’, ‘那+동량사’로 표현되는 순서, ‘反复’, ‘不断’, ‘又’, ‘再’, ‘一再’, ‘连连’, ‘一连’과 같은 빈도와 지속성을 나타내는 단어, 일부 특정 형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동작의 강도는 주로 동작의 역량, 동작·행위가 미치는 범위와 대상 등을 포함한다. 부사어와 보어는 동작의 강도를 나타내는 주요 문법적 수단이다. 등급량은 동일한 차원에서 양 혹은 등급의 차이로 형성되는 서열이다. 마지막으로 어세는 언어적인 감정의 양을 반영하며 주로 문장 구조, 구문 유형, 구문 형식, 단어 선택, 수사법, 음성 형식(어조, 강세, 멈춤, 리듬 등)으로 표현된다.

양의 범주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수량, 시간, 공간, 동작의 범위와 정도, 심지어 감정 등도 포함한다. 인간은 모두 양의 형식을 빌려서 세상을 느끼거나 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양을 표현하는 수단에는 수사와 양사뿐만 아니라 명사, 대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어기조사, 관용어, 특수구조 등도 포함된다. 또한, 양의 성분은 문장에서 주어, 술어, 목적어, 수식어, 부사어, 보어 등 위치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본고는 부사어가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지의 여부는 부사어의 품사 유형에 상관없이 양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정사 ‘没’는 양(量)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戴耀晶(2015:1-2)에 따르면 긍정과 부정은 모두 질(质)과 양(量)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질의 긍정은 의미적으로 ‘존재’를 긍정하고, 양의 긍정은 의미적으로 ‘수량’을 긍정한다. 부정도 질의 부정과 양의 부정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질의 부정은 사물의 존재 혹은 사건의 발생을 부정하고, 무(无)를 의미한다. 양의 부정은 사물 혹은 사건과 관련된 규정 수량을 부정하고, ‘...보다 적다(少于)’의 의미를 함축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57) a. 林涛去过新疆。

린타오는 신장에 가 본 적이 있어요.

- b. 林涛没去过新疆。(질의 부정: 무)

린타오는 신장에 가 본 적이 없어요.

- (58) a. 林涛去过三次新疆。

린타오는 신장에 세 번 가 보았어요.

- b. 林涛没去过三次新疆。(양의 부정: ...보다 적다)

린타오는 신장에 세 번 가 본 것이 아니에요.

(戴耀晶, 2015:1-2)

(57b)는 질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건 ‘去新疆’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58b)는 ‘린타오가 신장에 가본 횟수가 세 번보다 적다’를 의미한다.

또한, 张谊生(2006)은 주관화 이론에 근거하여 부정사 ‘没’와 ‘不’가 이미 주관성 표지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부정사는 전달기능의 관점에서 화자의 주관적 양태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양의 표지이고, 객관적인 양을 감소시키는 주관적 평가의 기능이 있으며 일종의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이다. 아울러, 张谊生(2006)은 부정사 ‘没’와 ‘不’가 이미 주관적 표지가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유력한 증거로 모든 감량 표지문이 그에 상응하는 무표적 형식과 비교할 때에 더 강한 주체의식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59) a. 不知为什么, 她来了几天就要回去。

영문은 모르겠지만, 그녀는 온 지 몇 일 되자 돌아가야 했어요.

- b. 不知为什么, 他来了没几天就要回去。

영문은 모르겠지만, 그는 온 지 몇 일 되지 않아서 돌아가야 했어요.

- (60) a. 他修得很顺利, 一会儿就全修好了。

그는 매우 순조롭게 수리했어요. 잠시 후에 모두 다 고쳤어요.

- b. 他修得很顺利, 不一会儿就全修好了。

그는 매우 순조롭게 수리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다 고쳤다.

(张谊生, 2006:130)

(59a)와 (59b), (60a)와 (60b)는 진리치에서 차이가 없고, 부정사 ‘没’와 ‘不’를 생략할 수 있지만, (59b)와 (60b)는 문장의 전체와 전달 효과의 측면에서 무표적

인 형식의 (59a)와 (60a)보다 주관성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

부사어가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지의 여부는 부사어의 주관량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61) a. 我们请人做了一个弥撒, 可没少花钱呀! (缪塞,《一个世纪儿的忏悔》)
우리는 미사를 부탁하면서, 정말 돈을 적지 않게 썼어요!
- b. 老王和小张没都来。
라오왕과 샤오장이 다 오지는 않았어요.
- c. 在科学上出现过很多种理论和说法, 但是都没完满地解释它。
과학에서는 많은 이론과 주장이 출현하지만, 모두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어요.
- d. 她并没向她的顾客们索取什么交易税。
그녀는 고객들에게 무슨 거래세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61a)와 (61b)에서 부사어 ‘少’와 ‘都’는 각각 양과 범위를 나타내며, 주관량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될 수 있다. 일부 부사어는 술어 사건을 묘사하거나 제한하여 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61c)에서 부사어 ‘完满地’는 동사 ‘解释’의 실현 정도를 묘사하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된다. 그러나 (61d)에서 ‘向她的顾客们’은 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정사 ‘没’가 전체 술어를 부정한다.

부정사 ‘没’는 양에 민감하기 때문에, ‘没’의 부정초점은 부사어의 주관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양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중심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3.5.1 부사성 범위 부사어

BCC 코퍼스를 통해 추출한 예문 중 ‘没’의 뒤에 부사성 범위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는 주로 ‘都’, ‘全’, ‘只’, ‘光’ 등이 있으며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그 이유를 범위부사 역시 양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尹洪波(2008:51)에 따르면, 범위부사는 부사 중에서 전형적인 양성부사(量性副词)로서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범위부사

는 객관적인 양과 주관적인 양을 모두 나타낼 수 있으며 대량과 소량도 나타낼 수 있다. 张谊生(2006)도 부정사 ‘没’를 주관적 감량표지(减量标记)로 간주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62a)와 (62b)는 각각 ‘내가 먹은 것이 세 그릇도 안 된다’, ‘내가 산 책은 몇 권 안 된다’를 의미한다.

- (62) a. 我没吃三碗饭。
저는 밥 세 그릇을 먹지 않았어요.
b. 我没买几本书。
저는 책 몇 권밖에 사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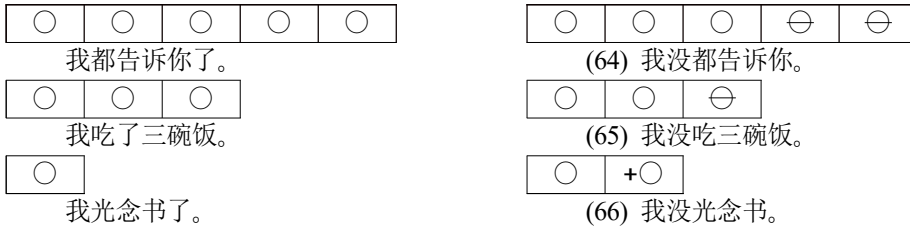
(张谊生, 2006:130)

그러나 실제로 양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범위부사는 부정사 ‘没’ 뒤에 출현할 경우 총괄과 제한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사 ‘没’는 주관감량(主观减量)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관증량(主观增量)도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63) a. 我没都告诉你。没告诉你主要的。(帕斯捷尔纳克, 『日瓦格医生』)
저는 당신한테 다 말한 건 아니에요. 당신한테 중요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b. 实际上, 我点头时并没全懂。(王朔, 『空中小姐』)
사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때 전부 이해했던 것은 아니에요.
c. 我没只怨你呀, 俩人的事, 俩人的事。(牛天赐传, 『老舍』)
저는 당신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문제, 두 사람의 문제라고요.
d. 我这儿也没光念书! (老舍, 『全家福』)
전, 여기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63a)와 (63b)에서 부정사 ‘没’는 주관감량을 나타내며 각각 ‘일부만 너에게 말했다’, ‘일부만 이해했다’로 해석되지만, (63c)와 (63d)의 경우에는 부정사 ‘没’가 주관증량을 나타내며 각각 ‘원망하는 사람이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다’,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것도 했다’로 해석된다.

부정사 ‘没’가 주관증량도 표현할 수 있고, 주관감량도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부정문이 유표적인 구문 형식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자.



[그림3-3] 부정사 ‘没’의 증량 및 감량 의미

(64)~(66)의 전제는 ‘你做什么了?’가 아니라 각각 ‘你(都)告诉我了吧?’, ‘你吃了三碗饭吧?’, ‘你光念书了吗?/你光念书, 没做别的事情吧?’이다. 즉, 화자는 (64)~(66)의 부정문을 사용할 때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한다’, ‘세 그릇을 먹었을 텐데’, ‘공부 말고 다른 일은 안 했다’를 전제로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화자는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집합이 형성된다. 즉, 총괄 의미의 ‘都’와 수량사 ‘三碗’은 모두 전량집합(全量集合)이며 그 앞에 부정사 ‘没’가 출연하면 전량에 미달되었음을 나타내고, 집합의 일부가 제외된 감량의 의미를 형성한다. 제한 의미의 ‘光’은 그 앞에 부정사 ‘没’가 출현하면 예측된 집합에서 공백이었던 ‘别的事’이 채워져 증량의 의미를 형성한다.

요약하자면,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을 증량과 감량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사 ‘没’는 부사성 범위 부사어를 단독으로 부정하는 경형이 있으며, ‘...보다 많다’와 ‘...보다 적다(少于)’의 의미를 나타낸다.

3.3.5.2 정도 부사어

정도 부사어는 부정사의 앞에 출현할 수도 있고 부정사의 뒤에 출현할 수도 있다. 李宇明(2000:265)에 따르면 ‘정도부사+부정사’는 부정의 정도 혹은 부정의 등급으로, ‘부정사+정도부사’는 정도의 부정 혹은 등급의 부정으로 정의된다. 부정사가 정도부사의 앞에 출현할 경우 정도부사는 부정범위 내에 있으며 이때 부정사는 특정 정도의 양을 부정한다. 즉, 부정사는 정도를 하향시켜 낮추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도 부사어는 주관량의 특징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부정사 ‘没’ 뒤에 출현할 경우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67) a. 她并不了解他, 至少还没太了解他。(玛丽卡·乌夫基尔, 『女囚』)
그녀는 그를 몰라요, 적어도 그를 제대로 알지는 못 해요.
- b. 并没十分考虑, 就给我要了冰冷的曼哈顿鸡尾酒。(大江健三郎, 『日常生活的冒险』)
그다지 생각 없이, 차가운 맨하탄 칵테일을 주문해 버렸어요.
- c. 这时太阳还没十分偏西, 坐着车子回到家里, 竟不很晚。(张恨水, 『春明外史』)
그때 해가 아직은 서쪽으로 기울지 않았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의외로 늦은 밤은 아니었어요.

(67a)~(67c)에서 부정사 ‘没’는 각각 정도부사 ‘太’, ‘十分’, ‘十分’을 부정하며 ‘그를 알지만 깊이 알지 못한다’, ‘고려했지만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었지만 많이 기울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BCC 코퍼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 정도부사 중에 66%가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지 않고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사+정도사’의 특수한 의미 기능에서 기인한다. 尹洪波(2008:78)에 따르면, ‘부정어 + 정도어’는 높은 양의 정도를 부정함으로써 낮은 양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언어에는 이미 낮은 양의 정도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활용 목적이 아니면 이러한 구문 형식으로써 낮은 양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구문 형식은 완곡한 표현 방식으로서 부정의미를 표현할 때 예의상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위해 부정사의 뒤에 정도부사를 삽입하여 어조를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 (68) a. 我最近在新闻节目里听过这事, 但我没太注意, 我没想到那就是你。(西德尼·谢尔顿, 『祸起萧墙』)
저는 최근 뉴스에서 이 일을 들었지만,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 b. *我最近在新闻节目里听过这事, 但我稍稍注意了一下, 我没想到那就是你.
- (69) a. 把账还清, 他的皮夹里只剩下了些名片。可是他并没十分介意这个, 他一心净想把六姑娘认识清楚了。(老舍, 『文博士』)

계좌를 모두 갚아서 그의 지갑에는 명함만 남게 됐다. 하지만 그는 이 걸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고, 류양을 제대로 알기 위해 마음을 쏟았다.

- b. *把账还清,他的皮夹里只剩下了些名片。可是他有一点儿介意这个, 他一心净想把六姑娘认识清楚了。

(68a)와 (69a)에서 ‘没太注意’, ‘没十分介意’은 실제로 ‘没注意’, ‘没介意’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도부사 ‘太’, ‘十分’을 생략하여도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68a)(69a)의 ‘没太注意’, ‘没十分介意’는 상응하는 낮은 정도 의미의 (68b)와 (69b)의 ‘稍微注意了一下’, ‘有一点儿介意’로 전환하면 비문이 된다. 즉, ‘没+정도부사’로 구성된 구문은 부정사 ‘没’가 정도부사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여, 술어 사건의 미발생을 나타낸다. ‘没+정도부사’로 구성된 구문은 주관감량을 통해서 완곡한 의미를 얻을 수 있지만, 정도부사가 실제 정도량을 나타내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사 ‘没’의 뒤에 정도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도부사가 실제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로, 이 경우 정도부사는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된다. 두 번째는 정도부사가 실제 정도를 나타내지 않고 완곡의 기능만 나타내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정도부사를 포함한 전체 술어가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된다.

3.3.5.3 시간 부사어

시간 부사어에는 ‘当时’, ‘整天’, ‘冬天’, ‘晚上’, ‘六点’ 등과 같은 명사, ‘曾’, ‘早’, ‘老’, ‘先’, ‘正在’, ‘同时’, ‘立刻’, ‘马上’, ‘常’, ‘经常’, ‘一直’ 등과 같은 부사, ‘在...’, ‘从...’ 등과 같은 전치사구가 있다. 그중 시간의 빈도와 장단을 나타내는 일부 부사들은 시간 명사나 전치사구, 시점을 나타내거나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보다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기가 훨씬 쉽다. 그 이유는 시간의 빈도와 장단의 주관량이 시점이나 시간의 전후 관계보다 훨씬 더 명확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70) a. 她们祖祖辈辈既没吃惯中国菜, 也没经常吃中国菜。(冰心, 『我自己走过的路』)

그들은 조상 대대로 중국 요리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자주 중국 요리를 먹지도 않았어요.

- b. 我为了“顾全大局”，也没当时驳斥他。但我觉得这帮人实在靠不住。（「人民日报」，1989年08月10日）
저는 대국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당시에 그를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들이 진짜 믿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70a)에서 부정사 ‘没’는 주관량이 강한 시간 부사 ‘经常’만을 부정하지만, (70b)는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 ‘当时’가 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부정사 ‘没’는 ‘当时驳斥他’ 전체를 부정한다.

또한, 아래의 예문을 보면 ‘整天’와 같은 일부 양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의 경우도 주관량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71)에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은 시간 명사인 ‘整天’이 된다.

- (71) 我没整天想着帅锅，都是小攻小受。（微博）

난 멋진 남자를 하루 종일 생각하진 않아, 가끔 생각할 뿐이야.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시간 부사어가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관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문맥이나 구문의 형식이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사어의 의미가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선, 구문의 형식이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간 명사와 시간 부사는 주어의 앞이나 뒤에 출현하며 부정사 ‘没’의 뒤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또한, BCC 코퍼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시간 명사와 시간 부사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예문은 매우 적었으며, 간혹 대조의 문맥이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72) a. 晚上比白天我看到的好看多了，后悔没晚上去。

밤에는 낮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밤에 가지 않은 게 후회돼요.

- b. 好久没六点起床了。

오랜만에 6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72a)와 (72b)는 시간 명사와 시간 부사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晚上’, ‘六点’은 대조초점으로서 각각 ‘白天’, ‘比六点早或晚的时间’과 대조되고, 시간 명사로서 비록 주관량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된다.

다음으로, 문맥이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맥이 동사 사건의 미발생을 함축하는 경우, 부정사 ‘没’는 전체 술어를 부정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73) 李凤文叫杨去干活,杨没马上去,李就狠狠地打了杨二十手板。(「人民日报」, 1951年3月24日)
 리펑웬이 양씨에게 일하라고 했지만, 양씨가 즉시 가지 않아서, 리펑웬이 양씨를 세게 20대 때렸어요.

문맥이 없는 경우 ‘他没马上去’는 ‘갔지만 바로 가지 않았다’를 의미하는지, ‘가지 않았다’를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73)의 문맥을 통해 청자는 ‘리펑웬’이 ‘양씨’을 때린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그 원인은 ‘양씨’이 갔지만 바로 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马上’의 특성을 갖는 행위인 ‘去’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부사어의 의미가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경우는 주로 ‘曾’과 ‘没’가 공기하는 상황이다. ‘曾’은 이전의 행위나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반면 부정사 ‘没’는 ‘이미 발생하였음(已然)’과 ‘이전에 경험하였음(曾经)’을 각각 부정한다. 따라서 양자의 의미상 충돌로 인해 ‘曾’은 부정사 ‘没’의 뒤에만 출현할 수 있으며, ‘没’는 ‘曾’이 아니라 술어 전체를 부정하게 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74) a. 她一夜没曾合眼。(老舍, 『火葬』)
 그녀는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 했어요.
 b. 令尊何署长没曾到天津来。(张恨水, 『啼笑因缘』)

당신 아버지 허 사장님은 천진에 오신 적이 없으세요.

- c. 老了老了, 没曾想还赶上了好时候。(史铁生, 『奶奶的星星』)

나이 들었지만, 좋은 시절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요.

(74a)에서 부정사 ‘没’는 ‘曾合眼’ 전체를 부정하며 ‘曾’만 부정할 경우 ‘她合眼了, 但没曾合眼’이라는 의미상 충돌이 발생한다. (74b)와 (74c)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사 ‘没’는 ‘曾到天津来’, ‘曾想还赶上了好时候’와 같이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시간 부사어가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지의 여부는 주관량의 영향을 받는다. 즉, ‘常’, ‘经常’등 시간의 빈도와 장단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는 주관량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기타 양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시간 부사어의 경우 단독으로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되는지의 여부는 구조적, 문맥적, 의미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

3.3.5.4 묘사성 부사어

묘사성 부사어는 특징, 상태, 모습 부사어를 포함한다.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후행하는 술어 사건을 수식하고 한정하고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75) a. 小说中没详细写她的婚后生活, 只寥寥几笔就结束了。

소설에서는 결혼 이후 그녀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쓰지 않았고, 몇 마디로 끝내버렸어요.

- b. 我并没完全理解她的意思, 大概是让我早点休息。

저는 그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아마도 저에게 일찍 쉬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 c. 没少喝, 这一瓶多半是我喝的。

적게 마시진 않았어요. 이 병 절반 이상은 제가 마셨어요.

(75a)~(75c)에서 부사어 ‘详细’, ‘完全’, ‘少’는 모두 양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며 각각 ‘写了, 但没详细写’, ‘理解了, 但没完全理解’, ‘喝了, 喝的还不少’를 의미한다.

그러나 BCC 코퍼스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예문도 존재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 (76) 如果哪天没跟他通电话贫嘴几句……就像没按部就班地换洗衣服, 或者打乱了上班规律似的寝食不安。(『科技文献』)
- 만약 어느 날 그와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몇 마디 수다를 떨지 않는다 면... 마치 차례대로 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출근 규칙을 흐트러뜨린 것처럼 잠이 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양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76b)에서 ‘没’는 전체 술어를 부정한다. 그 이유는 (76b)의 부사어 ‘按部就班地’가 ‘和往常一样’의 특수한 의미로 인해 일반 상태 부사어와 달리 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부사어가 양을 나타내는 특징은 모습 부사어가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기 어려운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모습 부사어는 주로 주어를 묘사하며, 동사의 동작, 행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술어 사건에 대하여 양을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모습 부사어는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특징 및 상태 부사어는 후행하는 술어 사건을 수식하고 한정하며 주관량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모습 부사어는 주로 주어를 묘사하며, 술어 사건에 대하여 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술어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3.3.6 묘사성 부사어의 의미지향

묘사성 부사어는 특징, 상태, 모습 부사어를 포함한다. 특징 부사어는 ‘地’와

결합하지만, 상태 부사어는 ‘地’와 결합하지 않는다. 특징 및 상태 부사어는 형식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유형의 부사어가 갖는 공통점은 일반적으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습 의미의 묘사성 형용사 부사어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77) a. 法国政府虽没公开保护他们, 却容许人民作偏袒的帮助。(大仲马, 『基督山伯爵』)
프랑스 정부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보호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이 역성적으로 도움주는 것은 허용했어요.
- b. 退化的原因, 主要是选种这个关口把守不严, 没细致地选。(「人民日报」1964年04月02号)
퇴화의 원인은 주로 선종 단계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세심하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c. 好事先问了问, 没稀里糊涂地成‘座上宾’。(「文汇报」)
다행히 사전에 물어보는 바람에 얼떨결에 상석에 앉지 않았어요.

(77a)와 (77b)에서 특징 부사어 ‘公开’와 상태 부사어 ‘细致地’는 모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며 각각 ‘没公开保护他们, 而是以允许人民做偏袒的帮助的形式保护他们’과 ‘退化的原因不是没选种, 而是选种选得不细致’를 의미한다. 그러나 (77c)에서 모습 부사어 ‘稀里糊涂地’는 ‘成座上宾’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된다.

이러한 차이는 부사어의 의미지향적 특징에 의해 발생한다. 李林泽 (2021:131-132)는 모습 의미의 형용사 부사어를 의미적 특성과 의미 수식 관계에 따라 행위를 묘사하는 형용사(表行形容词), 사물을 묘사하는 형용사(表物形容词), 행위 및 사물을 묘사하는 형용사(表行/表物形容词)로 분류하였다. 표행형용사는 부사어로 사용될 경우 무표적 통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뒤에 출현하는 행위와 동작을 진술하고, 주로 시간, 범위, 속도, 방식, 정도, 태도, 빈도 등의 의미를 표현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78) a. 县运动会在我校顺利举行。
 마을 체육대회가 우리 학교에서 순조롭게 개최되었어요.
- b. 经过几天的反思, 小王深刻认识到自己犯下的错误。
 며칠간의 반성 끝에, 샤오왕은 자신이 범한 과오를 깊이 깨달았어요.
- c. 昨天夜里, 盟军精确打击了邪恶组织的老巢。
 어제 밤, 동맹군은 악당 조직의 거점을 정밀 타격하였어요.

(李林泽, 2021:132)

(78)에서 부사어 ‘顺利’, ‘深刻’, ‘精确’의 의미지향은 모두 그 뒤에 출현하는 동사 ‘举行’, ‘认识’, ‘打击’이다.

행위를 묘사하는 형용사는 부사어로 사용될 경우 의미지향의 전형적인 통사적 역할 측면에서 주어지향(主状语)과 목적어지향(指宾状语)으로 양분할 수 있다. 주어지향 부사어는 주로 주어의 태도, 외모, 정서, 자세, 성격, 상태 등을 묘사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79) a. 掌柜兴高采烈地跑到东家面前报喜。
 가게 매니저는 신이 나서 사장님 면전으로 달려가서는 희소식을 전했어요.
- b. 乌家公子悻悻离去, 完全败在了苏家赘婿脚下。
 우 도련님은 분함을 머금은 채 떠나면서, 수 사위의 발 밑에서 완패하게 되었어요.

(李林泽, 2021:133)

(79a)와 (79b)에서 부사어 ‘兴高采烈地’, ‘悻悻’는 모두 동작과 행위를 진행할 때에 주어 ‘掌柜’, ‘乌家公子’의 상태를 묘사한다.¹⁷⁾

17) 목적어지향 부사어는 주로 목적어에 대한 묘사와 한정을 나타내며 코퍼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런 유형의 부사어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예문은 찾을 수 없었다. 李林泽(2021)에 따르면 목적어지향 부사어는 형용사의 중첩형식으로 쓰이며 목적어에는 수량사가 출현하는 경향이 있고, 주로 상표지 ‘了’, ‘着’와 결합한다. 일반적으로 ‘了’, ‘着’는 ‘没’와 공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지향 부사어가 ‘没’와 공기하는 예문을 코퍼스에서 찾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장에서는 부사어, 수식어, 보어 사이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목적어가 맨명사이거나 대명사인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목적어에 수량 성분이 포함

술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의 상태를 묘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묘사성 형용사 부사어는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수 있는 묘사성 부사어는 대조초점이 아닌 경우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부사어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기 때문에 ‘没’의 뒤에 출현하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우이다. 이런 부사어에는 특징과 상태 부사어가 있다.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주로 동사의 구별적 특징과 동작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80) a. 老婆正不高兴他这么晚才回来, 孩子也没准时接。(刘震云, 『一地鸡毛』)
아내가 그가 이렇게 늦게 돌아와서 기분이 좋지 않고, 아이도 제때에 데리러 오지 않아서 실망했어요.
- b. 退化的原因, 主要是选种这个关口把守不严, 没细致地选。(「人民日报」, 1964年4月2日)
퇴화의 원인은 주로 선종 단계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세심하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c. 在科学上出现过很多理论和说法, 但是都没完满地解释它。(「人民日报」, 1961年1月8日)
과학에서는 많은 이론과 주장이 출현하지만, 모두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어요.

(80a)~(80c)에서 특징 부사어 ‘准时’, 상태 부사어 ‘细致地’, ‘完满地’는 모두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으로서 각각 ‘接孩子了, 但没准时接’, ‘选种了, 但不细致’, ‘解释了, 但不完满’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부사어의 묘사대상이 동작과 행위가 아니라, 주어의 모습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주로 모습 부사어를 가리킨다. 모습 부사어는 의미적으로 행위자를 지향하고, 주어의 성질, 속성, 태도, 표정, 모습 등을 묘사한다. 이러한 부사어는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되는 경우는 본장의 분석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우는 5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81) a. 幸好事先问了问, 没稀里糊涂地成“座上宾”。(「文汇报」)
 다행히 사전에 물어보는 바람에 얼떨결에 상석에 앉지 않았어요.
- b. 可薰只差没连滚带爬地往后逃。(林芷薇, 『谁是我新娘』)
 커쑤은 거의 구르다시피 뒤로 도망칠 뻔했어요.

(81a), (81b)에서 ‘稀里糊涂地’와 ‘连滚带爬地’는 모두 주어의 표정과 태도를 묘사하며 부정사 ‘没’는 부사어가 포함된 전체 술어 성분 ‘稀里糊涂地成座上宾’과 ‘连滚带爬地往后逃’를 부정한다.

모습 부사어는 주어지향의 부사어이기 때문에 술어와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사어는 동작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주어의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기 어렵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82) a. 我没兴高采烈地去见他, 只是给他打了一个电话。
 저는 기분 좋게 그를 만나러 가지 않았고, 그와 전화 한 통화만 했어요.
- b. *我没兴高采烈地去见他, 去得很不情愿。
 c. *我并不是兴高采烈地去见的他, 只是给他打了一个电话。
 d. 我并不是兴高采烈地去见的他, 去得很不情愿。
 저는 기분 좋게 그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별로 마음 내키지 않은 상태로 갔어요.

(82a)를 보면 ‘兴高采烈’는 주어의 표정과 태도를 묘사하고, 부정사 ‘没’는 전체 ‘兴高采烈地去见他’를 부정하므로 문장의 의미는 ‘我没去见他,以兴高采烈的状态’로 해석된다. 따라서 ‘我没兴高采烈地去见他’는 (82a)처럼 뒤에 ‘只是给他打了一个电话’가 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82b)처럼 뒤에 ‘去得很不情愿’이 올 수 없다. 만약에 부사어 ‘兴高采烈’만 부정하려면 (82d)처럼 ‘他并不是兴高采烈地去见的他’로 표현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见他了,但不是兴高采烈的’로 해석되며 (82c)처럼 뒤에 ‘只是给他打了一个电话’가 올 수 없다.

또한,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BCC 코퍼스에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예문이 존재한다. 이런 특수

한 예문에서는 동사의 의미가 부사어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술어동사의 사건이 실현되면 부사어도 동시에 실현된 상태에 있어야 하며, ‘没’가 부사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아래 예문을 보자.

- (83) a. 我有好几个星期一直没有去打它, 也没粗暴地虐待它。(爱伦·坡, 『黑猫』)
저는 몇 주 동안 그것을 때리지도 않았고, 폭력적으로 학대하지도 않았어요.
b. 克丽丝汀好像很久没正式端详那些房舍了。(温赛特, 『克丽丝汀的一生』)
크리스틴은 오랫동안 이 주택을 자세히 관찰하지 못 한 것 같아요.

(83a)에서 동사 ‘虐待’는 ‘粗暴’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될 경우 의미적으로 ‘粗暴’도 함께 부정되어 ‘虐待它了, 但没粗暴地虐待’로 해석될 수 없다. 또한, (83b)에서 동사 ‘端详’는 ‘正式’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될 경우 의미적으로 ‘正式’도 함께 부정되어 ‘端详了, 但没正式端详’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부사어와 동사의 관계는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후행하는 술어 사건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때문에 해당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 이미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모습 부사어는 주어의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동작이 발생하지 않아도 주어를 묘사할 수 있다. 따라서 모습 부사어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3.3.7 이중 부정

范振强, 肖治野(2010:78)는 이중 부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중 부정은 형식적으로 두 개의 부정성분으로 구성되며 한 부정 성분이 다른 부정 성분을 한정한다. 의미적으로는 한 부정 성분이 다른 부정성분을 부정해서 전체 구조가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BCC 코퍼스를 통해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부정사를 검색한 결과 ‘不’가 유일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이중 부정은 의미적으로 술어 사건의 발생, 실현과 같은 긍정의미를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84) a. “你打算闹一夜是不是?”“没不让你睡,你去睡你的吧,瞧你困得那样儿。”(王朔, 『过把瘾就死』)
 “밤새 놀 생각인가요?”“당신이 잠을 못 자게는 안했어요, 어서 가서 자요. 피곤해 보이네요.”
- b. “你说,你到底为什么不理我?”“我没不理你呀。”
 “당신이 말해 봐요. 왜 저를 무시하나요?” “저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 c. 第二天公司为评定组准备了一菜一饭的份饭,他们不但没不满意,饭后还一致赞扬公司做得对。
 다음 날 회사는 평정팀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불만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도 회사가 잘 한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했어요.
- d. 姚伯太太对于他那样晚来拜访觉得纳闷,但是却没不见他。
 야오보 부인은 그가 늦게 찾아온 것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그를 안 만나 주지는 않았어요.

(84a)~(84d)에서 ‘没不让你睡’, ‘没不开会’, ‘没不满意’, ‘没不见他’는 모두 긍정의미의 ‘让你睡’, ‘要开会’, ‘满意’, ‘见他’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Jespersen(1958:517)에 따르면 두 개의 부정사가 동일한 개념 또는 동일한 성분을 부정할 경우에는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반면,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부정사가 상이한 성분을 부정할 경우에는 부정사 간에 상호영향이 없어서 부정적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范振强, 肖治野(2010:78-79)는 중국어에는 ‘부정사+부정사+X=X’와 같은 이상적 이중 부정 형식이 많지 않으며 언어성분의 선형배열(线性排列)과 언어조직의 계층성으로 인하여 두 부정사가 병렬 관계일지라도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没有不喝水’는 ‘没有’가 ‘不喝水’를 부정하고, ‘没有不’가 ‘喝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王力(1984:171)는 중국어에서 두 개의 부정사가 동일한 성분을 부정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의 부정사가 다른 하나의 부정구를 부정해서 긍정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만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정사 ‘没’의 뒤에 부정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는 부정사 ‘没’가 전

체 ‘부정사+술어’를 부정한다. 부정사 ‘没’가 부정 부사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경우는 술어 사건의 발생 혹은 실현을 의미하지만, 부정사 ‘没’가 다른 의미의 부사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경우는 술어 사건의 미실현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다른 부사어는 사건의 배경이나 양을 묘사하지만, 부정 의미의 부사어는 사건과 상태의 존재 여부를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중 부정이 긍정의미를 나타내는데 굳이 긍정문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Jespersen(1958)에 따르면 이중 부정 형식과 긍정형식은 모두 긍정의미를 나타내지만 양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복잡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화자가 상쇄되는 두 개의 부정사로 에둘러 말하기 때문에 청자의 주의력이 분산된다. 또한, 이중 부정 형식은 화자의 망설임을 나타내며 직설적이고 명확한 긍정형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이중 부정문과 긍정문의 정보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화자가 ‘没不做某事’라고 말할 때 실제로 ‘不做某事’라는 심리적 기대가 이미 존재한다. 즉, 이중 부정문의 전제는 이미 부정의미를 함축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85) a. “你打算闹一夜是不是?”“让你睡,你去睡你的吧,瞧你困得那样儿。”
“밤새 놀 생각인가요?”“당신이 잠을 자게 할게요, 어서 가서 자요. 피곤해 보이네요.”
- b. “你说,你到底为什么不理我?”“我理你呀。”
“당신 말이야, 왜 날 무시해?” “나 당신 신경쓰고 있었어요.”
- c. 第二天公司为评定组准备了一菜一饭的份饭,他们不但很满意,饭后还一致赞扬公司做得对。
다음 날 회사는 평가팀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다. 그들은 상당히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식사 후 회사가 잘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했다.
- d. 姚太太对于他那样晚来拜访觉得纳闷,但是却见他了。
야오보 부인은 그가 늦게 찾아온 것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그를 만나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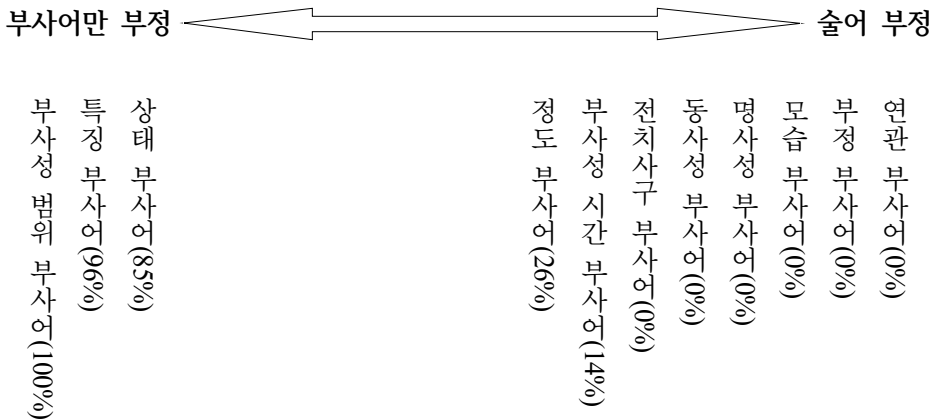
(84a)와 (84b)에서 ‘没不让你睡’와 ‘我没不理你呀’는 부정의미를 함축한 질문 ‘你打算闹一夜是不是?/你不让我睡是不是?’, ‘你为什么不理我?’에 대한 대답

이다. 마찬가지로 (84c)(84d)에서 ‘他们不但没不满意’와 ‘并没不见他’에는 ‘他们会不满意’, ‘姚伯太太会不见他’라는 화자의 심리적 기대가 이미 존재한다. 여기서 화자의 심리적 기대는 예문의 전제로 모두 부정 형식이다. 이러한 예문에서 이중 부정 형식을 상응하는 긍정문으로 전환하면, 어떤 경우에는 (85a), (85b)와 같이 어기가 완화에서 강경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85c), (85d)와 같이 문장의 정보량이 감소하기도 한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부정사 ‘没’는 그 뒤에 부정 부사어가 출현할 경우 전체 술어를 부정함으로써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이중 부정 형식은 전체 문장의 어조를 완화시키는 기능(缓和语气的功能)이 있다.

3.4 소결

부사어가 ‘没’의 뒤에 출현할 경우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분포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3-4]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¹⁸⁾

18) [그림 3-4]의 백분율은 부사어가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비율을 가리킨다.

부정사 ‘没’는 일반적으로 부사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부사어가 명사성, 동사성, 전치사구 부사어일 경우, 연관, 부정, 모습,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혹은 부사성 시간 부사어일 경우에, 부정사 ‘没’는 부사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부사어가 특징 및 상태 부사어, 부사성 범위 부사어일 경우에 부정사 ‘没’는 부사어만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조초점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요인으로서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된다.

둘째, 부정사 ‘没’는 동작과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는 문법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부사어와 술어의 시간적 관계도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전치사구 부사어와 모습 부사어는 술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행위자가 특정 모습으로 동작을 시작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한정한다. 이러한 부사어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경우에는 부사어를 포함한 술어 전체가 ‘没’에 의해 부정된다.

넷째, 시작, 경로, 방향, 도구, 방법, 재료, 협동, 대상의 부사어는 의미적으로 술어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된다.

다섯째,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지의 여부는 부사어의 주관량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사성 시간 부사어, 부사성 범위 부사어, 정도 부사어는 모두 양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부사어로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후행하는 술어 사건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때문에 주관량의 특징이 있으며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모습 부사어는 동작행위를 거의 한정하지 않고 주로 주어의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술어 사건에 대하여 양을 나타내는 특징이 없고,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부사어의 의미지향도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에 기여한다. 모습

부사어는 동작행위를 거의 한정하지 않고 주로 주어의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동작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주어를 묘사할 수 있다. 따라서 모습 부사어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沒’에 의해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그 뒤에 위치한 술어 사건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사행위가 이미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단독으로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부정사 ‘沒’는 뒤에 부정 부사어가 출현할 경우 부정 부사어가 포함된 전체 술어를 부정하며 의미적으로는 술어의 실현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식의 이중 부정은 어조를 완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제4장 보어와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

앞 장에서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보어가 출현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우선 보어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의 보어가 어떠한 상황에서 부정사 ‘沒’와 공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보어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4.1 부정사 ‘沒’와 공기하는 보어의 유형 분류

朱德熙(2015:125-139)는 보어와 목적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보어는 단지 술어 성분에 불과하며 실사가 아니므로, 동작의 결과 혹은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동보구조는 보어와 그 앞에 위치한 동사 간의 거리에 따라 형태적으로 조합식(組合式)과 접합식(粘合式)으로 양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보어를 분류하는 기준과 방식은 다양하다. 陆庆和(2006:363-394)는 보어를 결과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 방향보어, 수량보어로 분류하였다. 朱德熙(2015: 116, 126-137)는 보어를 결과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 방향보어로 분류하였으며 동량목적어, 시량목적어, 수량목적어를 준목적어로 정의하였다. 또한, 朱德熙(2015:113)는 동사의 뒤에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동사성 성분이 출현하는 경우를 처소목적어로 정의하였으며 동사의 뒤에 ‘在’나 ‘到’ 등과 같은 성분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출현하는 경우를 시간목적어로 정의하였다. 黄伯荣(2017:72-76)은 보어를 결과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 방향보어, 수량보어, 시간 및 처소보어로 분류하였다. 胡裕树(2019:296-298)는 보어를 결과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 방향보어, 수량보어로 분류하였다. 刘月华(1983:530-624)는 보어를 결과보어, 상태보어, 가능보어, 방향보어, 수량보어, 전치사구 보어로 분류하였다. 아래는 기존의 연구를 표로 정리한 결과이다.

[표4-1] 기존 연구의 보어 유형

학자	결과	상태	정도	가능	방향	수량	목적어
陆庆和(2006)	+	+	+	+	+	+	-
朱德熙(2015)	+	状态	程度	+	+	准宾语	+
黄伯荣(2017)	+	程度		+	+	+	时处
胡裕树(2019)	+	情态	程度	结果/趋向补语的可能式	+	+	-
刘月华(1983)	+	情态		+	+	+	介词短语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어를 결과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 방향보어, 전치사구 보어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¹⁹⁾

刘月华(2019:531)에 따르면 결과보어는 주로 동작 혹은 상태의 결과를 나타내며 행위자(또는 피행위자)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결과보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형식은 주로 ‘没+V+A’와 ‘没+V+V’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 a. 迎霜想了想, 摇摇头说:“没听清楚, 他们好像在吵架。”(王旭烽, 『茶人三部曲』)
 잉샹은 생각해보고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잘 안 들려요. 그들은 싸우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 b. 破风筝没饿死, 我就得念祖师爷的恩典! (老舍, 『方珍珠』)
 포평정이 굶어 죽지 않았으니, 저는 조상님의 은덕을 기려야겠어요!

(1a)와 (1b)에서 형용사 결과보어 ‘清楚’와 동사 결과보어 ‘死’는 각각 ‘听’과 ‘说’의 결과를 나타낸다.

상태보어는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동작이 특정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나타낸다. 陆庆和(2006:366)에 따르면 상태보어는 주로 동작의 상태를 평가, 판단,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상태보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형식은 ‘没+V+得’가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9)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수량 성분의 경우 수식어 성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朱德熙(2015:116)의 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준목적어로 정의할 것이며 5장에서 수식어와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 (2) a. 多少年来, 没笑得这么畅快。(刘震云, 『一句顶一万句』)
몇 년 동안 이렇게 즐겁게 웃어 본 적이 없어요.
- b. 在孩子们喧闹时, 我来到里院, 当时正值孩子们把那猫送给还没化妆得像工艺品鬼脸样时神态忧郁的鹰子。(大江健三郎, 『日常生活的冒险』)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저는 안뜰로 들어왔어요. 그때 애들은 귀신 얼굴 공예품처럼 화장하지 않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잉즈에게 고양이를 선물하고 있었어요.

(2a)에서 상태보어 ‘这么畅快’는 동작 ‘笑’의 진행 상태를 묘사하고, (2b)에서 상태보어 ‘像工艺品鬼脸样’은 동작 ‘化妆’ 후에 지속되는 상태를 묘사한다.

정도보어는 상황 혹은 동작이 도달한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陆庆和(2006:371)에 따르면 정도보어를 가질 수 있는 술어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일부 성질형용사와 일부 상태동사를 포함한다.²⁰⁾ 정도보어와 부정사 ‘没’가 공존하는 형식은 ‘没+V+得’, ‘没+V+V’가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3) a. 但也没爱到吃饭不下枪的程度。(莫言, 『食草家族』)
하지만 식사 도중 총을 내려놓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진 않아요.
- b. 你没气得发疯吧? (约翰·斯坦贝克, 『愤怒的葡萄』)
당신은 화가 나서 미칠 정도는 아니지요?

(3a), (3b)의 정도보어 ‘吃饭不下枪的程度’와 ‘发疯’은 각각 동사 ‘爱’와 ‘气’가 도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은 가능보어의 경우이다. 陆庆和(2006:386)에 따르면 가능보어는 특정 동작을 완성시키는 조건이나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주관적 및 객관적 조건이 특정 동작의 실현 가능성을 제공하는지의 여부, 결과가 특정 동작을 실행하도록 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가능보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형식은 ‘没+V+

20) 상태 동사에는 일반적으로 ‘饿’, ‘明白’, ‘喜欢’, ‘担心’ 등과 같은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부정사 ‘没’가 형용사와 공기할 경우 주로 ‘我没那么忙’와 같이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得’가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4) a. 刚刚福昌栈的王少东宴客, 指名要她去应局, 她也没去得成. (司马中原, 『狂风沙』)
 방금 푸창잔의 왕 도련님이 연회를 열고, 그녀를 지명해서 접대하도록 했지만, 그녀는 갈 수 없었어요.
- b. 以前那么好的一盆异花都没保护得住, 还买什么美人蕉的?(贾平凹, 『废都』)
 이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화도 지키지 못했는데, 하물며 미인초를 사서 뭐 해요?

(4a), (4b)에서 가능보어 ‘得成’과 ‘得住’는 ‘得’가 각각 그 앞에 출현하는 동사 ‘去’와 ‘保护’의 실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방향보어는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방향의미의 동사를 가리킨다. 방향동사에는 ‘来’, ‘去’와 같은 단순 방향동사와 ‘上来’, ‘下来’, ‘进来’, ‘出来’, ‘回来’, ‘过来’, ‘起来’, ‘上去’, ‘下去’, ‘进去’, ‘出去’, ‘回去’, ‘过去’와 같은 복합 방향동사가 있다. 방향보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형식은 ‘没+V+방향동사’가 있다. 방향보어를 분류하는 방식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방향보어가 출현하는 문장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목적어가 없는 경우, 목적어가 문말에 출현하는 경우, 목적어가 복합 방향동사의 사이에 출현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刘月华(2019:544-546)는 방향보어를 의미적인 측면에서 방향의미, 결과의미, 상태의미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刘月华(2019)의 분류를 바탕으로 방향보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부정초점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²¹⁾

우선, 방향의미의 방향보어는 어떠한 행위로 인해 사람이나 물체에 공간 및 위치상의 이동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5) a. 五富说:“兜呢?” 我才发现布兜儿没拿下来, 急忙大喊:“布兜儿, 布兜儿还在车上!” (贾平凹, 『高兴』)
 오부가 “가방이요? 저는 방금 전에 가방 안 가지고 왔어요”라고 말했

21) 그 이유는 방향의미, 결과의미, 상태의미의 세 가지 유형이 부정사 ‘没’와 공기할 경우 부정초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 “천가방, 천가방이 차에 있어요!”라고 급히 외쳤다.

- b. 幸亏双手搂住了树杈才没掉下去! (莫言, 『牛』)

다행히 나무가지를 양손으로 껴안아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5a), (5b)에서 방향보어 ‘下来’, ‘下去’는 각각 동사 ‘拿’, ‘掉’의 공간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결과의미의 방향보어는 행위가 결과나, 목적에 도달하였음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6) a. 队长亲自带着人下去捞, 什么也没捞上来。(王旭烽, 『茶人三部曲』)

대장이 직접 사람을 데리고 건지러 갔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 b. 有几个高音怎么也没唱上去。(郑小驴, 『少儿不宜』)

몇 개의 고음은 어떻게 해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6a), (6b)에서 방향보어 ‘上来’, ‘上去’는 각각 동사 ‘捞’, ‘唱’의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상태의미의 방향보어는 행위의 시작 또는 완료 이후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7) a. 他张口结舌, 没说下去。(约翰·福尔斯, 『法国中尉的女人』)

그는 말문이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 b. 如此这般, 她才没闹下去。(托马斯·哈代, 『无名的裘德』)

그렇게 하니, 그녀는 더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7a), (7b)에서 동일한 방향보어인 ‘下去’는 각각 동사 ‘说’, ‘闹’의 동작이 지속됨을 나타낸다.

일부 학자들은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전치사구를 보어 성분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刘月华(2019:623)는 ‘于’, ‘向’, ‘自’로 구성된 전치사구가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서 보어로 사용될 경우 전치사구 보어라고 정의하였다. 전치사구 보어는 시간, 장소, 출처, 대상, 목표, 원인, 방향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의 예

문을 보자.

- (8) a. 为了国家工业化, 我们把余粮全卖给国家。我们的余粮一颗也没卖给私商。
(「人民日报」, 1953年12月16日)
국가의 공업화를 위해, 우리 남은 곡식을 전부 국가에 팔았어요. 우리 남은 곡식을 개인사업자에게 한 톨도 팔지 않았어요.
- b. 老虎, 外婆还没买给宝宝。(茅盾, 『烟云』)
호랑이, 할머니 아직 아기한테 안 사줬어요.
- c. 有一个时期, 一连几个月, 教主没出现在公园。(白先勇, 『台北人』)
한동안, 몇 개월간, 교주는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8a)의 전치사구 ‘给私商’는 동사 ‘卖’의 대상이고, (8b)의 전치사구 ‘给宝宝’는 동사 ‘买’의 원인이며 (8b)의 전치사구 ‘在公园’는 동사 ‘出现’의 처소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전치사를 동사에 부가된 형태소로 보았다. 胡裕树 (2019:266)는 전치사 ‘在’, ‘向’, ‘于’, ‘到’, ‘给’, ‘自’ 등이 동사의 바로 뒤에 출현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동사로 보았다. 전치사구 보어는 다른 유형의 보어와 비교했을 때 형식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선 보어로 보고 통계 분석을 진행한 후 나중에 귀속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의미와 형식에 따라 보어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의미와 형식 간에는 교차된 부분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동일 의미의 보어는 다른 문장 형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동일 문장 형식의 보어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와 형식의 교차 현상이 보어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간의 관계를 고찰할 때 주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본다.

4.2 보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

보어와 부정초점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각 유형의 동보구조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양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부정사 ‘没’가 보어만 부정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는 부정사 ‘没’

가 보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유형이다. 부정사 ‘没’가 보어 성분만을 부정하는지, 혹은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술어 사건의 발생과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술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부정사 ‘没’는 보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한다. 반면, 술어 사건이 이미 발생했거나 실현되었을 경우 부정사 ‘没’는 보어만을 부정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9) a. 姚老先生说:“好吧, 再见。”眼睛也没转过来看她。(林语堂, 『京华烟云』)
 야오 어르신은 그녀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으며, “그래요, 다음에 봐요.”라고 말했어요.
- b. 没睡好! 尽做噩梦, 没有家的梦!(大江健三郎, 『万延元年的足球队』)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악몽만 꾸고, 집 없는 꿈을 꿴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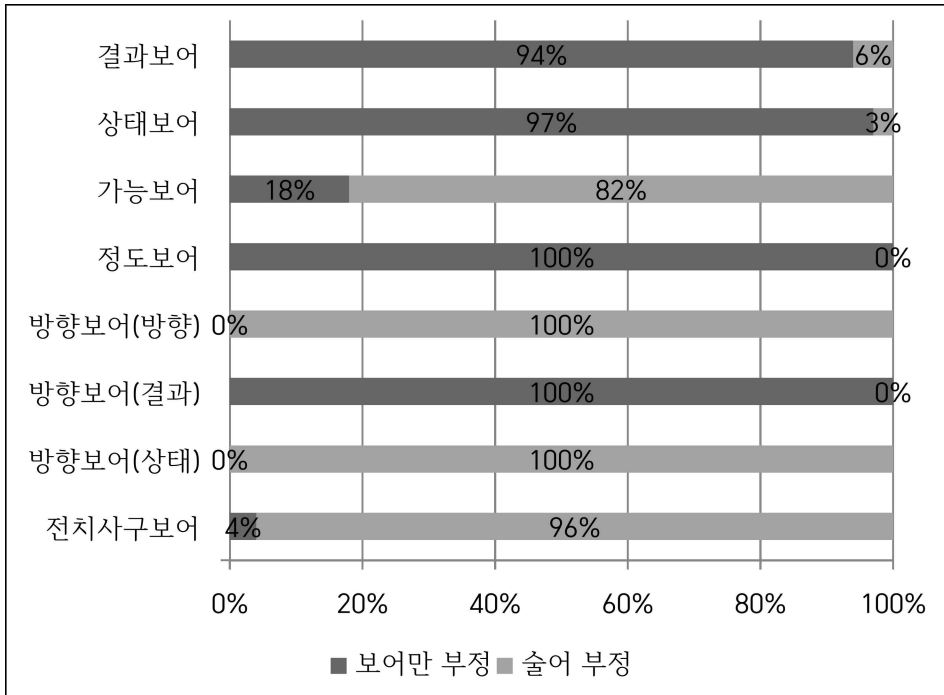
(9a)의 ‘眼睛也没转过来看她’에서 행위 ‘转’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사 ‘没’는 보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 ‘转过来’를 부정한다. (9b)의 ‘没睡好’에서는 행위 ‘睡’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 부정사 ‘没’는 보어 ‘好’만을 부정하며 ‘睡了, 但没睡好’를 의미한다.

아래의 표는 위와 같은 분류 기준으로 BCC 코퍼스에서 ‘没’의 뒤에 각 유형의 보어가 출현하는 경우를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표4-2] 부정사‘没’의 부정초점과 보어의 관계

보어 유형		유효데이터	보어만 부정		술어 부정	
			데이터	성분비	데이터	성분비
결과보어	没+V+A/V	1,348	1,269	94%	89	6%
상태보어	没+V+得	66	64	97%	2	3%
가능보어	没+V+得	65	12	18%	53	82%
정도보어	没+A/V+得	2	2	100%	0	0%
방향보어	방향의미	701	0	0%	701	100%
	결과의미	227	227	100%	0	0%
	상태의미	21	0	0%	21	100%
	방향보어 총계	949	227	24%	722	76%
전치사구 보어	没+V+전치사구	370	15	4%	355	96%
총 계		3,749	1,816	48%	1,943	52%

다음으로 [표4-2]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4-1] 부정사‘沒’의 부정초점과 보어의 관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결과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는 모두 부정사 ‘沒’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보어가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이 되는 비율은 각각 94%, 97%, 100%이다. 가능보어와 전치사구 보어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술어를 구성하여 부정사 ‘沒’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해당 유형의 보어가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沒’에 의해서 부정되는 비율은 각각 82%, 96%로 나타났다. 방향보어와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과의 관계는 방향보어의 의미에 따라 상이하다. 결과의미의 방향보어는 부정사 ‘沒’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방향의미와 상태의미의 방향보어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沒’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어의 의미는 보어가 단독으로 부정사 ‘沒’의 부정초점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3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3.1 결과보어

4.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과보어는 형용사이든 동사이든 품사에 상관없이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0) a. 翻译说的话, 我父亲没听全。(莫言, 『红高粱家族』)
통역사가 한 말을 저희 아빠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 b. 开枪的烂仔没跑远, 被别的警察抓住, 毒打一顿, 反铐上扔进警车。(王朔, 『橡皮人』)
총을 쏜 불량청소년은 멀리 도망치지 못한 채 다른 경찰에게 붙잡혀 구타당하고는 수갑을 채운 채 경찰차에 내던져졌어요.
- c. 我使尽浑身解数, 千辛万苦找遍了所有地方, 然而无论如何也没弄明白。(村上春树, 『东京奇谭集』)
저는 사력을 다해 백방으로 모든 델 뒤져봤지만 어찌하여도 알아낼 도리가 없었어요.

(10a), (10b), (10c)는 부정사 ‘没’가 결과보어 ‘全’, ‘远’, ‘明白’를 부정하는 경우이며 각각 ‘我父亲听了, 但没听全’, ‘开枪的烂仔跑了, 但没跑远’, ‘我弄了, 但没弄明白’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결과보어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1) a. 多乖的孩子, 不向大婶要奶喝, 没尿湿她的裙子, 也没吵得大家不能睡。(伊萨克·巴别尔, 『红色骑兵军』)
얼마나 착한 아이예요. 아줌마한테 젖 달라고도 안 하고, 그녀의 치마에 오줌을 싸지도 않고, 모두가 자는데 방해하지도 않네요.
- b. 阿尔努连子弹带也没解掉, 就直躺在哨所的值班床上。(福楼拜, 『情感教育』)
아일누는 탄띠도 풀지 않은 채 초소 당직 침대에 바로 누웠어요.

(11a), (11b)를 보면 이 경우 부정사 ‘没’는 전체 술어 ‘尿湿她的裙子’, ‘解掉’를 부정함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부정사 ‘没’가 결과보어를 부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요인은 동보구조에 양을 나타내는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장에서 이미 증명한 바와 같이, 양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수량, 시간, 공간, 동작의 범위와 정도, 심지어 감정까지도 포함한다. 결과보어가 출현하는 동보구조가 양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동사의 사건 시작부터 보어의 결과 실현까지 과정이 존재하며, 이 과정에는 행위의 실현 정도에 대한 양이 내포되기 때문이다. 玄珮(2011:69-70)는 많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결과보어가 동작의 ‘종결(完结)’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동보구조가 중첩의 형식으로 잠시상(短时尝试体)을 나타낼 수 없고, 진행상 및 지속상과 공기할 수 없기 때문이며 동량과 결합할 수 있고, 시량구와 결합할 경우에는 술어의 맨 뒤에 출현하기 때문이다.²²⁾ 또한, 결과보어가 종결적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은 단순히 술어가 의미하는 동작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영향으로 인해 어떤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로 인해 동보구조는 유계의 의미를 갖게 된다. 玄珮(2011)가 주장한 ‘동작의 영향으로 인해 어떤 상태에 도달했음’은 양을 나타내는 일종의 방식이다.

두 번째 요인은 부정사 ‘没’가 양에 민감하며 주관감량을 나타내는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정사 ‘没’는 동보구조를 부정할 경우 동사 사건의 실현을 부정하지 않으며, 양을 나타내는 보어를 부정함으로써 특정 양, 결과,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2) 玄珮(2011: 69-70)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에서 동보구조는 내부구조 속에 ‘종결’의 자질을 내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동보구조가 “他打伤打伤了李四”, “他走累走累了”와 같이 중첩의 형식으로 잠시상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他在打伤/打伤着李四”, “他正在走累/走累着”와 같이 지속과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표지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동보구조가 “他打伤我两回”, “她每天都要哭湿枕头好几回” 등과 같이 동량사와 결합함으로써 술어를 유계화한다. 넷째는 동보구조가 시량사와 결합하는 경우 “他打伤我两个小时, 我才去报案”와 같이 시량사는 술어의 맨 뒤에 출현해야 하며 “他打伤了两个小时我”는 비문이 된다.

- (12) a. 他把酒放在小桌上, 把吕宋烟点着, 喷了几口就把屋里全熏到了。“没喝多!”
(老舍, 『二马』)
그는 작은 테이블에 술을 올려놓고, 러송 담배에 불을 붙여 몇 모금 피웠어요. 곧 방 안은 온통 담배 냄새로 찌들었어요. “많이 안 마셨어!”
- b. 他们拉上了车皮门, 但没关严。(君特·格拉斯, 『铁皮鼓』)
그들은 화물칸 문을 닫았지만, 제대로는 닫지는 않았어요.
- c. 你头别动, 我还没梳好呢。
당신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아직 빗질이 끝내지 않았어요.

(12a), (12b), (12c)에서 ‘多’, ‘严’, ‘好’는 각각 동사 ‘喝’, ‘关’, ‘梳’의 실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며 각각 ‘喝了, 但没喝到多的程度’, ‘关了, 但没关到严的程度’, ‘正在梳, 但还没梳好’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결과보여는 양을 나타내는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된다. 그러나 BCC 코퍼스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 (13) a. 多乖的孩子, 不向大婶要奶喝, 没尿湿她的裙子, 也没吵得大家不能睡。
(伊萨克·巴别尔, 『红色骑兵军』)
얼마나 착한 아이예요. 아줌마한테 젖 달라고도 안 하고, 그녀의 치마에 오줌을 싸지도 않고, 모두가 자는데 방해하지도 않네요.
- b. 阿尔努连子弹带也没解掉, 就直躺在哨所的值班床上。(福楼拜, 『情感教育』)
아일누는 탄띠도 풀지 않은 채 초소 당직 침대에 바로 누웠어요.
- c. 大概不出几个钟头就要去上班, 可她还没做好头发, 还没身时髦衣服, 还没件漂亮衬衣, 还没双好鞋呀。(卡夫卡, 『城堡』)
아마도 몇 시간 후에는 출근해야 하는데, 그녀는 아직도 머리를 하지 않았고, 멋진 옷도 없고, 예쁜 블라우스도 없고, 좋은 신발도 없었어요.

(13a), (13b), (13c)의 부정사 ‘没’는 각각 전체 술어 ‘尿湿她的裙子’, ‘解掉’, ‘做好头发’를 부정한다. 이러한 동보구조의 공통적인 특징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시작점과 종결점 사이에 지속적인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13a), (13b)에서 사건 ‘解’, ‘尿’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결

과보어 ‘掉’, ‘湿’가 동시에 실현되며 실현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13c)에서 ‘做好头发’는 ‘没身衣服, 没件衬衫……’의 병렬 사건으로 ‘没个好发型’이라는 상태를 강조하며, 동사 ‘做’의 실현 정도가 ‘好’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결과보어는 양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으며 부정사 ‘没’는 양에 민감하고 주관감량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정사 ‘没’는 결과보어를 부정함으로써 특정 양, 결과,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사와 보어 사이에 실현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보구조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될 수 있다.

4.3.2 상태보어 및 정도보어

상태보어와 정도보어는 부정사 ‘没’의 뒤에 위치할 경우 단독으로 ‘没’에 의해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4) a. 但法律也没规定得那么具体, 总要照顾影响。(张洁, 『无字』)
 법률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영향을 고려해지요.
- b. 吴荪甫并没听得完全, 可是他全都明白了。(茅盾, 『子夜』)
 우순부는 전부 듣지는 못했지만, 그는 모두 이해했어요.
- c. 这小姑娘要是还没疯得没个底, 我敢把我的手脚一只一只割下来。(狄更斯, 『雾都孤儿』)
 만약 이 여자가 아직 완전히 미치지 않았다면, 저는 제 손발을 도려낼 거예요.
- d. 你没气得发疯吧?”(约翰·斯坦贝克, 『愤怒的葡萄』)
 당신은 화가 나서 미칠 정도는 아닌 거죠?

예문 (14a)~(14d)에서 부정사 ‘没’는 상태보어 ‘那么具体’, ‘完全’과 정도보어 ‘没个底’, ‘发疯’을 부정한다.

본 장에서는 상태보어와 정도보어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BCC를 통해 검색한 결과 정도보어가 ‘没’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는 다만 두 개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BCC에 출현하는 상태보어와 정도보어의 예문은 모두 동일한 ‘没+V+得’구조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

4.3.2.1 상태보어의 종결성

宋文輝(2021:310)에 따르면 구조조사 ‘得’는 내부표지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종결성의 측면에서 ‘V+得+상태보어’, ‘V+得+정도보어’의 구조가 ‘V+결과보어’, ‘부사어+V(O)’ 구조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²³⁾ 아래 예문을 보자.

- (15) a. 把杯子打碎! (명령문)
 컵을 부숩버려요!
- b. 把杯子打碎了。
 컵을 부숩버렸어요.
- c. 把杯子打得粉碎! (감탄문)
 컵이 산산조각으로 부숩졌네요!
- d. 把杯子打得粉碎。
 컵을 산산조각으로 부숩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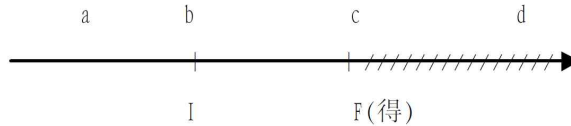
(宋文輝, 2021:310)

‘打碎’는 ‘V+결과보어’ 구조이기 때문에 종결의미를 나타내려면 통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15b)는 종결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打碎’에 ‘了’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통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종결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15a)처럼 ‘打碎’를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打得粉碎’는 ‘V+得+상태보어’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15d)처럼 종결성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V+得+상태보어’ 구조는 강한 종결성이 있으므로, (15c)는 명령문으로 해석할 수 없고 감탄문으로만 해석된다.

李錦姬(2003:38)는 [그림4-3]을 통해 분리형 동보구조 즉, 상태보어 및 정도보어와 결합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두 가지 구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b ~ c 구간은 술어 성분의 시구간을 나타내고, I는 술어 동작의

23) Nichols(1986: 58)에 따르면 내부표지는 시제표지가 가장 대표적인 형식으로 실사에 추가되어 문법적 및 의미적 속성을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시작점을, F는 술어 동작의 종점을 의미한다. 또한, c ~ d 구간은 보어의 시구간을 나타내며 ‘得’는 술어와 보어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술어 동작의 자연종점을 표시한다.



[그림4-2] 李錦姬(2003:38)의 분리형 동보구조의 시간과정

宋文輝(2021)가 주장한 ‘得’의 내부표지기능(内部标记功能)과 李錦姬(2003)가 주장한 분리적 동보구조의 두 가지 시간적 구간은 비록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상태보어와 정도보어의 앞에 위치한 동사가 동작의 종결성을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본고는 상태보어와 정도보어에 선행하는 동사가 반드시 종결성을 갖는다고는 보지 않으며 동사의 종결성이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Smith(1991: 17-37)는 동사의 상황유형(situations)을 동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적 자질에 따라 상태(stative), 동작(activity), 순간(semelfactive), 달성(accomplishment), 성취(achievement)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중 상태, 동작 및 순간 상황유형의 동사는 [-종결]의 자질을 내포하지만, 달성 및 성취 상황유형의 동사는 [+종결]의 자질을 내포한다. 종결성은 사건의 종결과 함께 어떤 결과가 산출되거나, 상태의 변화를 갖는지의 여부에 따라 동사를 종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비종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는 자질이다.²⁴⁾ 각 상황유형의 동사 뒤에 상태보어가 출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4) 이은경(2023:50)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표4-3] 동사의 종결성과 상태보어의 관계

상황유형 (situations)	종결성 (telic)		예
	동사	V+得+보어	
상태 (stative)	[-] 信	[-] [-] [-] [-][+]	(1) a. 他信教信得很虔诚。 그는 종교를 독실하게 믿어요. b. *他没信教信得很虔诚。 c. 他信教信得不虔诚。 그는 종교를 독실하게 믿지 않아요. d. 他这次没信教信得那么虔诚。 그는 이번에 종교를 그렇게 독실하게는 믿지 않아요/않았어요.
동작 (activity)	[-] 跑	[-] [-] [-] [-][+]	(2) a. 他是运动员,所以跑得很快。 그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요. b. *他不是运动员,所以没跑得很快。 c. 他不是运动员,所以跑得不快。 그는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지 않아요. d. 他受伤了,这次没跑得那么快。 그는 다쳤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 않았어요.
순간 (semelfactive)	[-] 摔	[+] [+] [+]	(3) a. 他摔得很严重。 그는 심하게 넘어졌어요. b. 他没摔得那么严重。 그는 그렇게 심하게 넘어지지 않았어요. c. 他摔得不严重。 그는 심하게 넘어지지 않았어요.
달성 (accomplishment)	[+] 建	[+] [+] [+]	(4) a. 这座桥建得很结实。 이 다리는 매우 튼튼하게 건설되었어요. b. 这座桥没建得那么结实。 이 다리는 그렇게 튼튼하게 건설되지 않았어요. c. 这座桥建得不结实。 이 다리는 부실하게 건설되었어요.
성취 (achievement)	[+] 赢	[+] [+] [+]	(5) a. 他们队赢得很轻松。 그들의 팀은 쉽게 이겼어요. b. 他们队没赢得很轻松。 그들의 팀은 쉽게 이기지 않았어요. c. 他们队赢得不轻松。 그들의 팀은 어렵게 이겼어요.

[표4-2]를 보면, (1a)와 (2a)의 ‘V+得+상태보어’ 구조는 종결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3a), (4a), (5a)의 동보구조는 종결성이 존재한다. 본고는 ‘V+得+상태보어’

구조가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될 경우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조건은 ‘V+得+상태보어’ 구조가 종결성이 존재해야 한다. (1a), (2a)는 동보구조가 종결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b), (2b)처럼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될 수 없으며, (1c), (2c)처럼 부정사 ‘不’로만 부정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반면에 (4a), (5a)에서 ‘建得很结实’, ‘赢得很轻松’는 모두 종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사 ‘不’뿐만 아니라 부정사 ‘没’로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3a)에서 ‘摔得很严重’의 동사‘摔’ 자체에는 종결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어‘严重’이 나타내려는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정사 ‘没’로도 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V+得+상태보어’ 구조는 종결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동작행위가 이미 발생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d), (2d)에서 술어는 동보구조로서 이미 종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已经信过了, 这次没信得那么虔诚’과 ‘已经跑完了, 没跑得那么快’를 의미한다. 또한, (1d), (2d)에서 술어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 중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正信着呢, 但没信得那么虔诚’와 ‘正在跑呢, 没跑得那么快’를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V+得+상태보어’ 구조는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될 경우에 종결성이 있거나 동사가 나타내려는 사건이 반드시 이미 발생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V+得+정도보어’의 구조도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될 경우에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래 예문을 보면 ‘气得发疯’에서 ‘生气’는 이미 발생한 행위이다.

(16) 你没气得发疯吧? (约翰·斯坦贝克, 『愤怒的葡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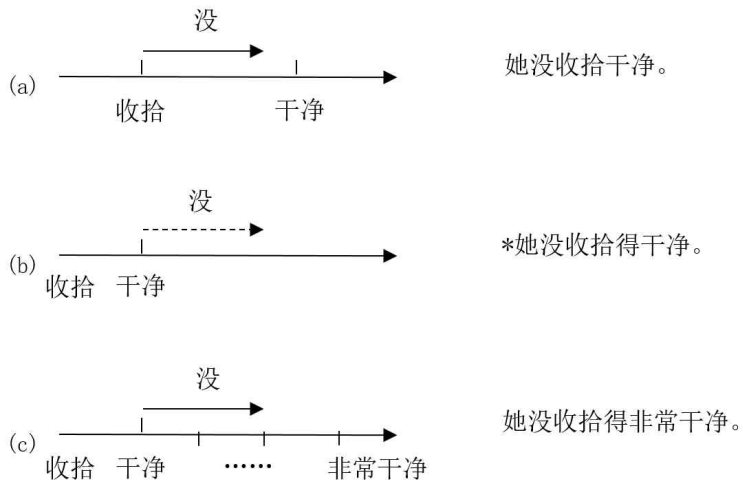
당신은 화가 나서 미칠 정도는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부정사 ‘没’는 상태보어와 정도보어의 앞에 위치한 동사를 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부정사 ‘没’가 동작의 존현을 부정하는 기능이 있지만, 부정사 ‘没’의 뒤에 ‘V+得+상태보어/정도보어’ 구조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사 ‘没’는 상태보어와 정도보어

- d. 没哭得面皮嘴唇都发紫 d'. *没哭面皮嘴唇都发紫
 얼굴과 입술이 시퍼레질 정도로 울진 않았다.
- e. 没黑得像鬼一样 e'. *没黑像鬼一样
 마치 귀신처럼 검게 탄 것은 아니다.

(17a)에서 무량상태보어 ‘说得对’는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수 없지만, 이에 상응하는 결과보어 ‘说对’는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수 있다. 반면, (17b)~(17e)의 상태보어는 모두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수 있지만, 상응하는 (17b')~(17e')의 결과보어는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수 없다.

다음으로 결과보어와 상태보어는 모두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양을 나타내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보어와 상태보어가 양을 나타내는 방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4-3] 결과보어와 상태보어의 양을 나타내는 방식

[그림4-4]에서 (a)는 ‘干净’이 결과보어로 쓰인 경우이다. 결과보어의 양은 동작의 실현 과정에 존재한다. (a)의 ‘没收收拾干净’에서 동사 ‘收拾’와 결과보어 ‘干净’ 사이에는 실현 과정이 존재하며 이 경우에 부정사 ‘没’는 ‘收拾’가 ‘干净’을

의도하였지만, 의도한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 정도에 그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그림4-4]에서 (b), (c)는 ‘干净’이 상태보어로 쓰인 경우이다. ‘干净’이 상태보어로 쓰인 경우 반드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b)의 ‘没收收拾得干净’의 경우 보어 ‘干净’에는 양적 단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고, (c)의 ‘没收收拾得非常干净’의 경우에는 보어 ‘非常干净’에 양적인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는 결과보어의 양이 동작의 실현 과정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동작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동작의 결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양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상태보어의 양이 보어 내부에 존재하는 이유는 상태보어가 동작의 실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어의 상태 즉, 보어가 나타내는 상태가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으로 (17a')에서 ‘没说对’는 성립할 수 있고, (17a)의 ‘没说得对’는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李锦姬(2003)는 ‘对’를 판단보어로 분류하고, 판단보어는 주로 동사와 ‘得’의 뒤에 출현하여 이미 실현된 동작 혹은 결과를 판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판단보어는 자체적으로 양을 나타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태보어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결과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17b)~(17e)와 (17b')~(17e')에서 ‘有点敏感’, ‘挺好’, ‘面皮嘴唇都发紫’, ‘像鬼一样’은 양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태보어로 사용될 수 있고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결과보어는 결과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양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현 과정이 있는 경우 부정사 ‘没’는 보어만을 부정하고 실현 과정이 없는 경우 즉, 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부정사 ‘没’는 전체 술어를 부정한다. 상태보어는 그 자체로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비문이 된다.

4.3.2.3 보어를 구성하는 ‘得’의 기능

BCC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상태보어와 정도보어는 두 개의 특수한 예문을

제외하면 모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된다. 그 이유는 ‘得’의 뒤에 출현하는 보어가 단어이든 복잡한 구조이든 상관없이 문장에서 주요 동작과 그 동작이 나타내는 대상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得’의 뒤에 출현하는 보어는 강조의미를 나타내는 핵심내용이자 문장의 초점이다. 张豫峰(2002:28)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得’의 뒤에 출현하는 보어가 전체 문장의 초점임을 주장하였다. 첫째, 문장의 강제는 ‘得’의 뒤에 출현하는 보어에 있다. 둘째, ‘得’는 문말 초점표지로서 화용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得’자문은 그 뒤에 출현하는 보어에 대해서 ‘怎样’으로만 질문할 수 있다. 넷째, 보어는 일반적으로 ‘她走得很慢’의 ‘很慢’, ‘他笑得肚子疼’의 ‘肚子疼’처럼 별도로 분리하여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상태보어, 결과보어, 방향보어의 초점 차이에 근거하여 张豫峰(2002)의 이론을 추가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를 보자.

[표4-5]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得’자 간의 관계

예문	논항 초점(보어)	서술어 초점	문장 초점
a. 他没讲得很清楚。	他讲得怎么样?	*他做什么了?	怎么了?
b. 他没讲清楚。	他讲得怎么样?	*他做什么了?	怎么了?
c. 这个秘密他没讲出去。	*他讲得怎么样?	他做什么了?	怎么了?

[표4-5]에서 (a), (b), (c)는 각각 상태보어, 결과보어, 방향보어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문을 통해 다음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초점의 분포 측면에서 보면 상태보어와 결과보어는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된다. 또한, 상태보어와 결과보어는 모두 논항 초점이 될 수 있지만, 상태보어나 결과보어를 포함한 술어는 서술어 초점이 될 수 없다. 반면에, 방향보어의 경우 논항 초점으로 기능할 수는 없지만, 서술어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得’는 후행하는 보어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26) ‘得’가 초점표지라는 견해는 아직도 이견이 분분하다. 方梅(1995:281-283)는 초점표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초점표지는 표지 성분에 불과하며 자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도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초점표

따라서 상태보어와 정도보어가 출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지만, 방향보어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사 ‘没’가 전체 술어를 부정한다.

사실상 상태보어가 출현하는 두 개의 특수한 예문도 정보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18) a. 多乖的孩子, 不向大婶要奶喝, 没尿湿她的裙子, 也没吵得大家不能睡.
(伊萨克·巴别尔, 『红色骑兵军』)
얼마나 착한 아이예요. 아줌마한테 우유 달라고도 안하고, 그녀의 치마를 적시지도 않고, 모두가 자는데 방해하지도 않네요.
- b. 我来到里院, 当时正值孩子们把那猫送给还没化妆得像工艺品鬼脸样时神态忧郁的鹰子。(大江健三郎, 『日常生活的冒险』)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저는 안뜰로 들어왔어요. 그때 애들은 귀신 얼굴 공예품처럼 화장하지 않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잉즈에게 고양이를 선물하고 있었어요.

다른 상태보어의 예문과 달리, (18a)의 동보구조 ‘吵得大家不能睡’와 그 앞의 ‘尿湿她的裙子’는 나열 관계에 있으며 모두 화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나타낸다. 사건 ‘吵得大家不能睡’와 ‘尿湿她的裙子’는 모두 문장의 전제로서 부정사 ‘没’에 의해 전체로 부정되며 두 사건이 모두 예상처럼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8b)의 경우 수식어 성분인 동보구조 ‘化妆得像工艺品鬼脸样’은 구정보로서 화자가 이 사건이 다음에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정사 ‘没’는 동보구조 ‘化妆得像工艺品鬼脸样’ 전체를 부정하며 당시에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요약하면, 상태보어와 정도보어는 부정사 ‘没’의 뒤에 출

지는 그 뒤에 위치한 성분을 초점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표지 뒤에 위치한 성분이 강조된다. 셋째, 표지는 문장의 기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得’는 비록 의미적으로 허화되었고 후행하는 성분을 강조할 수 있지만, 상태 및 정도보어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므로 생략될 수 없다.

현할 경우 종결성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사건을 나타내거나 양적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두 유형의 보어는 모두 논항 초점으로 기능하므로, 부정사 ‘没’에 의해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4.3.3 가능보어

부정사 ‘没’의 뒤에 가능보어가 출현하는 예문은 총 69개로서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사 ‘没’가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예문은 전체의 82%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사실 그중에서 50%가 ‘来不及’, ‘顾不上’ 등 관용어 예문이어서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사 ‘没’가 후행하는 가능보어만을 부정하는 예문은 18%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관용어 예문을 제외할 경우 부정사 ‘没’가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예문은 32%이다.

각 유형의 가능보어는 의미적 차이에 따라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초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张宝林(2006:196)은 가능보어를 기본 형식과 특수 형식으로 양분하였다. 기본 형식은 ‘V/A+得/不+결과/방향보어’로서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이 보어가 나타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특수 형식은 ‘V/A+得/不+了’와 ‘동사+得/不得’로서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코퍼스 분석 결과 가능보어가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예문은 18%의 출현빈도를 보였으며, 모두 张宝林(2006)이 주장한 가능보어의 기본 형식에 해당하는 예문임을 발견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9) a. 他力气真大...到底没扭得过他, 把上级发给我的五块银元给夺走了。(李国文, 『冬天里的春天』)
그는 힘이 정말 세서... 결국 그를 비틀어 꺾지 못 하고, 윗사람이 나에게 준 은화 다섯 잎을 빼앗겨버렸어요.
- b. 我给人家做工作, 也没说服得下。(陈忠实, 『七爷』)
저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해보았지만, 설득할 수 없었어요.

(19a)와 (19b)에서 보어 ‘得过’와 ‘得下’는 모두 결과의미를 나타내며 그 앞에 위치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므로 각각 ‘扭了,但没扭过他’, ‘试着说服人家,但没说服得了’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관용어를 제외하면 ‘V+가능보어’가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되는 예문은 32%를 차지하며, 그중 26%가 张宝林(2006)이 주장한 가능보어의 특수한 형식에 해당한다. 나머지 6%의 예문은 방향보어가 가능보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본고는 ‘V/A+得/不+成’을 张宝林(2006)이 주장한 ‘V+得/不+了’, ‘V+得/不得’처럼 특수 형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형식은 모두 동사의 동작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0) a. 可你看, 这并没伤得了我, 也没影响我。(苏珊·希尔, 『德温特夫人』)
하지만 보세요, 이걸 질 해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 b. 酒没喝得成, 倒贴了三文钱的一张狗皮膏药。(司马中原, 『狂风沙』)
술도 못 마시고, 석푼짜리 고양이 한 장 날렸어요.
- c. 时间紧, 没顾得(了)。(「人民日报」, 2000年 10月 25日)
시간이 촉박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20a)~(20c)에서 ‘伤得了我’, ‘喝得成’, ‘顾得’는 모두 동작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며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되므로 각각 ‘伤我’, ‘喝酒’, ‘顾某事’의 미발생을 의미한다.

가능보어의 특수 형식은 본질적으로 Vendler(1967)가 주장한 ‘과정이 없는 완성(achievement)’에 해당한다. 杉村博文(2010:186)에 따르면 가능보어는 주로 행위를 통해 결과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행위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도 나타낸다.

대부분의 ‘V/A+得/不+방향보어’ 형식은 모두 张宝林(2006:196)에서 언급된 가능보어의 기본 형식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본고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V/A+得/不+방향보어’ 형식과 일부 분류 난해한 가능보어의 경우를 ‘과정 유무’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과정 유무’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의 유무와 행위를 통해서 보어의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의 유무를 결정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1) a. 整他的人没想到却砸死在倒塌的楼房里, 半夜一个也没跑得出来。(高行健, 『灵山』)
 그를 해하려 했던 사람은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한밤중에 한 명도 도망치지 못했어요.
- b. 究竟是何处, 夏尔尼还没猜得出来。(大仲马, 『王后的项链』)
 도대체 어디인지, 샬니는 아직도 알 수 없었어요.

(21a)와 (21b)에서 방향동사는 ‘得’의 뒤에 위치한 가능보어로, ‘跑得出来’, ‘猜得出来’는 모두 ‘과정 있는 완성’을 의미한다. ‘과정 있는 완성’은 행위를 통해서 보어의 결과를 실현하는지를 나타낸다. 두 예문에서 동사 ‘跑’, ‘猜’는 모두 과정이 존재하고, ‘出来’는 기본 형식의 가능보어와 마찬가지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된다. 따라서 두 예문은 각각 ‘跑了,但没跑出来’, ‘猜了,但没猜出来’의 의미를 나타낸다.

- (22) a. 可不知怎么, 她却没喊得出来。(玛格丽特·米切尔, 『飘』)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 인지, 그녀는 소리치지 못했어요.
- b. 就算人枪一时没拉得来, 七房族的粮草也该运来。(司马中原, 『狂风沙』)
 사람과 총은 잠시 운반되지 못 할 지라도, 칠방족의 양식과 건초는 운반되어야 해요.

(22a)와 (22b)의 문맥을 통해 ‘喊得出来’, ‘拉得来’는 모두 ‘과정 없는 완성’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과정 없는 완성’은 동작의 실현 여부를 나타낸다. 따라서 (22a)와 (22b)에서 부정사 ‘没’는 전체 사건의 실현을 부정하며 각각 전체 동작 ‘喊得出来’, ‘拉来’의 미실현을 의미한다.

- (23) 陆续有告密的弟兄, 全被假藉名目砍了脑袋, 死后连阎王也没见得着。(司马中原, 『狂风沙』)

비밀을 계속 폭로했던 형제들은 모함으로 전부 참수당했고, 죽어서 염라 대왕도 뵙지 못했어요.

(23)에서 동사 ‘见’의 의미에 이미 보어 ‘着’의 실현 가능성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보구조 ‘见得着’는 일종의 ‘과정 없는 완성’을 의미한다. 가능보어는 ‘과정 없는 완성’일 경우 동작의 실현 여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23)에서 부정사 ‘没’는 보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 성분을 부정하며 ‘见着’의 미실현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가능보어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의 관계는 아래의 [표4-6]과 같다.

[표4-6]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및 가능보어의 관계

부정초점	가능보어 유형	예 문
가능보어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형식: V/A+得/不+결과 (7%) • V/A+得/不+방향보어: 과정이 있는 완성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尽力了,但没留得住她。 • 猜了半天也没猜得出来。
전체 술어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어 (50%) • 특수 형식: V/A+得/不+了, 동사+得/不得 (26%) • V/A+得/不+방향보어: 과정이 없는 완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没来得及告诉你。 • 北京没去得了。 • 他没喊得出来。

동보구조가 ‘과정 있는 완성’일 경우 가능보어는 보어의 결과물 달성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이 경우에 부정사 ‘没’는 단독으로 가능보어를 부정한다. 동보구조가 ‘과정 없는 완성’일 경우 혹은 동보구조가 관용어일 경우에는 가능보어가 행위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이 경우에 부정사 ‘没’는 가능보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한다.

4.3.4 방향보어

방향보어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간의 관계는 주로 방향보어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 코퍼스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결과의미의 방향보어는 모두 부

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방향의미와 상태의미의 방향보어는 술어와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결과의미의 방향보어는 일반적으로 강세를 동반하며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4) a. 小时候, 自行车骑太快了, 在坡路上拐弯没拐过来, 差两厘米右眼就失明了。
(村上春树, 『天黑以后』)
어릴 때, 자전거를 너무 빨리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코너를 돌았지만 잘돌지 못 해서 오른쪽 눈을 2cm 차이로 실명할 뻔했어요.
- b. 电视荧幕上花花绿绿地人来人往, 他一点也没看进去。(冰心, 『冰心全集第七卷』)

(24a)에서 ‘过来’는 결과의미의 방향보어로서 강세가 실리며 ‘拐’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부정사 ‘没’는 방향보어 ‘过来’를 단독으로 부정하여 ‘已经拐了, 但没拐过来’를 의미한다. (24b)의 ‘进去’의 경우도 강세가 실리며 ‘看’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사 ‘没’는 방향보어 ‘进去’를 단독으로 부정하여 ‘看了, 但没看进去’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방향의미의 방향보어는 강세가 실리지 않으며 동작의 방향을 나타낸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5) a. 姚老先生说: “好吧, 再见。” 眼睛也没转过来看她。(林语堂, 『京华烟云』)
야오 어르신은 “그래요, 다음에 봐요.”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눈길도 한 번 주지 않았어요.
- b. 他没站起来, 仍旧坐在那儿, 仿佛在等什么似的。(契诃夫, 『信』)
그는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25a), (25b)에서 ‘过来’, ‘起来’는 방향의미의 방향보어로서 강세가 없으며 각 동작 ‘转’, ‘站’의 방향을 나타낸다. ‘没转过来’, ‘没站起来’에서 부정사 ‘没’는 방향의미의 방향보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여 ‘转过来’, ‘站起来’라는

동작이 미실현되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상태의미의 방향보어는 강세를 동반하지 않으며 동작의 지속을 나타낸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6) a. 他妹妹送了杯茶进来, 打了个岔就没说下去。(张爱玲, 『半生缘』)
 그의 여동생이 차를 가져와서 말을 끊어 버리는 바람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 b. 如此这般, 她才没闹下去。(托马斯·哈代, 『无名的裘德』)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더 이상 계속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위의 예문 (26a), (26b)에서 ‘下去’, ‘下去’는 상태의미의 방향보어로서 강세를 동반하지 않으며 각각 동사 ‘说’, ‘闹’의 지속 상태를 나타낸다. ‘没说下去’, ‘没闹下去’에서 부정사 ‘没’는 상태의미의 방향보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며 동작 ‘说下去’, ‘闹下去’의 상태가 미출현하였음을 의미한다.

4.3.1절에서 결과보어는 양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고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결과의미의 방향보어도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방향의미와 상태의미의 방향보어는 동작의 방향과 동작의 지속 상태를 나타내고 양과 무관하다. 또한, 방향의미와 상태의미의 방향보어는 결과의미의 방향보어와 비교하면 주로 동사 중심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7) a. 小时候, 自行车骑太快了, 在坡路上拐弯没拐过来, 差两厘米右眼就失明了。
 어릴 때, 자전거를 너무 빨리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코너를 제대로 돌지 못해 오른쪽 눈을 2cm 차이로 실명할 뻔했어요.
- a'. *小时候, 自行车骑太快了, 在坡路上拐弯没往这边拐, 差两厘米右眼就失明了。
- b. 姚老先生说: “好吧, 再见。” 眼睛也没转过来看她。
- b'. 姚老先生说: “好吧, 再见。” 眼睛也没往这边转看她。
 야오 어르신은 “그래요, 다음에 봐요.”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눈길도 한 번 주지 않았어요.
- c. 他妹妹送了杯茶进来, 打了个岔就没说下去。
- c'. 他妹妹送了杯茶进来, 打了个岔就没往下说。

그의 여동생이 차를 가져와서 말을 끊어 버리는 바람에 말을 잊지 못했어요.

예문 (27a)~(27c)에서 결과의미의 동보구조 ‘拐过来’는 상응하는 부사어-중심어 구조(状中结构)인 ‘往这边拐’로 전환할 수 없지만, 방향의미와 상태의미의 동보구조인 ‘转过来’, ‘说下去’는 상응하는 부사어-중심어 구조인 ‘往这边转’, ‘往下说’로 전환해도 문장의 의미에 큰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27a)는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고, (27b)와 (27c)는 동작 자체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사 ‘没’는 방향의미 및 상태의미의 방향보어의 앞에 출현할 경우 동사의 동작과 사건의 실현을 나타내는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

4.3.5 전치사구 보어

일부 학자들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 출현하는 전치사구를 보어로 보았으며 赵元任(2002), 刘月华(1983), 黄伯荣(2017) 등은 전치사를 동사의 접미사로 보았다. 또한, 朱德熙(2015), 张纯鉴(1980), 郑飞(1980), 胡裕树(2019) 등은 전치사의 뒤에 출현하는 성분을 목적어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코퍼스 분석을 위해 일단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전치사구를 보어로 보고 유형을 분류한 후 분석 결과에 따라 귀속 문제를 재고하고자 한다. BCC 코퍼스 분석 결과, 전치사구 보어가 전체 술어와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는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8) a. 有一个时期, 一连几个月, 教主没出现在公园。(白先勇, 『台北人』)
한동안, 몇 개월간, 교주는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 b. 银行把钱贷出去了, 但房子并没抵押给银行。(「福建日报」, 2006.6.7.)
은행은 돈을 대출해주었지만, 집은 은행에 저당잡히지 않았어요.
- c. 女特工既没变成食人族, 也没死于车祸。(「文汇报」, 2001.1.14)
여자 특수요원은 식인종도 되지 않았고, 차사고로도 죽지 않았어요.

(28a)~(28c)에서 부정사 ‘没’는 전치사구 보어를 포함한 전체 술어인 ‘出现在

公园’, ‘抵押给银行’, ‘死于车祸’를 부정한다.

4.3.5.1 ‘V + 전치사구’와 동보형식의 ‘V + 목적어’

다른 유형의 보어는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치사구 보어는 동사와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치사구 보어 재정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张纯鉴 (1980:81-82)은 ‘在’, ‘向’, ‘到’, ‘给’, ‘于’, ‘往’, ‘自’ 등이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 전치사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뒤에는 상표지가 출현할 수 없지만, ‘在’, ‘向’, ‘到’, ‘给’ 등이 동사의 뒤에 출현할 경우 ‘了’와 결합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9) a. 把青春献给(了)党和人民。
청춘을 당과 인민에게 바쳤다.
 - b. 我们在毛主席和党中央的领导下, 从胜利走向(了)胜利。
우리는 마오 주석과 당 중앙의 지도하에 승리를 이어나갔다.
- (张纯鉴, 1980:80)

(29a)와 (29b)에서 ‘把青春献给了党和人民’, ‘从胜利走向了胜利’는 각각 ‘给’, ‘向’ 뒤에 ‘了’가 출현하는 경우이다.

둘째, 문장의 어감에 따라서, ‘向’, ‘在’, ‘到’, ‘给’ 등의 뒤에는 휴지가 올 수 있지만, 그 앞에는 휴지가 올 수 없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0) a. 我们在毛主席和党中央的领导下, 从胜利走向胜利。
우리는 마오 주석과 당 중앙의 지도하에 승리를 이어나갔다.
- b. 抗日战争开始后, 我们党有了较大的发展, 吸收了一大批来自知识分子的党员。
항일전쟁이 시작된 후에 우리 당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많은

지식분자를 당원으로 흡수하였다.

- c. 刘少奇同志, 几十年来一贯忠于党和人民。

류소희 동지는 몇십 년간 항상 당과 인민에 충실했다.

(张纯鉴, 1980:80)

(30a)~(30c)는 ‘走向/胜利’, ‘来自/知识分子’, ‘忠于/党和人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走/向胜利’, ‘来/自知识分子’, ‘忠/于党和人民’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셋째, 일부 단어는 본래 동작을 나타내지 않지만, ‘于’ 등 접미사와 결합하여 ‘忠于’, ‘善于’ 등처럼 하나의 동사를 구성한다. ‘向’, ‘在’, ‘到’, ‘给’ 등 전치사는 동사 뒤에서 전치사로서의 본래 기능이 소실되고, 단지 형태소로서 그 앞의 동사, 형용사 등과 함께 동보형식의 복합어를 구성한다.

넷째, (31a)와 (31b)에서 ‘到全党’, ‘给群众’을 전치사 구조로 해석하여 ‘发’, ‘交’의 보어로 간주할 경우 ‘讨论’, ‘处理’의 행위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문장의 ‘全党’, ‘群众’은 겸어 성분으로서 ‘发到’, ‘交给’의 목적어이자 ‘讨论’, ‘群众’의 행위자이다.

- (31) a. 这个文件, 根据全会意见修改以后, 即将发到全党广泛讨论。(『中国共产党第十一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

이 문건은 전회 의견을 근거로 수정한 후에 전당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도록 곧 배포할 것이다.

- b. 这件事可以交给群众处理。

이 일은 대중에게 맡길 수 있다.

(张纯鉴, 1980:82)

张纯鉴(1980)은 ‘V+전치사’를 동보형식으로서 하나의 동사로 간주하고, 그 뒤에 출현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목적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정사 ‘没’가 동사 뒤의 전치사구를 포함한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로도 张纯鉴(1980)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부정사 ‘没’의 뒤에 동목구조가 출현하고 동사 혹은 목적어가 대조초점이 아닐 경우 ‘没’는 동목구조를 전체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²⁷⁾ 즉, 전치사구가 동사의 보어

27) 제 5 장에서는 목적어 혹은 목적어의 수식어 성분이 대조초점이 아닐 경우, 부

로 사용되지 않고 동사와 함께 하나의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부정사 ‘没’는 전치사구를 포함한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2) a. 我特地为你跑一趟,你又一一直不回来嘛。也没待在咖啡厅。(山本文绪,『一切终将远去』)
나는 특별히 널 위해서 갔는데, 넌 계속 돌아오지 않았어. 커피숍도 있지 않고 말이야.
- b. 女特工既没变成食人族,也没死于车祸。(「文汇报」,2001年1月14日)
여자 특수요원은 식인종도 되지 않았고, 차사고로도 죽지 않았다.
- c. 姬华把作业本交到小组长吴晶的位子里,吴晶不知道,没交给老师。(「人民日报」,1982年06月10日)
기화는 과제를 조장 吴晶(우징)의 자리에 놓았지만, 吴晶(우징)이 모르고 선생님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32a)~(32c)는 ‘没+待在+[咖啡厅]’, ‘没+死于+[车祸]’, ‘没+交给+[老师]’의 구조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咖啡厅’, ‘车祸’, ‘老师’는 각각 동사 ‘待在’, ‘死于’, ‘交给’의 목적어이고, 부정사 ‘没’는 전체 술어를 부정하며 사건 ‘待在咖啡厅’, ‘死于车祸’, ‘交给老师’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4.3.5.2 전치사구 보어가 대조초점인 경우

부정사 ‘没’는 전치사의 뒤에 출현하는 목적어가 대조초점일 경우 부사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적어만을 부정하며 이러한 유형은 부정사 ‘没’와 보어가 공기하는 예문 중에서 4%를 차지한다. 또한, 일부 대조초점의 기능을 하는 목적어는 문맥에 대조대상이 있으므로 문맥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3) 为了国家工业化,我们把余粮全卖给国家。我们的余粮一颗也没卖给私商。
(「人民日报」,1953年12月16日)

정사 ‘没’가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국가의 공업화를 위해, 우리 남은 곡식을 전부 국가에 팔았다. 우리 남은 곡식을 개인사업자에게 한 톨도 팔지 않았다.

(33)을 보면 ‘私商’의 대조대상인 ‘国家’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어의 대조적인 의미는 문맥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34) 她家和杨大娘也没分到一个楼洞里, 早出晚归, 难得碰上。(孙力·余小惠, 『都市风流』)

그녀와 杨아줌마는 같은 동네에 배정되어 있지도 않고 일찍 나가서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가 어려웠다.

(34)에서 ‘早出晚归, 难得碰上’을 통해 ‘她家和杨大娘已经分了房’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사 ‘没’는 대조초점인 목적어 ‘一个楼洞’만을 부정한다. 일부 목적어의 대조의미는 동사의 의미와 문맥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35) a. 由于与乌鸦族的战争迫在眉睫, 这些勇士们暂时都没住在村里。(卡尔·麦, 『藏金潭夺宝』)

까마귀족과 전쟁이 임박해서 이들 맹사들은 잠시 마을에 살지 않았다.

b. 问题乔布斯和盖茨都是美国人,都没生在天朝。(微博)

문제는 잡스와 게이츠가 모두 미국인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35a)에서 맹사들은 ‘没住’할 수 없고 (35b)에서 잡스와 게이츠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没生’할 수 없기 때문에, (35a)와 (35b)의 동사 ‘住在’, ‘生在’는 논리적으로 부정될 수 없다. 따라서 두 예문에서 부정사 ‘没’는 대조초점인 목적어 ‘村里’, ‘天朝’만을 부정하며 ‘住在某个地方了,但不是住在村里’, ‘生在美国了,没生在天朝’의 의미를 나타낸다.

부정사 ‘没’는 동사가 대조초점일 경우 동사만을 부정하며 BCC 코퍼스를 통

해 검색한 결과 이러한 유형은 한 개밖에 찾을 수 없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6) 我没住在贫民区。我只是暂时待在这儿。就是让我白住， 我也不会住在这个地方的。(玛格丽特·米切尔, 『飘』)
- 난 빈민가에 살고 있지 않아. 난 여기에 잠시 머물 뿐이야. 나한테 공짜로 살라고 해도, 난 이 곳에 살지 않을 거야.

(36)에서 동사 ‘住’는 ‘待’와 대조관계를 이루며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어 ‘我是待在贫民区,不是住’의 의미를 나타낸다.

4.3.5.3 ‘到’로 구성된 전치사구 보어

동사의 뒤에 전치사보어 ‘到’가 출현하는 경우는 전체 전치사구 보어 유형에서 93%를 차지한다. 전치사 ‘到’는 ‘在’, ‘向’, ‘于’, ‘给’, ‘自’ 등 다른 전치사들과 마찬가지로 방향과 대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과와 달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다른 전치사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到’는 ‘听’, ‘看’, ‘想’, ‘察觉’, ‘注意’, ‘感觉’, ‘留意’ 등 심리동사의 뒤에 출현할 경우 동사의 접미사로 사용되어 하나의 동사를 구성함으로써 결과의미를 나타낸다. 만일 이러한 심리동사의 뒤에 위치한 ‘到’를 생략한다면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7) a. 没想到会在这里遇见您。(森见登美彦, 『有顶天家族』)
-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 b. 没听到轰炸声, 谁也不许动, 不许放枪, 也不许扔手榴弹。(海明威, 『丧钟为谁而鸣』)
- 폭격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누구도 움직이지 말아라. 총도 쏘지 말고, 수류탄도 던지지 말아라.

(37a)와 (37b)는 ‘想了, 没想到’, ‘听了, 没听到’를 의미하지 않으며 ‘想到’, ‘听到’를 하나의 동사 성분으로 간주해야만 적절한 의미가 전달된다.

또한, ‘猜’, ‘赚’, ‘接’, ‘见’, ‘拾’, ‘提’, ‘交’, ‘占’, ‘联系’ 등 약지속 동사는 모두 吕叔湘(2015:41)의 ‘무기점 동사(无起词)’에 해당하며 의미적으로 동작의 기점이 존재하지 않는 동사이다. 이러한 유형의 동사는 동작의 시작점을 강조하지 않고 동작의 종점만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 뒤에 도달과 결과의미의 ‘到’가 출현할 경우 ‘到’와 의미적으로 일치하며 더욱 밀접한 관계로 동보구조의 동사를 구성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8) a. 好久没接到您的回信, 心中忐忑不安。(莫言, 『酒国』)
오랫동안 당신의 회신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b. 信上没提到朝圣的教堂。(海泽, 『诺贝尔文学奖文集』)
편지에서는 성지순례한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38a)와 (38b)에서 ‘接到’, ‘提到’는 모두 동보구조의 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심리동사 혹은 무기점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到’는 다른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그 앞의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동보형식의 동사를 구성한다. 부정사 ‘没’는 그 뒤에 출현하는 동보형식의 동사를 포함한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走’, ‘找’, ‘捉’, ‘爬’, ‘传’ 등 강지속 동사가 부정사 ‘没’의 뒤, ‘到’의 앞에 출현할 경우 부정사 ‘没’는 전치사구만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39) a. 没走到打谷场就听到了娘的哭声。(莫言, 『罪过』)
타작하는 마당에 도착하기 전에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b. 全部都是硬盘已有内容的复制……没找到大约有意思的东西。(村上春树, 『斯普特尼克恋人』)
모두 하드 드라이브에 이미 있는 내용을 복사한 것이라서... 좀 흥미로운 건 찾지 못했다.
c. 克丽丝汀送给丈夫的讯息也没传到他手上。(温赛特, 『克丽丝汀的一生』)
크리스틴이 남편에게 보낸 전문은 그의 손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39a)~(39c)에서 부정사 ‘没’는 각각 ‘到打谷场’, ‘到大约有意思的东西’, ‘到他手上’ 등 전치사구만을 부정한다.

‘走’, ‘找’, ‘捉’, ‘爬’, ‘传’ 등 강지속 동사는 吕叔湘(2015:12)의 ‘무종점 동사(无止词)’에 해당하며 의미적으로는 동작의 종점이 존재하지 않는 동사이다. 무종점 동사는 내동사(内动词)과 외동사(外动词)로 양분된다. 내동사는 ‘行’, ‘止’, ‘坐’, ‘卧’, ‘来’, ‘去’ 등 단방향 동사로 의도한 동작이 모두 시작점에 그치며 그 외로 확장되지 않는다. ‘猫捉老鼠’, ‘王小二过年’을 예로 들면, ‘捉’, ‘过’와 같은 외동사는 원칙적으로 ‘老鼠’, ‘年’과 같은 종점사(止词)가 존재해야 한다. 동사는 문맥에 따라서 내동사가 될 수도 있고, 외동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走’, ‘找’, ‘捉’, ‘爬’, ‘传’ 등 강지속 동사는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내동사에 속하지만, 그 뒤에 ‘到’가 출현하는 전치사구가 존재할 경우 외동사에 속한다. 즉, ‘到’가 출현하는 전치사구는 이런 동사의 종점을 시사한다. 무종점 동사의 뒤에 위치한 ‘到’는 무기점 동사와 심리동사의 뒤에 위치한 ‘到’ 및 다른 전치사와 상이한 특징이 있다. 즉, 강지속 동사는 내적 종점이 없어서 그 뒤에 위치한 ‘到’와 긴밀한 동보구조를 형성할 수 없다. 강지속 동사 뒤에 출현하는 ‘到’로 구성된 전치사구는 보어 기능을 하며, 결과의미를 나타낸다. 앞에서 이미 입증하였듯이 결과의미의 보어는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강지속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到’로 구성된 전치사구 보어는 결과의미의 보어로서 결과보어와 동일한 특징을 갖는다.

동사의 뒤에 전치사 ‘到’가 출현하는 문장 형식과 부정초점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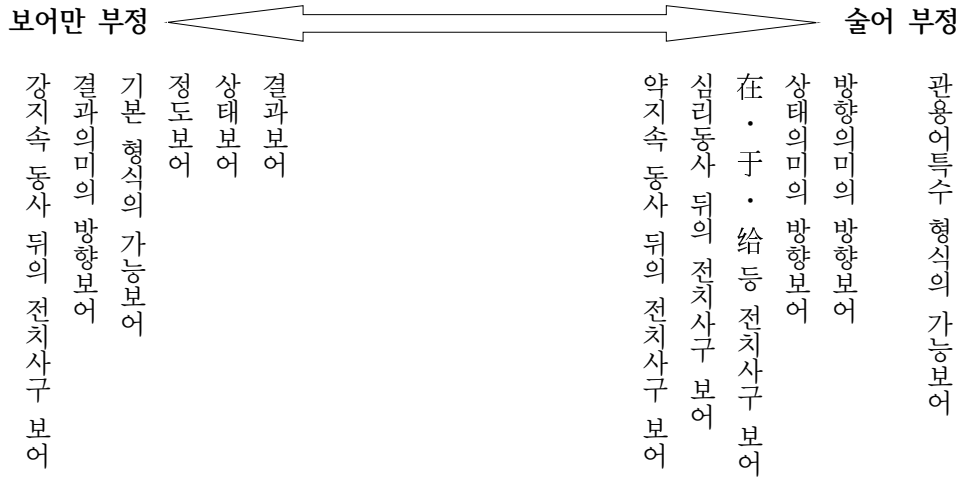
[표4-7]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및 전치사 ‘到’의 관계

동사 유형	‘到’와 결합방식	부정초점	예
심리동사	동목구조 [심리동사+到]+목적어	전체 술어	听, 看, 想, 察觉, 注意, 感觉 등 심리동사
무기점 동사 (약지속 동사)	동목구조 [무기점 동사+到]+목적어	전체 술어	赚 接 见 拾 交 占 联系 등 약지속성 동사
무종점 동사 (강지속 동사)	동보구조 무종점 동사+[到+목적어]	전치사구	走, 找, 捉, 爬, 传 등 강지속 동사

전치사 ‘到’는 심리동사 혹은 약지속 동사의 뒤에 출현할 경우 ‘在’, ‘向’, ‘于’, ‘给’, ‘自’ 등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접미사로서 동사와 함께 새로운 동보형식의 동사를 구성한다. 이런 경우에 ‘V+到+O’는 동목구조로서 부정사 ‘没’가 전치사구를 포함한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전치사 ‘到’가 강지속 동사의 뒤에 출현할 경우 ‘到’가 출현하는 전치사구는 결과의미의 보어로서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4.4 소결

이번 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과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기본형식의 가능보어, 결과의미의 방향보어, 강지속 동사 뒤에 출현하는 전치사구 보어는 모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관용어 및 특수 형식의 가능보어, 방향의미와 상태의미의 방향보어, 대부분의 전치사구 보어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4-4] 보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

결과보어는 양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으므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사와 보어 사이에 실현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보어의 경우, 동보구조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될 수 있다.

상태보어와 정도보어의 경우 상태보어의 동작 실현의 특징, 상태보어와 정도보어의 양적 특징, ‘得’의 강조 기능 등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가능보어의 기본 형식은 ‘과정 있는 완성’이고, 동작의 결과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이러한 가능보어는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가능보어 형식의 관용어와 가능보어의 특수 형식은 ‘과정 없는 완성’이고,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이러한 가능보어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의미의 방향보어는 동사 혹은 형용사인 결과보어와 마찬가지로 양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으므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방향의미와 상태의미의 방향보어는 동작의 방향, 동작의 실현과 지속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치사 ‘到’의 선행 동사가 무종점 동사(강지속 동사)일 경우 동보구조를 구성하며 이러한 동보구조는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전치사 ‘到’의 선행 동사가 심리동사 혹은 무기점 동사(약지속 동사)일 경우에는 ‘在’, ‘向’, ‘于’, ‘给’, ‘自’ 등과 같은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사를 구성하며 이러한 동사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제5장 수식어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본 장에서는 수식어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의 수식어가 어떠한 상황에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식어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5.1 부정사 ‘没’와 공기하는 수식어의 유형 분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수식어의 유형을 수식어와 중심어의 의미적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呂叔湘(1976)은 수식어를 소유성(領屬性), 묘사성(描寫性), 동위성(同位性)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丁声树(1980)는 수식어를 소유성, 동일성, 일반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朱德熙(1997), 黃伯榮(2002), 劉月華(2001) 등은 제한성(限制性)과 묘사성(描寫性)으로 양분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코퍼스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수식어의 의미와 부정초점의 분포 사이에는 명백한 관련성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수식어를 형식에 근거하여 분류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朱德熙(1984)는 수식어를 제한성 수식어와 묘사성 수식어로 구분하였다. 제한성 수식어는 사물의 성질과 특성을 묘사하며 일반적으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수량사로 구성된다. 묘사성 수식어는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고 감정적인 색채를 띠며, 주로 형용사 중첩형과 보조성분이 있는 형용사로 구성된다.

劉丹青(2008:3-4)은 유형학적 표기 모델의 관점에서 수식어를 내포 수식어(內涵定語)와 외연 수식어(外延定語)로 구분하였다. 내포 수식어는 실사성(實詞性) 혹은 개방성 성분(開放性語類)으로 명사구(名詞語) 전체에 어휘적 의미요소(즉 내포적)를 추가하는 수식어이다. 이러한 유형의 수식어는 묘사성 및 제한성 수식어를 포함하며 명사, 구별사(區別詞), 형용사, 동사, 전치사구 및 수식어 종속

절(定语从句) 등으로 구성된다.²⁸⁾ 반면, 외연 수식어는 지칭 혹은 수량성분으로 명사성 성분에 지칭 혹은 수량적 속성을 부여하여 현실·가능 세계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나타낸다. 즉, 내포된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며 외연만 나타내는 지시사, 관사, 수량사, 계량사(전량사 또는 분량사)로 구성된다.²⁹⁾

본고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수식어를 구문의 형식에 따라 아래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최대한 세분화하여 고찰하고자 한다.³⁰⁾

[표5-1] 수식어 유형

수식어 유형	형 식	
외연 수식어	수량구	没+V+수+량+N
		没+V+수+량
		没+V+량+N
		没+V+수+N
	지시사+수량구	没+V+지시사+량+N
		没+V+지시사+량
没+V+지시사+N		
내포 수식어	기 타	没+V+수식성분+N

첫 번째 유형은 ‘没+V+수사+양사+N’의 형식으로, 이 유형의 수식어와 부정

28) 영어의 경우 일부 부사도 포함된다.

29) 刘丹青(2008:3-4)从类型学标记模式角度出发, 将定语分为内涵定语和外延定语。内涵定语由实词性和开放性语类充当, 是给整个名词语增加词汇性语义要素(即内涵)的定语, 包括描写性和限制性定语, 由名词、区别词、形容词、动词、介词短语及定语从句(英语中还包括部分副词)等充当。而外延定语由指称或量化成分充当, 用来给名词语赋以指称、量化属性, 表明它在真实世界或可能世界中的具体所指范围, 即在不改变内涵的情况下指明其外延, 由指示词、冠词、数量词语、量化词语(全量或分量词语)充当。

30) 본고의 분류 중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유형은 刘丹青(2008)의 외연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수량과 지시성분의 수식어를 포함한다. 또한, 여덟 번째 유형은 刘丹青(2008)의 내포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구, 단문 등 기타 모든 유형의 수식어를 포함한다.

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 a. 陈福田完成任务就走了, 他们没谈几句话。(杨绛, 『我们仨』)
천푸텐은 임무를 끝내고 떠났는데, 그들은 몇 마디 말도 없었다.
b. 孙大爷死了, 他的老婆孩子, 没掉一滴眼泪。(莫言, 『会唱歌的强』)
손아저씨는 돌아가셨는데, 그의 아내와 아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두 번째 유형은 ‘没+V+수사+양사’로, 이 유형의 수식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 a. 没有通风设备, 连窗户也没开几个。(『人民日报』, 2001年08月16日)
통풍장치도 없고, 창문도 몇 개 안 열었다.
b. 我把这钱全数存着, 房不盖一间, 家具也没添一件。(陈忠实, 『鬼秧子乐』)
난 이 돈 전부 저축하고 있는데, 집 한 칸 짓지 않고, 가구도 하나 추가하지 않았어.

세 번째 유형은 ‘没+V+양사+N’이며, 이 유형의 수식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3) 天实在太热,她把辫子都甩到脑后去了, 也没扎个蝴蝶结。(老舍, 『鼓书艺人』)
날이 너무 더워서 그녀는 머리채를 뒤로 제치고는 나비매듭 리본도 하지 않았다.

네 번째 유형은 ‘没+V+수사+N’의 형식으로, 이 유형의 수식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4) a. 高中化学第一册等, 也没讲几课就不用了。(『人民日报』, 1957年12月08日)
고교 화학 제1권 등은 수업 몇 번 하지 않고 안 쓰게 되었다.
b. 没伤一人, 将主要犯罪嫌疑人张君抓获。(『人民日报海外版』, 2000年09月21日)
한 명도 다치게 않게 주요 범죄혐의자인 张군을 체포할 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没+V+지시사+양사+N’로서, 이 유형의 수식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5) a. 我毕竟只是店里一个保安……,也没拿那份薪水。(村上春树, 『斯普特尼克恋人』)
나는 필경 가게 경비원일 뿐이고……, 그 월급도 받지 못했다.
b. 一个背着背褡的社员只顾自己在走路, 没管这件事。(「人民日报」, 1965年10月23日)
어깨띠를 맨 사원은 홀로 걷기만 할 뿐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유형은 ‘没+V+지시사+양’로서, 이 유형의 수식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6) 上边没布置这项, 自然也没有经费。(毕淑敏, 『最后一支西地兰』)
위에서 이 항목을 편성하지 않아서 경비도 없기 마련이다.

일곱 번째 유형은 ‘没+V+지시사+N’이며, 이 유형의 수식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7) a. “我没说这事。”“北庄的事,是你母亲自己的缘故。”(山冈庄八, 『德川家康』)
“난 이 일 예기하지 않았어. 北庄 건은 네 어머니 자신의 문제야.”
b. 他十分恼怒, 没理这事……(刘白羽, 『第二个太阳』)
그는 몹시 성 나서 이 일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여덟 번째 유형은 ‘没+V+수식성분+N’의 형식으로, 이 유형의 수식어와 부정사 ‘没’가 공기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8) a. 他没穿寻常的长裤,而是穿了一条很掐身的长及膝盖的马裤。(卡森·麦卡勒斯, 『伤心咖啡馆之歌』)
그는 평범한 긴 바지 대신 무릎까지 오는 긴 승마바지를 입었다.
b. 他没哭自己的孩子, 哭道: “姓曹的, 我跟你不共戴天。”(刘震云, 『一句顶一万句』)
그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울지 않고, “조씨 성을 가진 자, 당신과 난

불구대천지 원수야.”라고 울부짖었다.

- c. 后来, 她就再没去看望住在乡下的外婆。(余华, 『夏季台风』)

이후, 그녀는 시골에 사시는 외할머니를 찾아뵙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식어를 형식에 따라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예문을 통해 각 유형의 수식어가 어떠한 상황에서 부정사 ‘没’와 공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5.2 수식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

이번 절에서는 앞 절에 이어 수식어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수식어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수식어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하는 문장을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부정사 ‘没’가 수식어만 부정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부정사 ‘没’가 수식어를 포함한 전체 목적어를 부정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부정사 ‘没’가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유형이다. 그중 ‘没+V+수량사+양사’와 ‘没+V+지시사+양사’ 구문은 각각 ‘没+V+수량사+양사+N’와 ‘没+V+지시사+양사+N’으로 간주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구문은 일반적으로 수량과 지시사로 한정된 내포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포적 대상은 전치 목적어로 ‘没’의 앞에 출현하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9) a. 上边没布置这项, 自然也没有经费。(毕淑敏, 『最后一支西地兰』)
위에서 이 항목을 편성하지 않아서 경비도 없기 마련이다.
b. 我把这钱全数存着, 房不盖一间, 家具也没添一件。(陈忠实, 『鬼秧子乐』)
난 이 돈 전부 저축하고 있는데, 집 한 칸 짓지 않고, 가구도 하나 추가하지 않았어.

(9a)에서 ‘这项’은 내포 대상 ‘任务’를 한정하며 (9b)에서 ‘家具’는 전치된 목

적어로서 ‘一件’에 의해 한정한다.

부정사 ‘没’가 수식어 성분이나 목적어 성분만을 부정하는지 혹은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은 술어 사건(술어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나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술어 사건이 발생했거나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부정사 ‘没’는 전체 술어를 부정한다. 반면, 술어 사건이 발생했거나 실현되었을 경우, 부정사 ‘没’는 수식어 혹은 목적어 성분만을 부정한다.

- (10) a. 您没回答我的问题! 为什么不回答呢?(老舍, 『全家福』)
당신은 제 질문에 대답을 못 했어요. 왜 대답하지 못 하지요?
- b. 特务们发明了那么多酷刑, 但唯独没发明使人奇痒难挨的刑法。(莫言, 『飞艇』)
첩보원들은 그렇게 많은 가혹한 형벌을 발명했지만, 사람을 참기 힘들 정도로 간지럽히는 형벌만은 발명하지 않았어요.
- c. 因为大家只管哄, 而没管经济的问题。(老舍, 『猫城记』)
모두가 달래기에만 관심을 두고, 경제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0a)의 ‘没回答我的问题’에서 동사 ‘回答’가 표현하는 동작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정사 ‘没’는 전체 술어 ‘回答我的问题’를 부정한다. (10b), (10c)의 ‘没发明使人奇痒难挨的刑法’, ‘没管经济的问题’에서 동사 ‘发明’, ‘管’이 나타내는 동작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정사 ‘没’는 각각 ‘那么多种’과 대조를 이루는 수식어 성분 ‘使人奇痒难挨的’, ‘哄’과 대조를 이루는 목적어 성분 ‘经济的问题’를 부정한다.

두 번째 기준은 문맥에 따라서 대조초점과 문장 악센트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조초점 성분은 반드시 강세를 동반하지만, 강세가 부가된 성분이 모두 초점성분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즉, 강세는 상황에 따라 활성화 강세(activation accent), 대조화제, 서술어 초점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³¹⁾ 활성화 강

31) Lambrecht(1994:258)에 따르면, (a)에서 ‘his LOVER’는 문장의 화제이며, ‘lover’에 실린 강세는 초점표지가 아니라 활성화 강세이다. 이러한 활성화 강세는 청자에게 문장의 화제가 비록 앞 문장에서 활성화된 지시체는 아니지만 뒤 문장

세와 대조화제 강제는 주어에 관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수식어에 강제가 실리는 경우 대조초점 성분으로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된다. 문말에 위치한 명사나 대명사에 강제가 부가될 경우에는 술어동사의 동작이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술어의 동작이 이미 실현되었을 경우 수식어를 포함한 전체 목적어는 대조초점으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된다. 수식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 양상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5-2] 수식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 양상

부정초점	동작의 실현 여부	강제 위치	예문
수식어	○	수식어	a. 特务们发明了那么多酷刑, 但唯独没发明使人奇痒难挨的刑法。
목적어	○	문말	b. 因为大家只管哄, 而没管经济的问题。
술어	×	문말	c. 您没回答我的问题! 为什么不回答呢?

수식어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될 경우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은 이미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며 문장의 악센트는 수식어에 부가된다. 즉 (a)의 ‘没发明使人奇痒难挨的刑法’에서 술어의 동작 ‘发明’은 이미 실현되었음을 의미하고 문장의 악센트는 수식어 ‘使人奇痒难挨’에 부가되며 ‘发明了刑法, 但不是使人奇痒难挨的刑法’를 의미한다. (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没管经济的问题’에서 술어의 동작 ‘管’은 이미 실현되었고 강제는 문말에 위치하며, 수식어를 포함한 전체 목적어 ‘经济的问题’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어 ‘管了, 但没管经济

에서 화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b)에서 ‘the children’과 ‘the parents’는 모두 문장의 화제이지만, 서로 대조관계이기 때문에 대조화제가 된다. 이외에 술어의 악센트는 서술어 초점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목적어 위치에 온다.

- a. Remember MARK, the guy we went HIKING with, who’s GAY? His LOVER just died of AIDS.
- b. The CHILDREN went to SCHOOL, and the PARENTS went to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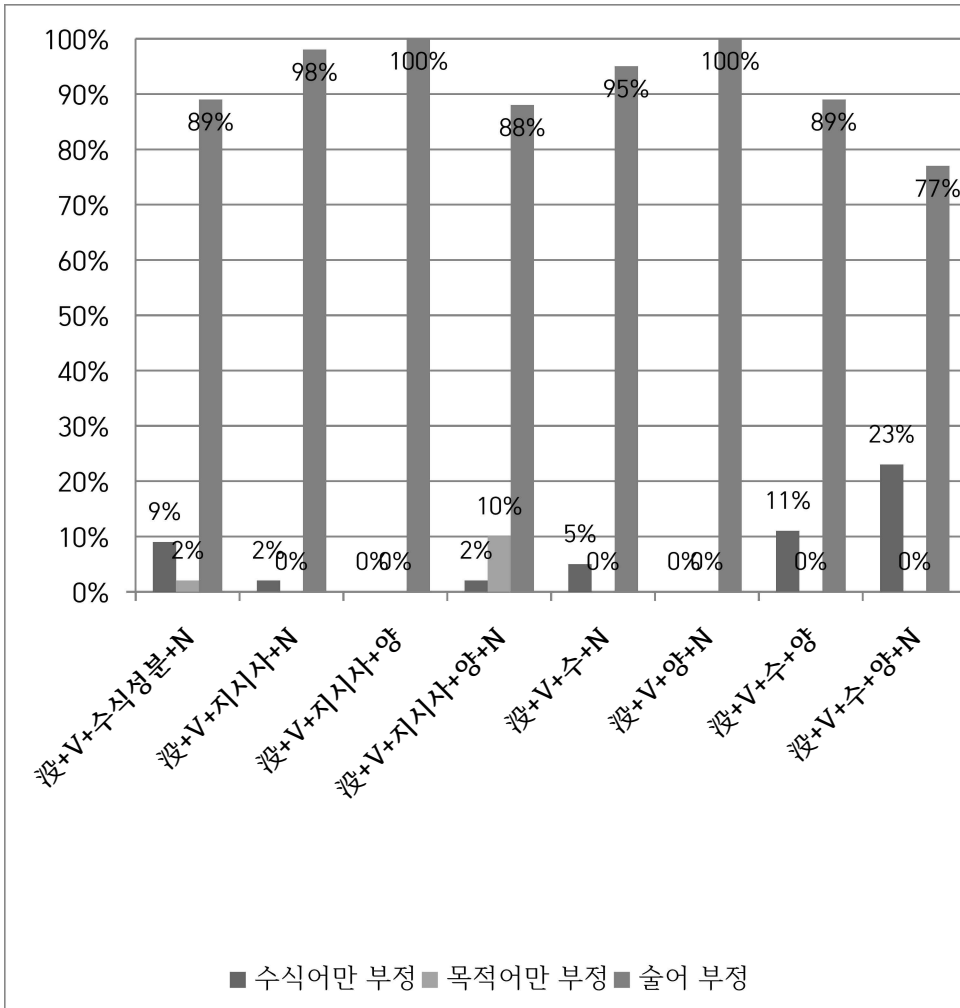
的问题’의 의미를 나타낸다. (c)의 경우에는 ‘没回答我的问题’의 동작 ‘回答’가 실현되지 않았고 강세가 문말에 위치하며 전제 술어 ‘回答我的问题’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된다.

다음으로 본고는 위와 같은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각 형식의 수식어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분포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BCC 코퍼스를 통해 부정사 ‘没’의 뒤에 수식어가 출현하는 예문을 전수조사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표5-3] 수식어의 형식에 따른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의 분포

형식	데이터	수식어				목적어		술어	
		대조초점		비초점		대조초점			
没+V+수+양+N	69	0	0%	16	23%	0	0%	53	77%
没+V+수+양	152	0	0%	17	11%	0	0%	135	89%
没+V+양+N	8	0	0%	0	0%	0	0%	8	100%
没+V+수+N	20	0	0%	1	5%	0	0%	19	95%
没+V+지시사+양+N	40	1	2%	0	0%	4	10%	35	88%
没+V+지시사+양	3	0	0%	0	0%	0	0%	3	100%
没+V+지시사+N	52	1	2%	0	0%	0	0%	51	98%
没+V+수식성분+N	451	35	8%	5	1%	9	2%	402	89%
총계	795	37	4%	39	5%	13	2%	706	89%

아래는 [표5-3]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5-1] 수식어의 형식에 따른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의 분포

부정사 ‘没’가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문장은 89%로서 절대적인 우세를 보였다. 또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비록 수식어의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지만, 코퍼스 분석 결과를 통해 아래의 [표5-4]와 같이 상당히 일관된 분포 규칙을 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5-4] 수식어와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

수식어 형식	부정초점		
	수식어	목적어	술어
几/两+양사	○ 100%		
비‘一’ 수사 ³²⁾ +양사	○ 5%		○ 95% V:超过,达到의미
一/半+양사			○ 100%
这/那+양사	○ 2% 대조초점	○ 4% 대조초점	○ 94%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구, 단문등	○ 9% 대조초점	○ 2% 대조초점	○ 89%

우선, 수식어나 수식어를 포함한 목적어가 대조초점이라면 수식어의 형식과 상관없이 모두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된다. 다음으로 수식어가 ‘几/两/비‘一’ 수사+양사’일 경우 수식어 성분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중 동사가 초과(超过)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뒤에 구체적인 수량사가 있더라도 부정사 ‘没’는 전체 술어를 부정한다. 마지막으로 수식어 성분이 ‘一/半+양사’일 경우, 지시사 ‘这/那+양사’가 대조초점이 아닐 경우, 문장이 서술어 초점 구조일 경우 모두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5.3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3.1 신정보 전제 원칙

수식어를 포함한 목적어가 부정사 ‘没’의 뒤에 올 경우, 부정사 ‘没’는 전체 술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89%로 나타났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32) 본고의 비‘一’수사는 1 을 제외한 정수를 의미한다.

- (11) a. 爸爸没回应我刚才提出的意见, 反而对我提出这样的问题。(乔斯坦·贾德, 『纸牌的秘密』)
아빠는 내가 방금 한 의견에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 b. 费尔米纳没请她进屋, 也没表示任何回心转意的态度。(加西亚·马尔克斯, 『霍乱时期的爱情』)
페르미나...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마음을 돌리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 c. 肯尼迪对此没有答复, 也没动用那笔钱。(「人民日报」, 1995年05月14日)
케네디는 이에 대한 대답도 없고, 그 돈도 쓰지 않았다.

(11a)~(11c)에서, 부정사 ‘没’는 각각 술어인 ‘回应我刚才提出的意见’, ‘表示任何回心转意的态度’, ‘动用那笔钱’를 부정한다. 이는 대부분 수식어가 ‘신정보 전제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DuBois(1980)에 따르면, 제한적 수식어는 전달하는 정보가 신정보이더라도 문장 전체 내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식어의 위치에 출현할지라도 단언이 아닌, 전제(presupposition)로 해석된다. DuBois(1980)는 이 같은 현상을 ‘신정보 전제 원칙(principle of new information presupposition)’으로 정의하였다. 王红旗(2001:63)에 따르면 중국어에는 영어와 같은 종속절은 없지만, 중국어의 수식어에도 이러한 신정보 전제가 존재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2) a. 你听说过太阳从西边出来的怪事吗?
당신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괴이한 일 들어본 적 있어?
- b. 县官的酒宴开始了, 他把前来祝寿的阉猪匠都请来坐一桌.
현관의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생일축하 하러 온 돼지 거세 장수에게 같은 탁자에 앉도록 하였다.

(王红旗, 2001:63)

(12a)와 (12b)에서 “太阳从西边出来”와 “有些阉猪匠来祝寿”는 신정보이지만 전체 내용의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화자는 청자가 문맥과 상식에 따라 이러한 실체를 식별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술어가 아

난 식별 가능한 수식어 형태로 나타난다.

钱敏汝(1990), 沈家煊(1999) 등 일부 학자들은 수식어 성분이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기가 더 쉽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수식어가 문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보라서 부정되기 더 쉽기 때문이다. 张耕(2022:80-81)은 제한성, 비제한성, 동일성의 세 가지 의미기능의 수식어를 대상으로 부정 테스트를 진행하여 비제한성 수식어가 문장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시도하였다.³³⁾ 그러나 제한성과 동일성 수식어는 초점으로서 내재된 수단을 사용하여 돋보이는 내용을 전달한다. 그의 첫 번째 논거는 비제한성 수식어가 (13a)와 같이 부정사로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한성과 동일성 수식어는 (13b)와 (13c)와 같이 부정사로 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논거는 제한성과 동일성 수식어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중심어 정보량이 매우 낮으면 문장성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중심어를 제한하는 수식어는 문장 정보량에 대한 기여도가 중심어 자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두드러진다.

- (13) a. 有一天, 那个很漂亮的密司杨问我: “那高个儿, 是你的什么人呢?”(丁玲, 『莎菲女士的日记』)
어느 날, 그 예쁜 미스양은 “그 키 큰 사람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물었다.
- a'. *不, 那个密司杨不漂亮。
아니, 그 미스양은 예쁘지 않아.

33) 张耕(2022:80)에 따르면 제한성 수식어는 (a)와 같이 중심어 ‘办公室’가 수식어 성분 ‘[ti]价格极其低廉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이다. 비제한성 수식어는 (b)의 ‘很漂亮’과 같이 중심어를 한정하지 않고 묘사하는 경우이다. 동일성 수식어는 (c)와 같이 중심어 ‘情况’이 수식어 ‘他人呕吐不止, 十分痛苦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이다. 즉, 수식어 ‘他人呕吐不止, 十分痛苦的’가 의미하는 것은 중심어 ‘情况’과 같다.

- (a) 7月份, 史玉柱到上海预付了一笔定金, 在上海金玉兰广场租下了两间价格极其低廉的办公室。(『史玉柱传奇』)
- (b) 有一天, 那个很漂亮的密司杨问我: “那高个儿, 是你的什么人呢?”(丁玲, 『莎菲女士的日记』)
- (c) 在发现他人呕吐不止、十分痛苦的情况下, 行为人自动将他人送往医院抢救。

- b. “应试教育”把应试作为唯一或主要的教育目标，是一种十分狭隘的教育模式，这种狭隘的教育模式正把中国基础教育引进死胡同，弊端显而易见。(CCL, 『中文学术文献』)
‘응시교육’은 시험 합격을 유일하거나 주요한 교육 목표로 삼는 교육 모델이고, 이런 편협한 교육 모델은 현재 중국 기초 교육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으며 폐단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 b’. 不, 这种教育模式没有那么狭隘。
아니다, 이런 교육 모델은 그렇게 편협하지 않다.
- c. 规范教学内容,防止教学过于偏重智力的倾向。(CCL, 『中文学术文献』)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는 것은 교육이 지능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을 방지한다.
- c’. 不, 要防止的不是教学过于偏重智力。
아니다, 방지해야 하는 것은 교육이 지능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이 아니다.

(张耕, 2022:81)

본고는 제한성, 비제한성 및 동일성 수식어가 정보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식어에 비교의 의미가 없을 경우 신정보를 전달하는 전제로 사용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13a)에서 수식어가 부정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이 수식어가 비제한성 수식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 성분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수식어가 목적어 위치에 출현한다면 (14a’)와 같이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3b)와 (13c)에서 목적어의 위치에 있는 수식어가 주어 위치로 이동한다면, (14b’)와 (14c’)처럼 문장이 성립될 수 없다. 문두에 위치한 수식어는 화제로서 문장 전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목적어는 서술어 초점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목적어에 위치한 수식어 성분을 부정함으로써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14) a. 她是一个很漂亮的女人。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야.
- a’. 不, 她不漂亮。
아니, 그녀는 예쁘지 않아.

- b. 这种十分狭隘的教育模式正把中国基础教育引进死胡同, 弊端显而易见。(CCL, 『中文学术文献』)
 이런 편협한 교육 모델은 현재 중국 기초 교육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으며 폐단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 b'. *不, 这种教育模式没有那么狭隘。
 아니다, 이런 교육 모델은 그렇게 편협하지 않다.
- c. 教学过于偏重智力的倾向已经在这次教改中改善了。(CCL, 『中文学术文献』)
 지나치게 지능을 중시하는 경향은 이번 교육개혁에서 이미 개선됐다.
- c'. *不, 改善的不是教学过于偏重智力。
 아니다, 개선된 것은 교육이 지능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13b), (13c)에서 수식어가 모두 신정보이지만, ‘신정보 전제 원칙’에 따르면 뒤에 오는 중심어를 한정하는 전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두 서술어 초점 구조로서 전체 술어 사건을 강조한다. 따라서 두 문장에 대해서 질문할 경우에는 (15A)와 (16A)의 ‘什么是应试教育?’, ‘规范教学内容, 应该做什么?’와 같이 술어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만일 ‘应试教育一种什么教育模式?’, ‘规范教学内容, 应该防止什么倾向?’와 같이 수식어에 대해 질문하면 (15B)와 (16B)의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 (15) A: 什么是“应试教育”?
 ‘응시교육’은 무엇인가?
 *“应试教育”是一种什么教育模式?
 *‘응시교육’은 일종의 어떤 교육 모델인가?
- B: “应试教育”把应试作为唯一或主要的教育目标, 是一种十分狭隘的教育模式, 【这种狭隘的教育模式正把中国基础教育引进死胡同, 弊端显而易见。其消极因素主要表现在以下几方面: ……】
 ‘응시교육’은 시험 합격을 유일하거나 주요한 교육 목표로 삼는 교육 모델이고, 이런 편협한 교육 모델은 현재 중국 기초 교육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으며 폐단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그 부정적인 원인은 주로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 (16) A: 规范教学内容, 应该做什么?

교육 내용을 규정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规范教学内容, 应该防止什么倾向?

*교육 내용을 규제할 때, 어떤 편향을 방지해야 할까요?

B: 规范教学内容, 应该防止教学过于偏重智力的倾向。【为此,草案规定,学校应把德育放在首位, 形成德育教育体系; 应保证学生的课外活动时间, 组织学生开展社会实践, 文化娱乐等课外活动; 不得以任何名义编排重点班。】

교육 내용을 규정할 때, 교육이 지나치게 지능에 치우치는 경향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안은 학교가 도덕교육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덕교육 체계를 형성하도록 규정하였다.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사회실천, 문화오락 등 방과 후 활동을 추진하도록 조직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특별반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수식어 성분은 한정성, 비한정성 및 동일성과 상관없이 대조를 의미하지 않으면 신정보를 전달하더라도 보통 문장의 전제로서 서술어 초점 구조를 구성한다. 따라서 수식어는 부정사 ‘没’의 뒤에 위치할 경우 술어의 일부로서 다른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된다.

‘신정보 전제 원칙’은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구, 단문 등 수식어 성분이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식어 성분이 수량인 경우에는 ‘신정보 전제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본고는 다음 절에서 수식어가 수량 성분인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5.3.2 차등부정

수식어가 ‘几/两/比‘一’수+양사’일 경우 부정사 ‘没’는 수량을 표현한 수식어 성분을 단독으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7) a. 办厂好几年, 没赚几个钱。(「人民日报」, 1976年07月24日)
몇 년 동안 공장을 운영했지만, 돈을 몇 푼밖에 벌지 못했다.
- b. 虽然两人一起待了十五分钟, 话却没说两句。(爱诗乐·沛克, 『忧伤的时候,到厨房去』)

비록 두 사람은 함께 15분을 보냈지만, 말은 두 마디도 하지 않았다.

- c. 他们用篙撑，舟桥光在原地打转，离岸一小时，还没走二百米。(「人民日报」，1969年05月29日)

그들은 장대로 배를 밀고 가려 했지만, 배는 제자리에서만 맴돌 뿐, 해안을 떠나서 1시간이 되어도 200m도 가지 못했다.

(17a)~(17c)와 같이 부정사 ‘没’는 각각 수식어 ‘几个’, ‘两句’, ‘二百米’를 부정한다. (17a)와 (17b)에서 수식어 ‘几个’, ‘两句’가 어림수이기 때문에 부정사 ‘没’는 이러한 어림수를 부정하며 소량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17a)와 (17b)는 각각 ‘赚钱了, 但不多’, ‘说话了, 但说得很少’를 의미한다. (17c)는 수식어 ‘二百米’가 구체적인 수량이기 때문에 ‘走了, 但走了不到二百米’를 의미한다.

Jespersen(1924)은 범언어적으로 부정사는 모두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 함(less than)’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not good’은 ‘excellent’가 아닌 ‘inferior’를 의미하고, ‘not warm’은 ‘warm’과 ‘hot’ 사이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warm’보다 낮은 온도를 의미한다. Jespersen은 모든(또는 대부분)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사가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 함(less than)’ 혹은 ‘수식된 단어와 0 사이에 있음’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石毓智(1992 : 27)는 이러한 현상을 ‘차등부정(差等否定, less than negation)’이라고 불렀으며, 중국어의 부정사 ‘不’와 ‘没’도 모두 ‘less than’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不很好’는 ‘很好’와 ‘坏’ 사이의 어떤 정도를 의미하고, ‘小赵没一米八高’는 小赵의 키가 1.8m 미만이며 1.8m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앞의 (17c)는 구체적인 수량 ‘二百米’가 있으므로 ‘차등부정(等差否定)’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정사 ‘没’는 ‘二百米’를 부정하여 ‘二百米’ 미만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부정초점은 문장의 수식어 성분임을 알 수 있다.

부정사는 구체적인 수량을 부정할 경우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 함(less than)’을 의미하지만, 수식어 성분이 ‘几’, ‘两’과 같은 어림수일 경우 부정사 ‘没’는 어림수를 부정함으로써 소량의 의미를 나타내며 문장에 어감을 더한다. 이러한 부정사 ‘没’의 기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 첫째, 부정사의 부정대상은 반드시 한 연추서열(Entailment, 衍推序列)에 속해야 한다. 둘째, 부정사는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 함(less than)’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수량에 근

접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우선 郭锐(2006:14-15)에 따르면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 함(less than)’의 의미는 부정사 ‘没’ 자체로 나타낼 수 없으며, 연추관계와 부정사의 공동작용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부정사의 부정대상은 반드시 연추서열에 속해야 하며 부정사가 이 서열 내에서 상위 수량을 부정함으로써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 함’을 의미한다.

- (18) a. 他身高有一米八。 그는 신장이 180cm이다.
 ⇒ 他身高有一米七。 그는 신장이 170cm이다.
 ⇒ 他身高有一米六。 그는 신장이 160cm이다. (연추서열에 속한다)
- b. 他身高没有一米八。 그의 신장이 180cm이 되지 않는다.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 함’을 의미한다.)
- (19) a. 他身高是一米八。 그는 신장이 180cm이다.
 ⇒ 他身高是一米七。 그는 신장이 170cm이다.
 ⇒ 他身高是一米六。 그는 신장이 160cm이다. (연추서열에 속하지 않는다)
- b. 他身高不是一米八。 그는 신장이 180cm가 아니다.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郭锐, 2006:14-15)

위와 같이 부정사 ‘不/没’는 여전히 ‘非’를 의미하지만, 연추서열에서 등가의 미(等值义)를 나타낼 경우에만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 함’의 의미를 내포한다.

다음으로 石毓智(1992:37-38)는 부정범위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저량급(低量级)에 대한 부정은 고량급(高量级)에 대한 부정을 내포하지만, 고량급(高量级)에 대한 부정은 저량급(低量级)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我没买五本书’는 ‘我没买六本书’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我没买三本书’를 의미하지 않는다. 둘째, 부정대상의 양적 등급(量级)이 낮을수록 부정범위는 커진다. 예를 들어 ‘我买一本书’에서는 최소량을 부정함으로써 전체부정을 의미한다. 셋째, 특정 수량을 부정하면, 이 수량은 특정 수량에 가장 근접하는 작은 수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水塔没有十米高’에서 수탑의 높이는 10m에

가장 근접하는 작은 수치이어야 하며 1~2m가 될 수 없다.

‘几’, ‘两’과 같은 어림수는 그 자체로도 소량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20a)와 (20b)에서 ‘没赚几个钱’, ‘没说两句’는 긍정형식의 ‘就赚了几个钱’, ‘只说了两句’로도 표현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어림수 앞에 부정사 ‘没’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문장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几’와 ‘两’가 저량급(低量级)부터 고량급(高量级)까지의 연추서열 중에서 소량의 등급에 속한 한 구간이기 때문이다. ‘几’, ‘两’와 같은 어림수는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될 경우 이 어림수에 근접하는 작은 수치를 의미하면서 ‘소량’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 (20) a. 办厂好几年, 没赚几个钱。 = 办厂好几年, 就赚了几个钱。
 몇 년 동안 공장을 운영했는데 돈을 몇 푼 못 벌었다. = 몇 년 동안 공장을 운영했는데 돈을 몇 푼만 벌었다.
- b. 话却没说两句。 = 话却只说了两句。
 말은 두 마디도 하지 않았다. = 말은 두 마디만 했다.

5.3.3 완전부정

수식어가 ‘一’ 혹은 ‘半’일 경우, 부정사 ‘没’는 전체 술어 성분을 부정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1) a. 阿圆带着我, 没走一步冤枉路。(杨绛, 『我们仨』)
 아위안가 나를 안내해줘서, 한 걸음도 헛걸음하지 않았다.
- b. 反正我问心无愧, 我在电视买卖中没赚一分钱。(王朔, 『橡皮人』)
 어쨌든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어, 나는 텔레비전 장사에서 한 푼도 벌지 못했어.
- c. 回程他和克丽丝汀没说半句话。(温赛特, 『克丽丝汀的一生』)
 돌아오는 길에 그와 크리스틴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21a)~(21c)에서 부정사 ‘没’는 각각 술어인 ‘走一步冤枉路’, ‘赚一分钱’, ‘说半句话’를 부정하며 ‘一步冤枉路都没走’, ‘一分钱都没赚’, ‘半句话都没说’과 같은

극성부정(极性否定)의 의미를 나타낸다.

위에서 소개한 石毓智(1992)의 부정범위 규칙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소 단위를 부정하면 전체 범위도 함께 부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소량에 대한 부정을 통해 전체 범위도 부정할 수 있다. 또한, 石毓智(1992:41-44)는 ‘一+양사’가 완전부정을 하려면 ‘一’이 기타 수사로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一句, 一口, 一点, 一张’ 등은 ‘一’가 다른 수사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부정의 형식을 구성할 수 있지만, ‘一刹那, 一番, 一骨碌, 一阵子’ 등은 ‘一’가 다른 수사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부정의 형식을 구성할 수 없다. 물론 이 규칙에도 다음의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一点’, ‘一瞬间’에서 ‘一’는 다른 수사로 대체될 수 없지만, ‘没吃一点亏’, ‘没迟疑一瞬间’은 여전히 완전부정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一点’과 ‘一瞬间’은 모두 양적 등급(量级)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石毓智(1992)의 부정범위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一点’과 ‘一瞬间’은 모두 수량과 시간 서열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완전부정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수사+양사’는 양적 등급(量级) 유무 여부에 따라서 완전부정을 구성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BCC 코퍼스에서 부정사 ‘没’의 뒤에 ‘一/半+양사’가 출현하는 문장은 모두 완전부정의 조건에 부합된다. 여기서 ‘一/半+양사’는 모두 수량 서열 내에서 최소량을 의미하며 부정사 ‘没’는 이 최소량 성분이 포함된 목적어 성분을 부정함으로써 전체 술어 사건의 발생을 부정한다. 즉, 목적어에 ‘一/半+양사’ 성분이 있을 경우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은 술어 전체가 된다.

‘几/两+양사’와 ‘一/半+양사’는 모두 수량 성분이지만, 어림수 ‘几/两+양사’는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반면, 최소량인 ‘一/半+양사’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된다. 본고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첫째, ‘几/两+양사’는 소량을 의미하지만, ‘一/半+양사’와 같이 최소량을 나타낼 수는 없다. 둘째, 부정사 ‘没’가 ‘一/半+양사’에 의해 한정되는 목적어를 부정할 경우 모두 ‘连……都/也……’구문으로 변환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2) a. 没走一步冤枉路。= 连一步冤枉路都没走。
 한 걸음도 헛걸음하지 않았다.
- b. 我在电视买卖中没赚一分钱。= 我在电视买卖中连一分钱都没赚。
 나는 텔레비전 장사에서 한 푼도 못 벌었다.
- c. 回程他和克丽丝汀没说半句话。= 回程他和克丽丝汀半句话都没说。
 돌아오는 길에 크리스틴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완전부정의 의미가 ‘没+V+一/半+양사……’ 전체 구문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부정사 ‘没’는 전체 구문형식의 부분으로서 동일 형식 내에 있는 다른 성분을 개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5.3.4 동사의 결과의미

앞에서 보았듯이 목적어에 ‘一’ 이외의 구체적인 수량이 출현할 경우에는 부정사 ‘没’가 일반적으로 수량을 단독으로 부정하게 되며 이러한 문장은 ‘이 수량보다 적거나 이 수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부정사 ‘没’의 의미기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코퍼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BCC 코퍼스에서 부정사 ‘没’가 수량사와 함께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 함’을 의미하는 문장은 많지 않지만, ‘超过, 达到, 突破, 到’ 등 초과와 도달 의미의 동사가 부정사 ‘没’ 뒤에 출현할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한다. 이 경우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3) a. 经营三年, 但仅能播种两万五千亩, 每年收获总量, 从没超过八十万斤稻子。(「人民日报」, 1949年04月20日)
 3년 동안 운영했지만 2만5천묘만 파종할 수 있었고, 매년 총 수확량은 80만근을 넘은 적이 없다.
- b. 佩德罗索6跳中5跳失败, 只以第一跳的8米42获冠军, 第七名还没达到8米。(「人民日报」, 1997年08月07日)
 페드로소(佩德罗索)는 여섯 번 도약 중에서 다섯 번 도약에 실패하였는데, 그저 첫 번째 도약에서 8.42m로 우승을 차지했고, 제7위는 8m에도 미치지 못했다.

c. 那时我还没到十八岁。(奥尔罕·帕慕克, 『纯真博物馆』)

그때 나는 아직 열여덟 살도 되지 않았다.

(23a)~(23c)와 같이 부정사 ‘没’는 각각 ‘超过八十万斤稻子’, ‘达到8米’, ‘到十八岁’를 부정하여 ‘매년 총 수확량은 80만 근 미만’, ‘제7등은 8m 미만’, ‘나는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부정사 ‘没’가 수량사와 함께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할 경우 부정초점은 수량사이다. 그러나 부정초점은 전체 술어, 전체 목적어 성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한다. (24a)는 부정사 ‘没’가 수식어인 ‘80만 근’을 부정하면 ‘매년 수확했지만 80만 근 미만’으로 해석되지만, 부정사 ‘没’가 술어 전체를 부정할 경우 ‘매년 수확하지 않음(우리처럼 매년 80만 근을 수확하지 않음)’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동사가 ‘超过, 达到, 突破, 到’ 등처럼 자체적으로 초과와 도달의 의미를 내포하면 이 같은 중의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문장에서 전후 의미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부정사 ‘没’가 이러한 초과와 도달 의미의 동사를 부정할 때 뒤에 위치한 수량을 반드시 동시에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동사가 부정된 후에 의미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뒤에 위치한 수량이 반드시 동시에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정사가 이러한 유형의 동사와 공기할 경우에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게 된다. (24b)와 같이 부정사 ‘没’가 수식어만 단독으로 부정하면, ‘이미 초과하였다’와 ‘80만 근 미만’은 명백한 의미적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정사 ‘没’는 전체 문장인 ‘超过八十万斤’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4) a. 经营三年, 每年从没收获过八十万斤稻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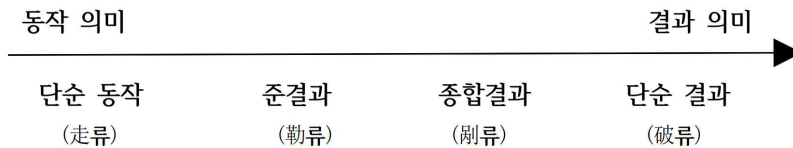
3년 동안 운영하였는데, 매년 80만 근의 벼를 수확한 적은 없었다.

b. 经营三年, 每年收获总量, 从没超过八十万斤稻子。

3년 동안 운영하였는데, 매년 총 수확량은 80만 근을 넘은 적이 없다.

이러한 유형의 동사는 수량을 포함하는 목적어 성분과 함께 부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동사는 모두 결과의미 동사이기 때문이다. 张苗苗·谭景春 (2022:42-45)은 의미 동사를 [그림5-2]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째는 단순결과동사(单纯结果义动词)는 동작의 의미가 모호하지만 주로 결과의 의미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手破了’의 ‘破’는 동작이 불명확하지만 결과가 ‘破’이다. 둘째, 종합결과동사(综合结果义动词)는 동작의 의미와 결과의 의미를 모두 갖춘 동사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刷了个口子’의 ‘刷’는 동작의 의미의 ‘划’와 결과의 의미의 ‘破’를 모두 갖추고 있다. 셋째, 준결과동사(准结果义动词)는 결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맥에 따라서 결과를 부각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동사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勒手’의 ‘勒’는 동작 ‘勒’를 강조하지만, ‘勒了几道血痕’의 ‘勒’는 ‘勒’의 결과를 강조한다. 넷째, 단순동작동사(单纯动作类动词)의 핵심의미는 동작과 행위이다. 예를 들어 ‘走’는 동작과 행위만 의미한다.



[그림5-2] 张苗苗·谭景春(2022:45)의 결과 의미 동사의 의미적 연속체

‘超过’, ‘达到’, ‘突破’ 등 초과와 도달 의미의 동사는 종합결과동사에 속하고, ‘到’는 단순결과동사에 속하며 두 유형의 동사는 모두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부정사 ‘没’가 결과 의미의 동사를 부정할 경우 동작의 결과도 직접 부정하게 된다. 만일 동작의 결과가 부정되면 동사 뒤의 수량 성분도 동작의 결과로서 함께 부정된다.

그러나 동사의 결과 의미는 부정사 ‘没’가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부정사 ‘没’는 일부 종합결과동사와 단순결과동사 뒤에 출현하는 수식어 성분도 단독으로 부정할 수 있다. (25)에서 ‘断’과 ‘破’는 모두 단순결과동사이지만, 두 문장의 부정사 ‘没’는 모두 수식어 성분 ‘几根’, ‘几个’만을 단독으로 부정하여, ‘기둥은 부러졌으나 몇 개밖에 안부러졌다’와 ‘구멍을 뚫었지만 몇 개밖에 안뚫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断/破’와 같은 단순결과동사와 초과 및 도달을 의미하는 동사는 모두 결과 의미를 나타내지만, ‘수량’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자의 ‘수량’은 보충 정보이지

만, 후자의 ‘수량’은 문장의 성립 조건이다. (25a), (25b)에서 수량이 없어도 여전히 ‘柱子没断’, ‘袜子没破’는 성립할 수 있지만, (25c)~(25e)에서는 수량이 없으면 ‘每年收获总量,从没超过’, ‘第七名还没达到’, ‘那时我还没到’가 성립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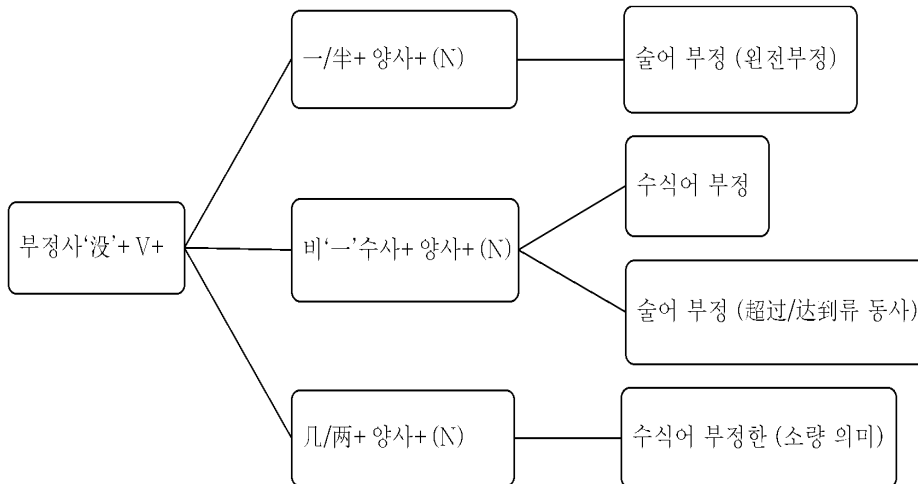
- (25) a. 柱子没断了几根桥就塌了。
기둥이 몇 개 부러지지 않았는데 다리가 무너져버렸다.
- b. 袜子没破几个洞, 再穿一段吧!
양말에 구멍이 몇 개밖에 안 났으니, 더 신어라!
- c. 每年收获总量,从没超过八十万斤稻子。
매년 총 수확량은 80만 근을 넘은 적이 없다.
- d. 第七名还没达到8米。
제7위는 8m에도 못 미쳤다.
- e. 那时我还没到十八岁。
그때 나는 아직 열여덟 살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식어가 ‘一’ 이외의 구체적인 수일 경우 만약에 동사가 결과의미 동사이고 수량 성분이 이 동사 결과의 필수성분이면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론은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26)에서 동사 ‘低于’는 비록 초과와 도달 의미의 동사는 아니지만, 결과의미를 나타내고, 수량 성분이 이 동사 결과의 필수성분이어서 초과와 도달 의미의 동사와 동일하게 기능한다. (26)에서도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인 ‘低于500分’를 부정하며 ‘시험이 계속 500점 이상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 (26) 上高中后, 期中, 期末考试从没低于500分。(「人民日报」, 1999年01月21日)
고등학교 입학 후, 중간, 기말 고사 500점 아래로 떨어진 적 없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과 수량사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처럼 도식화할 수 있다. 수식어가 ‘一/半+양사’일 경우 ‘没+V+一/半+양사+(N)’가 하나의 형식으로서 전체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사 ‘没’

는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 수식어가 ‘一’ 이외의 구체적인 수일 경우에는 부정사 ‘没’가 주관감량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부정사 ‘没’는 수량인 수식어를 단독으로 부정하며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 코퍼스에서 ‘一’ 이외의 구체적인 수인 수식어는 모두 ‘超过’, ‘达到’, ‘突破’, ‘到’ 등 초과와 도달 의미의 동사 뒤에 나타난다. 이 경우 수량 성분은 문장의 성립조건이기 때문에 동사와 함께 전체 형식으로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된다. 수식어가 ‘几/两+양사’와 같은 어림수일 경우 부정사 ‘没’는 이러한 어림수를 단독으로 부정하여 소량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림5-3] 수량 수식어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의 분포 양상

5.3.5 대조초점 수식어

대조초점은 수식어를 포함한 문장에서도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영향 요소이다. 수식어 성분은 대조초점이라면 수량 성분, ‘지시사+양사’,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구, 단문 등 유형에 상관없이 다른 모든 영향 요인보다 우선적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된다. 수식어 성분은 문맥에서 상응하는 대조대상이 존재하면 대조초점이 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7) a. 他没穿寻常的长裤, 而是穿了一条很掐身的长及膝盖的马裤。(卡森·麦卡勒斯, 『伤心咖啡馆之歌』)
그는 평범한 긴 바지 대신 무릎까지 오는 긴 승마바지를 입었다.
- b. 她犯的是一枪之罪, 没犯千刀万剐的罪。(莫言, 『丰乳肥臀』)
그녀가 저지른 죄는 총살형 감이지, 능지처참형 감이 아니다.

(27a)의 경우 수식어 ‘寻常的’와 ‘一条很掐身的长及膝盖的’가 대조를 이루고, (27b)의 경우에는 수식어 ‘千刀万剐的’와 ‘一枪的’가 대조를 이룬다. 두 예문에서 부정사 ‘没’는 각각 대조초점인 수식어 성분 ‘寻常的’, ‘千刀万剐的’을 부정하며 ‘내가 입고 있는 긴 바지는 몸에 꼭 끼는 무릎까지 오는 긴 승마바지이고, 보통 바지가 아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은 총 한 방 쏘는 것이지, 천 번 칼로 베는 것이 아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간혹 대조초점의 대조의미를 문맥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8) a. 他多么希望警方没有没收他的手枪, 也后悔当时没买两把手枪。(戴维·莫雷尔, 『较量』)
그는 경찰이 그의 권총을 압수하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던지, 당시 권총 두 자루를 사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 b. 我毕竟只是店里一个保安, 复杂情况一一考虑不来, 也没拿那份薪水。(村上春树, 『斯普特尼克恋人』)
나는 어쨌든 가게의 경비원일 뿐이고, 복잡한 상황을 일일이 고려할 수도 없고, 그만큼 월급도 받지 않았다.

(28a)는 ‘他的唯一一把枪被没收了’의 의미를 내포하며, ‘一把’는 뒤 문장의 ‘两把’와 대조를 이룬다. (28b)의 경우에는 ‘我拿的只是保安的薪水’의 의미를 내포하며, ‘保安的’는 뒤 문장의 ‘那份’과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은 각각 ‘나는 그때 총을 한 자루만 샀는데, 두 자루가 아닌 것을 후회한다’, ‘내가 받는 것은 경비원의 월급이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한) 월급이 아니다’를 의미한다.

수식어가 대조초점일 경우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될 뿐만 아니라, 수식어를 포함한 전체 목적어가 대조초점인 경우에도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된다. 아래 예문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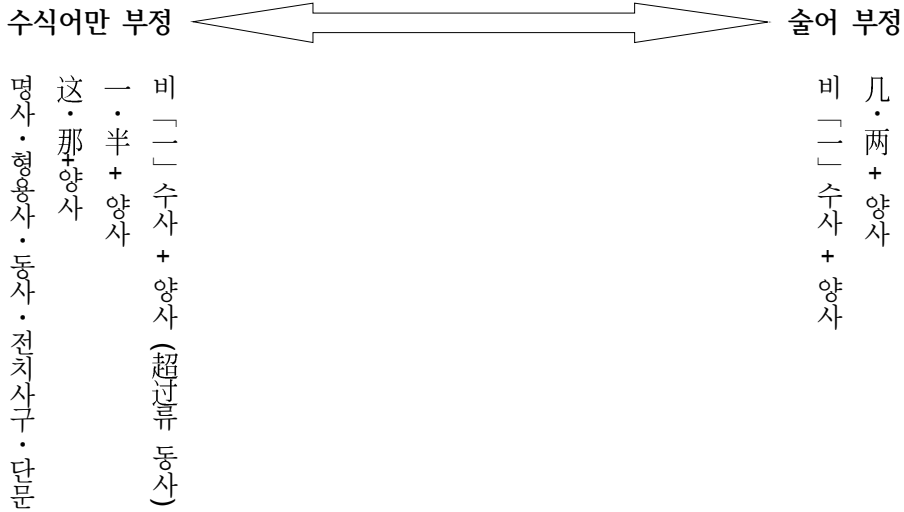
- (29) a. “再买辆车?”老头子又露出虎牙, 似乎是说“自己买上车, 还白住我的地方?!”“不够! 买就得买新的!”祥子没看刘四爷的牙, 只顾得看自己的心。(老舍, 『骆驼祥子』)
 “차를 다시 산다고요?” 영감(류씨 넷째 도련님)은 또다시 덧니를 드러냈다. 마치 “새 차를 사고 나한테 얹혀살아?!” “부족하지! 사려면 새 차를 사야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상쓰는 류씨 넷째 도련님의 치아를 쳐다보지 않고(상쓰는 류씨 넷째 도련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만 살폈다.
- b. 最后他又讲了主人的情况,可是没说自己在客店被人用被单扔的事情。(塞万提斯, 『堂吉诃德』)
 결국 그는 주인의 사정을 또 얘기했지만, 객잔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불 커버를 내던진 건 말하지 않았다.

(29a)에서 ‘刘四爷的牙’는 실제로 ‘刘四爷的意思’를 의미하기 때문에 (29a)의 실제 의미는 ‘祥子只想着自己的心愿, 没想刘四爷的意思’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9a)의 경우 목적어 ‘刘四爷的牙’와 ‘自己的心’는 대조를 이루며 (29b)의 경우에는 목적어 ‘主人的情况’와 ‘自己在客店被人用被单扔的事情’가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위의 두 예문에서 부정사 ‘没’는 각각 대조초점인 목적어 성분 ‘刘四爷的牙’, ‘自己在客店被人用被单扔的事情’을 부정하며, 각각 ‘我考虑的是自己的心愿,不是刘四爷的牙’, ‘讲的是主人的情况,不是自己在客店被人用被单扔的事情’의 의미를 나타낸다.

5.4 소결

본 장의 분석을 종합하면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대조초점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수식어나 수식

어를 포함한 목적어 전체가 대조초점이라면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된다. 문장에 대조초점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림5-4] 수식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분포

첫째, ‘几/两+양사’, ‘비‘一’수사+양사’, ‘很多’ 등의 수식어는 모두 차등부정으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량 의미와 ‘~보다 적음/~에 이르지 못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비‘一’수사 +양사’의 수식어가 초과와 도달 의미의 동사 뒤에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수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셋째, 수식어 ‘一/半 + 양사’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동시에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没+V+一/半+양사’는 전체로 완전부정(完全否定)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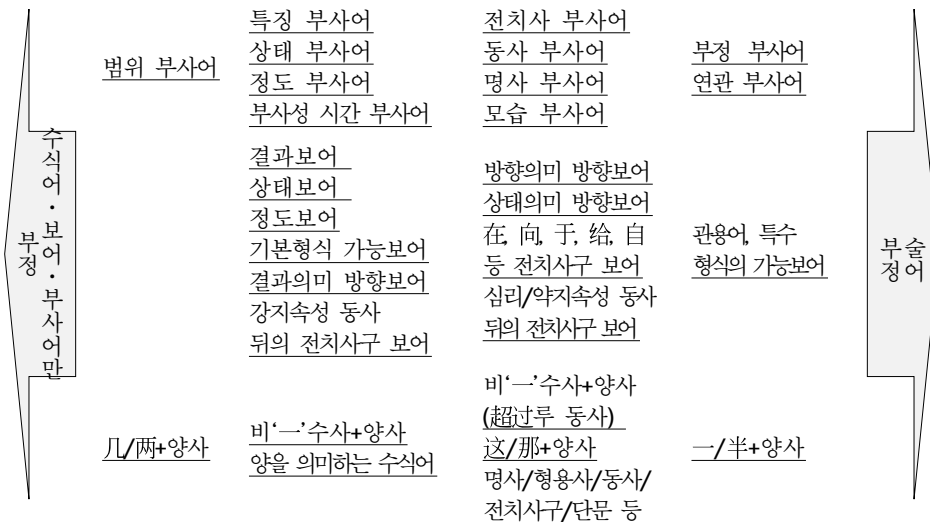
넷째, ‘这/那+양사’와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구, 단문 등이 수식어일 경우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수식어의 ‘신정보 전체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구문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제6장 결론

본고는 부정사 ‘没’의 부정범위가 ‘没’의 뒤에 출현함을 밝혔으며 ‘没’의 뒤에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어 부정사의 부정범위는 부정사의 뒤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중국어 부정사가 다른 언어와는 달리, 문장 내에서 어느 위치에나 출현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고 싶은 성분의 앞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사 ‘没’는 기타 술어 성분과 함께 ‘没+VP’ 형식으로 문장의 전제를 부정할 수 있다. 부정사 ‘没’의 앞에 대조강세나 ‘是’, ‘就’, 배타적 양화사(唯量词)가 출현하는 경우 ‘没+VP’는 문장의 전제로서 대화에 배경을 제공할 뿐 부정사 ‘没’가 직접 그 앞에 출현하는 강조 성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본고는 BCC 코퍼스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사 ‘没’의 뒤에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출현하는 문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언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의 분포 현황을 살피고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그 영향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6-1]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 양상

부정사 ‘没’는 술어를 전체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술어 전체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비율은 각각 69%, 52%, 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초점의 실현 양상은 각각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 부정사 ‘没’는 일반적으로 부사어를 포함한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부사어가 명사성, 동사성, 전치사구 부사어일 경우, 연관, 부정, 모습,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혹은 부사성 시간 부사어일 경우에 부정사 ‘没’는 부사어를 포함한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부사어가 특징 및 상태 부사어, 부사성 범위 부사어일 경우에 부정사 ‘没’는 부사어만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보어가 출현하는 경우 결과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기본형식의 가능보어, 결과의미의 방향보어, 강지속 동사 뒤에 위치한 전치사구 보어는 모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관용어, 특수 형식의 가능보어, 방향의미와 상태의미의 방향보어, 대부분 전치사구 보어는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전체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수식어가 출현하는 문장에서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수식어가 ‘几/两/比‘一’수+양사’일 경우 수식어 성분은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중 동사가 초과(超过)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뒤에 구체적인 수량사가 출현할지라도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 또한, 수식어 성분이 ‘一/半+양사’, ‘这/那+양사’,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구, 단문 등일 경우에도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한다.

다음으로 부정초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조초점은 부정사 ‘没’가 부정초점을 결정하는 최우선적인 요인이다. 부사어, 보어, 수식어, 심지어 수식어를 포함한 목적어, 보어의 선행 동사가 대조초점인 경우라면 모두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부정사 ‘没’는 양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양을 나타낼 경우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맥락으로 일부 부사성 시간 부사어, 부사성 범위 부사어, 정도 부사어, 결과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의 기본형식, 결과의미의 방향보어, 강지속 동사 뒤에

위치한 전치사구 보어는 모두 양을 표시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부정사 ‘没’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几/两+양사’, ‘비·一’수사+양사’ 형식의 수식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을 표시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부정사 ‘没’의 뒤에서 단독으로 부정되어 ‘소량’의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구문의 구조도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부사어의 경우 부사어와 술어 사이의 ‘선택제한(选择限制)’에 따라 모습, 시작, 경로, 방향, 도구, 방법, 재료, 협동, 대상 등의 부사어는 의미적으로 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된다. 또한, 부정사 ‘没’는 뒤에 부정 부사어가 출현할 경우 부정 부사어가 포함된 전체 술어를 부정하며 의미적으로는 술어의 실현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식의 이중부정은 어조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보어의 경우 ‘向’, ‘于’, ‘给’, ‘自’ 등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선행 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치사가 출현할 때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치사 ‘到’는 선행 동사가 강지속 동사일 경우 해당 동사와 결합하여 동보구조를 구성하기 때문에 부정사 ‘没’는 보어 성분만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전치사 ‘到’는 선행 동사가 심리동사 혹은 약지속 동사일 경우 해당 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식어의 경우 ‘一/半+양사’ 형식의 수식어는 소량의 의미를 나타내고 부정사 ‘没’ 역시 주관감량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당 형식의 수식어가 부정사 ‘没’의 뒤에 출현할 때 고정된 하나의 구문 형식으로서 완전부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부정사 ‘没’는 술어 전체를 부정함으로써 술어 사건의 미발생을 나타낸다.

넷째, 술어 사건과 부사어 및 보어의 시간적 관계 역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대부분의 부사어는 술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행위자가 특정 모습으로 동작을 시작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한정하기 때문에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서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V+得+상태보어/정도보어’ 구조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부정사 ‘没’는 상태보어와 정도보어의 앞에서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상태보어와 정도보어만 부정함으로써 ‘동작이 발생하였지만, 특정한 상태와 정도

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부사어의 의미지향도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모습 부사어는 주어의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동작이 발생하지 않아도 주어를 묘사할 수 있다. 따라서 모습 부사어는 다른 술어 성분과 함께 부정사 ‘没’에 의해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후행하는 술어 사건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때문에 해당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 이미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특징과 상태 부사어는 단독으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这/那+양사’,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구, 단문 등이 수식어로 출현하는 경우 신정보일지라도 전체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화자는 청자가 문맥과 상식에 따라 이러한 실체를 식별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신정보 전제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 부정사 ‘没’는 전체 술어 성분을 부정함으로써 특정 사건의 미발생을 나타낸다.

본고는 부정초점의 분포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서술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BCC 코퍼스를 통해 부정사 ‘没’와 부사어, 보어, 수식어가 공기하는 문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정량적 데이터 분석(Quantitative statistics)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분포 현황을 도출하고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확립 규칙을 밝혔으며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의 부정사 ‘没’의 부정초점 실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며, 중국어 교육에도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부정사 ‘不’의 부정초점, 조사 ‘了’의 기능, 중국어와 다른 언어의 부정 비교 등과 관련된 연구에도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고석주 외 역(2000), 『정보 구조화 문장 형식』, 서울: 월인.
- 박정구 역(2005), 『중국어 화용론』(温锁林, 2001), 서울: 신성.
- 박정구·백은희·조은정 역(2020), 『고대중국어 문법론』(梅广, 2018), 서울: 한국문화사.
-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 역락.
- 曹逢甫(1977), 『主题在汉语中的功能研究——迈向语段分析的第一步』, 北京: 语文出版社.
- 陈平(1985), 「英汉否定结构对比研究」, 载陈平著 『现代语言学研究: 理论与方法与事实』, 重庆: 重庆出版社.
- 戴耀晶(2015), 「质的否定还是量的否定- “什么、怎么”在汉语否定句中的功能」, 『语言研究集刊』(第十四辑),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 丁声树(1980), 『现代汉语语法讲话』, 北京: 商务印书馆.
- 范晓(1996), 「短语和词的界限」, 『三个平面的语法观』,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 胡裕树主编(2019), 『现代汉语』(重订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黄伯荣·廖序东(2002), 『现代汉语』(增订三版)下册,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 黄伯荣·廖序东(2017), 『现代汉语』(下册)(增订六版),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 杰弗里·N·利奇(Geoffrey N. Leech)(1987), 『语义学』, 李瑞华(等)译,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李宝伦·潘海华(2005), 『焦点与汉语否定和量词的相互作用-信息结构和意义的研究』, 徐烈炯、潘海华(主编),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李宇明(2000), 『汉语量范畴研究』, 武汉: 华中师范大学出版社.
- 刘丹青(2008), 『语法调查研究手册』,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刘丹青·徐烈炯(2003), 『话题与焦点新论』,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刘月华等(2001),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 陆俭明(1999), 『中国语言学论丛』第1辑, 北京: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

- 陆庆和(2006), 『实用对外汉语教学语法』,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吕叔湘(1982), 『中国文法要略』, 北京: 商务印书馆.
- 吕叔湘(1976), 『现代汉语语法提纲』, 载于吕叔湘(2002), 『吕叔湘全集』(第十三卷), 辽宁: 辽宁教育出版社.
- 吕叔湘(1979), 『汉语语法分析问题』, 北京: 商务印书馆.
- 马庆株(1992), 『汉语动词和动词性结构』,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 沈家煊(1999), 『不对称和标记论』,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其他版本沈家煊(2015), 『不对称和标记论』, 北京: 商务印书馆.
- 沈家煊(2005), 「也谈能性述补语“V 得 C”和“V 不 C”的不对称」, 沈家煊·吴福祥·马贝加, 『语法化与语法研究(二)』, 北京: 商务印书馆.
- 石毓智(1992), 『肯定和否定的对称和不对称』, 台湾: 台湾学生书局.
- 王力(1984), 『王力文集』, 山东: 山东教育出版社.
- 王力(2014), 『中国现代语法』, 北京: 中华书局.
- 徐烈炯·潘海华主编(2005), 『焦点结构和意义的研究』,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袁毓林(1999), 「述结式的句法语义分析」, 『袁毓林自选集』, 广西: 广西师范大学出版.
- 张宝林(2006), 『汉语教学参考语法』,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赵元任著·丁邦新译(2002), 『中国话的文法』, 香港: 中文大学出版社.
- 赵元任(1979), 『汉语口语语法』(吕叔湘编译), 北京: 商务印书馆.
- 周士弘(2016), 『汉语句子的信息结构研究』, 北京: 北京师范大学出版社.
- 朱德熙(1982),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 朱德熙(1997), 『现代汉语语法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 朱德熙(2015), 『语法讲义』(第21次印刷), 北京: 商务印书馆.
- Bybee, J.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y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 Chao, Y. R.(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lins, P. C.(1991), *Cleft and Pseudo-cleft Constructions in English*, London: Routledge.
- Goldberg, A. E.(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ndel, Jeanette K.(1999),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eter Bosch & Rob van der Sandt (eds) *Focus, Linguistic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burger, E.(2000), *What counts: Negation and Quantifica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Jackendoff. R.(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IT Press.
- Jacobsen, Otto (1917), *Negation i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Copenhagen: A. F. Høst.
-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 C. N. & Thompson, A. S.(1989),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yons.J.(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tto Jespersen(1958), *The philosophy of grammar*, 何勇等译(2010), 『语法哲学』, 北京: 商务印书馆.
- Quirk, et al(1973),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Harlow Essex: Longman.
- Taglicht, J(1984), *Message and Emphasis*, London: Longman.
- T. Givón(1978), *Negation in Language:Pragmatics, Function, Ontology*, in P. Cole(ed.), *Pragmatics(=Syntax and Semantics, Vol. 9)*, New York: Academic Press.
- Vendler, Zeno(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u, G.(1998), *Information Structure in Chinese*,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2. 논문류

- 박정구(2011), 「중국어 동사구의 변이적 구조 고찰을 통한 언어변화론 연구」, 『中国文学』 제68권, 165-187.
- 박정구(2022),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부사 중의문의 특성 — ‘就’, ‘才’, ‘都’, ‘也’가 쓰인 구문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101권, 55-85.
- 박정구·강병규·유수경(2020), 「중국어 방언의 완정상·완료상·완성상 표지의 분포와 그의 언어유형론적 함의」, 『중국언어연구』 제87권, 219-258.
- 박정구·이명숙·유수경(2022), 「현대 중국어 논항 생략 기사문의 정보구조 - ‘我就是’, ‘就是我’ 형식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제100권, 109-138.
- 白荃(2000), 「“不”、“没(有)”教学和研究上的误区—关于“不”、“没(有)”的意义和用法的探讨」, 『语言教学与研究』 第3期, 21-25.
- 陈平(2004), *identifiability and definiteness in Chinese*, *Lingua*, 113:1169-1184.
- 陈一·董贤玲(2008), 「由“没”、“了”同现句说“异常态”的表达」, 『渤海大学学报』 第4期, 131-135
- 董秀芳(2003), 「无标记焦点和有标记焦点的确定原则」, 『汉语学习』 第1期, 10-16.
- 范晓(1984), 「关于动补格句式的句义重心」, 『中国语文通讯』 第4期.
- 范振强·肖治野(2010), 「双重否定: 否定之否定」, 『安徽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2期, 77-82.
- 方梅(1995), 「汉语对比焦点的句法表现手段」, 『中国语文』 第4期, 279-288.
- 傅力(1984), 「某些动补格句式“后重前轻”的限制」, 『中国语文通讯』 第1期, 267-284.
- 郭继懋·王红旗(2001), 「粘合补语和组合补语表达差异的认知分析」, 『中国语言文字』 第2期, 14-22.
- 郭锐(2006), 「衍推和否定」, 『世界汉语教学』 第2期, 5-19.
- 郭中(2012), 「汉语多类状语共现的语序自由度及其解释」, 『汉语学习』 第4期, 104-112.
- 贺晓萍(1999), 「关于状态补语的几个问题」, 『语文研究』 第1期, 26-29.
- 侯瑞芬(2016), 「再析“不”、“没”的对立与中和」, 『中国语文』 第3期, 303-314+383.
- 胡建华(2007), 「否定、焦点与辖域」, 『中国语文』 第2期, 99-112+191.
- 黄华(1984), 「“动(形)+到+……”的结构分析」, 『天津师大学报』 第5期, 90-96.

- 竟成(1993), 「补语的分类及其教学」, 『世界汉语教学』 第2期, 110-115.
- 李宝伦(2016), 「汉语否定词“没(有)”和“不”对焦点敏感度的差异性」, 『当代语言学』 第3期, 368-386.
- 李宝伦·潘海华(1999), 「焦点与“不”字句之语义解释」, 『现代外语』 第1期, 114-127.
- 李锦姬(1996), 「两种可能式的语用分析」, 『南京师大学报(社会科学版)』 第3期, 132-138.
- 李临定(1984), 「究竟哪个“补”哪个?----‘动补’格关系再议」, 『汉语学习』 第2期, 1-10.
- 李临定(1992), 「从简单到复杂的分析方法----结果补语句构造分析」, 『世界汉语教学』 第3期, 161-165.
- 李绍艳·彭家法(2019), 「现代汉语“得”字状态补语的类型及生成方式」, 『外文研究』 第3期, 24-32+107.
- 李铁根(2003), 「“不”、“没(有)”的用法及其所受的时间制约」, 『汉语学习』 第2期, 1-7.
- 李宇明(1997), 「形容词否定式及其级次问题」, 『云梦学刊』 第1期, 77-81.
- 刘月华(1980), 「可能补语用法的研究」, 『中国语文』 第4期, 246-257.
- 刘丹青(1995), 「语义优先还是语用优先—汉语语法学体系建设断想」, 『语文研究』 第2期, 10-15.
- 刘丹青(2008), 「汉语名词性短语的句法类型特征」, 『中国语文』 第1期, 3-20+95.
- 刘丹青·徐烈炯(1998), 「焦点与背景、话题及汉语“连”字句」, 『中国语文』 第4期, 243-252.
- 刘丽萍(2014), 「否定辖域及焦点否定之语义解释」, 『语言教学与研究』 第5期, 69-78.
- 刘探宙(2008), 「多重强式焦点共现句式」, 『中国语文』 第3期, 259-269+288.
- 刘旭(2013), 「“没见到”与“见不到”」, 『语文学刊』 第7期, 44-45.
- 刘月华(1988), 「几组意义相关的趋向补语语义分析」, 『语言研究』 第1期, 1-17.
- 鲁健骥(1992), 「状态补语的语境背景及其他」, 『语言教学与研究』 第1期, 32-42.
- 鲁健骥(1993), 「状态补语的句法、语义、语用分析在教学中的应用」, 『语言教学与研究』 第2期, 22-31.
- 吕叔湘(1985), 「疑问·否定·肯定」, 『中国语文』 第4期, 241-250. 收录于吕叔湘

- (2002), 『吕叔湘全集』(第三卷), 辽宁: 辽宁教育出版社, 426-444.
- 吕文华(1982), 「谈结果补语的意义」, 『语言教学与研究』第3期, 44-51.
- 吕文华(2001), 「关于述补结构系统的思考—兼谈对外汉语教学的补语系统」 『世界汉语教学』第3期, 78-83.
- 梅立崇(1994), 「也谈补语的表述对象问题」, 『语言教学与研究』第2期, 79-89.
- 潘国英(2012), 「修饰成分作为降级述谓性成分的地位」, 『世界汉语教学』第1期, 54-64.
- 朴正九(2005), 「名词性谓语的语法特征及其教学」, 『中语中文学』第37辑, 135- 149.
- 朴正九(2006), 「现代汉语介词短语的分布类型及其语法条件」, 『绍兴文理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第3期, 57-61.
- 朴正九(2016), 「从类型学视角看汉语形容词谓语句的信息结构」, 『中国语文』第4期, 387-396.
- 朴正九(2018), 「从信息结构的角度探讨汉语的句子形式」(国际中国语言学学会第29届年会论文).
- 祁峰(2014), 「汉语的焦点标记词」,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research』第3期, 101-120.
- 祁峰(2012), 「焦点关联及相关现象分析」, 『东方语言学』第2期, 156-171.
- 钱敏汝(1990), 「否定载体“不”的语义—语法考察」, 『中国语文』第1期, 30-37. 收录于中国社会科学院研究所“汉语运用的语用原则”课题组(1994), 『语用研究论集』,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66-179.
- 屈承熹(2000), 「话题的表达形式与语用关系」, 『(日本)现代中国语研究』第1期, 8-34.
- 杉村博文(1982), 「V得C、能VC、能V得C」, 『汉语学习』第6期, 23-33.
- 杉村博文(2010), 「可能补语的语义分析—从汉日语对比的角度」, 『世界汉语教学』第2期, 183-191.
- 尚国文(2010), 「“没+NP”结构的量度特征分析」, 『汉语学报』第1期, 74-84.
- 邵庆春(1986), 「也谈是否取消介词短语作补语」, 『宁夏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1期, 89-92.
- 沈家煊(1995), 「“有界”与“无界”」, 『中国语文』第5期, 367-380.
- 沈清淮(1998), 「“V得C”与“能VC”的语义、句法比较」, 『四川师范大学学报(社会

- 科学版』第3期, 71-76.
- 石毓智(1992), 「论现代汉语的“体”范畴」, 『中国社会科学』第6期, 183-201.
- 宋文辉(2021), 「现代汉语状态、程度补语结构中“得”的意义、性质与功能」, 『世界汉语教学』第3期, 306-322.
- 宋玉柱(1980), 「评“介词结构作补语”」, 『语文战线』第10期,
- 王艾录(1982), 「“动词+在+方位结构”刍议」, 『语文研究』第2期, 89-94.
- 王红旗(1996), 「动结式述补结构的语义是什么」, 『汉语学习』第1期, 24-27.
- 王邱丕·施建基(1991), 「扩展·排他·强调——说补语」, 『语言教学与研究』第4期, 72-83.
- 王姗(2009), 「否定词“没”与“不”否定的“量”的差异」, 『文教资料』第7期, 41-43.
- 吴福祥(2002), 「汉语能性述补结构“V 得/不 C”的语法化」, 『中国语文』第1期, 29-40.
- 熊仲儒(2005), 「否定焦点及其句法蕴含」, 『中国语文』第4期, 300-307+383.
- 熊仲儒(2014), 「状态补语中的达成“得”」, 『语言科学』第3期, 242-251.
- 徐杰·李英哲(1993), 「焦点和两个非线性语法辖域:“否定”、“疑问”」, 『中国语文』第2期, 81-92.
- 徐烈炯(2001), 「焦点的不同概念及其在汉语中的表现形式」, 『现代中国语研究』第3期, 10-22.
- 徐盛桓(1983), 「否定范围、否定中心和转移否定」, 『现代外语』第4期, 6-13.
- 徐盛桓(1990), 「否定范围和否定中心的再探索」, 『外国语(上海外国语学院学报)』第5期, 19-29.
- 玄玥(2011), 「现代汉语动结式补语是一种内部情态体——“完结短语”假设对动结式结构的解释」, 『华文教学与研究』第1期, 67-78.
- 玄玥(2017), 「动词“完结”范畴考察与类型学分析」, 『世界汉语教学』第1期, 20-35.
- 薛红(1985), 「后项虚化的动补格」, 『汉语学习』第4期, 4-5.
- 闫恒(2016), 「从“V+得+结果补语”句式辨析可能补语」, 『哈尔滨师范大学社会科学学报』第3期, 91-94.
- 袁毓林(1992), 「现代汉语名词的配价研究」, 『中国社会科学』第3期, 205-223.
- 袁毓林(2000), 「论否定句的焦点、预设和辖域歧义」, 『中国语文』第2期, 99-108.

- 袁毓林(2005), 「试析中介语中跟“没有”相关的偏误」, 『世界汉语教学』 第2期, 56-70+118.
- 袁毓林(2006), 「试析“连”字句的信息结构特点」, 『语言科学』 第2期, 14-28.
- 张春柏(1984), 「试论关于否定范围的“右向原则”」, 『现代外语』 第4期, 53-58.
- 张纯鉴(1980), 「关于“介词结构作补语”的几个问题」, 『甘肃师大学报』 第3期, 80-82.
- 张耕(2022), 「焦点性定语成因及其去焦点化——以主观大量程度副词内嵌结构为例」, 『宁夏大学学报』 第5期, 78-85.
- 张国宪(1988), 「结果补语语义指向分析」, 『汉语学习』 第4期, 24-28.
- 张林林(1987), 「简单结果补语语义指向」, 『江西师范大学学报』 第1期, 47-50.
- 张苗苗·谭景春(2022), 「结果义动词的句法语义连续统及语义演变」, 『汉语学习』 第6期, 41-48.
- 张时阳(2006), 「否定副词“没”和“不”」, 『语言教学与研究』 第3期, 60-61.
- 张旺熹(2004), 「汉语介词衍生的语义机制」, 『汉语学习』 第2期, 1-11.
- 张谊生(2006), 「试论主观量标记“没”、“不”、“好”」, 『中国语文』 第2期, 127-134+191-192.
- 张颖·陈昌来(2020), 「论否定句的焦点及否定中心」, 『新疆大学学报』 第3期, 152-156.
- 张豫峰(2002), 「汉语的焦点和“得”字句」, 『汉语学习』 第3期, 24-30.
- 周国光(2006), 「试论语义指向分析的原则和方法」, 『语言科学』 第7期, 41-49.
- 左思民(2014), 「论否定域和否定焦点:基于语用的考察」, 『当代修辞学』 第6期, 1-13.
- DuBois, John W. (1980), Beyond definiteness: The trace of identity in discourse. In Wallace Chafe (ed.) *The pear stories: Cognitive, cultural, and linguistic aspects of narrative production*. Norwood, N. J.: Albex Publishing Corporation, 203-274.
- Grice, H.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and Morgan, J., Eds., *Syntax and Semantics*, Academic Press, New York, 41-58.
- Johanna, Nichols(1986), Head-Marking and Dependent-Marking Grammar. *Language* 62(1), 56-119.
- Halliday, M. A.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 Part II,

- Journal of Linguistics(3), 199-244.
- Hedberg, N. A. (2000), The Referential Status of Clefts, *Linguistics* 76(4), 891-920.
- Hopper, P. J. & Thompson, S. A.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 251-299.
- Lambrecht, k. (2001),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left Constructions. *Linguistics* 39(3), 463-516.
- Lee, Peppina Po-Lun & Pan, Hai hua. (2001), The Chinese negation marker bu and its association with focus. *Linguistics* 39(374), 703-731.
- Marie-Claude B. Paris(1979), Some Aspects of the Syntax and Semantics of the “Lian... Ye/Dou” Construction in Mandarin, *Cahiers de linguistique - Asie orientale* 5(1), 47-70.

3. 학위논문

- 이은경(2023), 『현대중국어 ‘是…的’ 분열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경(2009), 『현대중국어 부정문의 정보구조와 부정초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安慧敏(2019), 『“不+程度副词+X”格式的弱化否定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陈前瑞(2003), 『汉语体貌系统研究』, 华中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 李锦姬(2003), 『现代汉语补语研究』,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 李林泽(2021), 『现代汉语语义异指的句法语义特征及认知理据』, 西南大学博士学位论文.
- 潘国英(2010), 『现代汉语状语语序研究』, 华东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 朴正九(1997, 中华民国八十六年), 『汉语介词研究』, 国立清华大学语言学研究所博士论文.
- 祁峰(2012), 『现代汉语焦点研究』,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 屈正林(2005), 『现代汉语状补可换位成分—兼论“得”字句』, 南昌大学硕士学位论文.
- 王红旗(2001), 『指称论』, 南开大学博士学位论文.
- 尹洪波(2008), 『否定词与副词共现的句法语义研究』,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博

士学位论文,

张全生(2009), 『现代汉语焦点结构研究』, 南开大学博士学位论文.

4. 공구서 및 기타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2012), 『现代汉语词典(第6版)』, 北京: 商务印书馆.

吕叔湘(2015), 『现代汉语八百词』, 上海: 商务印书馆.

BCC语料库: <http://bcc.blcu.edu.cn/>

【中文摘要】

现代汉语否定词‘没’的否定中心研究

首尔大学中文系

贾梦阳

否定中心指的是否定成分的作用范围中真正被否定的成分。以往对否定中心的研究并不区分否定词“没”和“不”，并且虽有部分学者关注到了否定词否定的是不同焦点为核心投射而成的焦点词组，但大部分研究认为否定词倾向于否定一个句子成分。实际上否定词“没”与“不”在句法和语义方面都有差异，并且否定中心的情况是很复杂的，不能整齐划一地认为它只否定一个句子成分或整个谓语。因此本文对北京语言大学BCC语料库中否定词“没”与状语、补语、定语成分共现的句子进行了穷尽式语料收集和分类，通过定量统计的方法，观察各类句式否定词“没”的否定中心的分布情况，在此基础上分析“没”的否定中心确立的规律，并从理论上解释出现这些分布规律的原因。

否定中心的研究对象是肯定成分的作用范围中真正被否定的成分，这里的否定成分的作用范围就是否定辖域，因此研究否定中心以前需要对否定辖域进行界定。本文从汉语否定词在语序上的高度无标记性，否定词在特指问句中的否定指向，否定指向对语义的影响，否定句的语义预设四个角度证明了汉语否定词“没”的否定辖域只能出现在否定词后。否定词的否定辖域只能在否定词之后的主要原因是汉语否定词与其他语言相比在语序上无标记程度更高，在句中位置更灵活，否定词“没”可以移动位置来实现对某一成分的否定，而不需要否定其前面的成分；另一个原因是否定词也可以是

预设的一部分, “没+VP”可以整体作为句子的预设成分, 当否定词前有对比重音成分、或被“是”、“就”和唯量词强调的成分时, “没+VP”的语用功能是作为旧信息提供语义背景, 因此“没”作为预设的一部分只否定其后的谓语成分。

通过语料分析统计, 从整体趋势来看, 否定词“没”倾向于否定整个谓语成分。状语、补语和定语所在句中“没”否定整个谓语成分的比例分别占**69%、52%和89%**。首先, 谓语动词前出现状语的情况, 当状语是名词性、动词性、介词短语、副词性时间义状语时, 或当状语表关联、否定、情态、程度义时, 否定词“没”倾向于否定包括状语在内的整个谓语。相反, 当状语表特征或摹状义, 或是副词性范围状语时, 那么“没”倾向于只否定状语。其次, 当谓语动词后有补语时, 结果补语、状态补语、程度补语、基本形式的可能补语、结果意义的方向补语和强持续性动词之后的介词短语补语都倾向于被否定词“没”单独否定; 相反, 习语、特殊形式的可能补语, 方向义和状态义的方向补语和大多数介词短语补语则倾向于与其他谓语成分一起被“没”整体否定。最后, 谓语动词后的宾语成分带定语的情况, 当定语是“几/两/非‘一’数词+量词”时, 否定词“没”倾向于单独否定这一定语成分, 其中当谓语是表“超过”类的动词时, 即使定语成分为“非‘一’数词+量词”, “没”也会否定整个谓语; 相反, 如果定语成分是“一/半+量词”、“这/那+量词”、名词、形容词、动词、介词短语、短句成分时, 否定词“没”倾向于否定整个谓语。

否定词“没”的否定中心的分布主要受以下几方面因素的影响。第一, 影响否定词“没”的否定中心的各种要素中, 对比焦点成分具有第一优先权, 当否定词“没”后有对比焦点时, “没”会首先单独否定这一对比焦点成分。第二, 由于“没”对量敏感, 因此当状语、补语、定语表量时, 会倾向于单独成为“没”的否定中心。第三, 句式结构也会影响否定词“没”的否定中心的确立。介词性状语由于与谓语间存在“选择限制”, 因此倾向于与其他谓语成分共同被“没”否定。“没”后出现其他否定词状语时会形成双重否定形式, “没”

会通过否定整个谓语成分表达委婉的语气。当“向”、“于”、“给”、“自”等介词出现在动词后时，或当介词“到”前的动词是心理动词或弱持续性动词时，这些介词应看作是动补复合词的一部分，这种情况“没”倾向于否定整个谓语成分。当定语“一/半+量词”出现在“没”后时，“没”会否定整个谓语，这一固定结构表达完全否定的意义。第四，谓语事件与状语和补语之间的时间关系也会影响否定词“没”的否定中心的确立。大多数状语描述的是谓语事件发生的时间、地点、方式等背景信息，与事件完成与否无关，因此否定词“没”倾向于否定整个谓语事件。相反，“V+得+状态/程度补语”结构描述的是已经发生的事件，所以“没”不能否定事件的存在，而只否定补语成分。第五，状语的语义指向也会影响否定词“没”的否定中心的确立。情状状语描写的是主语的表情、态度、模样，与谓语事件完成与否无关，因此倾向与其他谓语成分共同被“没”否定；相反，特征和摹状状语是对谓语事件的描述和限定，谓语事件的实现是其出现的前提，因此倾向于被“没”单独否定。第六，新信息预设原则决定了“这/那+量词”、名词、形容词、动词、介词短语、短句等定语成分虽为新信息，但会作为预设的一部分与其他谓语成分共同被“没”否定。

本文通过对语料进行穷尽式统计和分析，详尽地归纳出各类状语、补语和定语句中否定词“没”的否定中心的分布规律，并从句法、语义、语用和信息结构理论角度分析了否定中心呈现出这些的分布规律的原因。否定词“没”的否定中心的确立不仅能帮助我们更深一层了解否定的用法，对汉语教学提供理论支持，并且对今后进一步研究否定词“不”的否定中心，助词“了”的用法，汉语否定与其他语言的否定形式的异同等都有一定启示。

关键词：否定中心，否定辖域，状语，补语，定语，语料分析，信息结构，对比焦点，表量特征，语义指向

学 号：2014-31397